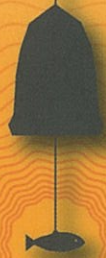


ISSN 1739-8932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e
2006
제10호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2006
ChungNam Culture
제10호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충남문화 2006 • 제10호

전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의 역할

충남 지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원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사업·충남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도 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도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루

이 재 훈

이별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이겨낸 자만이
슬픔을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을 버텼다 그러나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신다
영덩이 밑에서 건져 올린 슬픔을
한 올 한 올 뜨고 계신다

이 재 훈

시인. 충남 논산시 연무읍 출생.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내 최초의 말이 사는 부족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건양대학교 강사. 「현대시」편집장.

마루

이 재 훈

이별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이겨낸 자만이
슬픔을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을 버텨왔다 그러나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신다
엉덩이 밑에서 건져 올린 슬픔을
한 올 한 올 뜨고 계신다



마루

이 재 훈

이별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이겨낸 자만이
슬픔을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을 버텼다 그러나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신다
엉덩이 밑에서 건져 올린 슬픔을
한 올 한 올 뜨고 계신다



마루

이 재 훈

이별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이겨낸 자만이
슬픔을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을 버텨왔다 그러나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신다
영당이 밑에서 건져 올린 슬픔을
한 올 한 올 뜨고 계신다





역사의 향기와 가치를 전하는
충남의 문화유산

충남문화

제10호

2006
ChungNam Culture

- 발행일자 2006년 12월 / 연 1회발행
- 발행인 박응진
- 편집인 이준창
- 편집위원 (가나다순)
박응진(도지회장), 권연옥, 김시겸, 김호택, 명수남,
송용삼, 신상찬, 유성열, 윤병배, 윤준웅, 이용면,
임영이, 전용택, 정재권, 정재욱, 정정희, 최영환

-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320-030 논산시 내동 279-4번지
Tel. (041)730-4632 Fax. (041)732-2394
- 편집디자인
불커뮤니케이션
- 표지디자인
박정현 교수(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 이 책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 003 권두시
 - 이재훈 (시인, 「현대시」 편집장) '마루'
- 006 권두언
 - 박응진(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 008 축간사
 - 이완구(충청남도지사)
 - 김문규(충청남도의회회장)
- 012 특별기고
 - 사이버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경일(건양대 문학영상학과 교수)
 - 사이버 세상에서 또다른 나 '아바타캐릭터'
박정현(한남대 디자인학과 교수)
- 024 기획특집
 - 해외 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사업 보고
- 061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 070 문화칼럼
 - 정재욱(공주문화원장)
- 073 충남의 인물
 - 고려충신 석탄 이준오 선생(부여문화원)
 - 의춘부원군충장공 남이흥장군(당진문화원)
- 081 충남의 민속
 - 대보름(홍성문화원)
- 084 충남의 전설
 - 닥실나루(금산문화원)
 - 임바위(청양문화원)
- 088 충남의 문화재
 -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아우내문화원)
 - 태안설위설경(태안문화원)
- 094 충남의 향토축제
 - 2006금강자연 미술비엔날레(공주문화원)
 - 2006양촌꽃감축제(논산문화원)
 - 2006전국쌀사랑음식축제(당진문화원)
 - 제10회 추사문화제(예산문화원)
 - 도원문화제(조치원문화원)
 - 제12회 만해제(홍성문화원)
- 116 문화원 단신
- 120 2006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 123 2006년 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 공 주 문 화 원 활동상황
 - 금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 논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 당 진 문 화 원 활동상황
 - 대 천 문 화 원 활동상황
 - 부 여 문 화 원 활동상황
 - 서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 서 천 문 화 원 활동상황
 - 성 환 문 화 원 활동상황
 - 아 우 내 문 화 원 활동상황
 - 예 산 문 화 원 활동상황
 - 온 양 문 화 원 활동상황
 - 조 치 원 문 화 원 활동상황
 - 천 안 문 화 원 활동상황
 - 청 양 문 화 원 활동상황
 - 태 안 문 화 원 활동상황
 - 홍 성 문 화 원 활동상황

감성이 이끄는 문화시대를 열자!

박 응 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시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는 인간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대량생산의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도의 IT산업의 발달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감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로움의 시대를 살면서 인간은 기능적인 만족감보다 차별화된 심리적 만족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후자는 전자의 좌뇌적 사고에 반하는 우뇌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이 저자는 하이컨셉과 하이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관계 없는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이들을 결합하여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며 하이터치는 마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어떤 사람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 내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미를 가지고 있어 좋은 감정을 느끼는 힘이 그 열쇠가 될 것이며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스토리를 겸비하여 자기 주장에 공감토록하는 능력과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조화와 통합의 능력이 요구되며 논리적인 사고능력보다 타인에 대한 유대강화와 배려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을 주는 능력과 진지함보다는 웃음과 명랑한 마음과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건강은 물론 사회적 성공에 필수가 될 것이며 물질적 축적보다는 그 풍요의 깊은 의미를 찾고 목적의식을 통한 정신적 만족감을 찾아야 한다는 위와 같은 능력이 현대인의 필수적 재능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었고 정보도 언제든지 공유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힘이 대중을 움직이는 시대로 변화하였으며 기업도 구매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감성 마케팅이야말로 바로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개념과 감성을 경영이념으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한 쥐는 생존하고 변화를 거부한 쥐는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태되지 않기위해서라도 변해야만 삽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우뇌적 사고인 바로 감성적인 사고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그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감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대나무도 매듭을 지으며 자라듯이 한해의 마무리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사에 마무리를 허술하게 하면 애써 해온 일들이 헛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버선을 지으실 때 마지막 작업으로 버선코 끝에서 실을 탄탄히 매듭지어 끊고서야 바느질을 마치시던 모습은 산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2007년 한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뚜껑이 열리겠지요. 무엇이 있을지 어떤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랑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길 기도합니다.



지역민의 참여는 충남문화 발전의 디딤돌



이 완 구
충청남도지사

먼저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도내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문화 제1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시대의 조류 속에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기가 문화를 단지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세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형태로 변화·발전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사회수준과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동차나 TV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와 마법사 등과 같은 영화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 부를 낳는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인 겨울연가와 사랑과 야망 등과 같은 TV프로그램은 이미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의 찬란했던 고도,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문화예술 축제 역시 지역에 소재한 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것으로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도청 이전 등에 따라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있어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지역문화발전에 거는 관심과 기대역시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정서가 스며있고 향토색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여 지역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충남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향토문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는 충남문화 제10호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충남의 문화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박웅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 12.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문화예술의 향취를 가득 담은
『충남문화제10호』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김 문 규
충청남도회의의장

문화예술의 향취를 가득 담은『충남문화 제10호』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박웅진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지역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독특한 전통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지켜왔습니다.
더욱이 우리충남은 백제문화를 활짝 꽃피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값진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적인 전통과 저력이 국가번영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계 문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400여년전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혼을 다시 재현해야 하겠습니다.
토양이 척박하면 어떤 나무도 그곳에서는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낙후된 문화산업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문화의 불모지”가 아닌 “문화상품의 생산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향토에 관한 문화적 가치를 찾아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시설등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문화자원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관광코스에 문화유적은 필수코스로 선진국들은 문화산업 자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그 최후의 승부처가 문화산업이다』고 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과 같이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세계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시·군 지역 문화원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동력으로 거듭나 주민들이 폭넓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췌록, 향토문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충남문화 제10호』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와 시·군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6. 12.
충청남도회의의장 김 문 규



사이버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 경 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산물 가운데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업적이다. 인터넷은 개별적 단위로 독립되어 있던 사회의 지식정보 요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담아냈다. 개별 단위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구성체의 집합요소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사라졌고 언어와 인종의 차이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인류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양분될 정도로 인터넷의 위력은 대단하다. 모든 사회의 변화가 늦던 빠르던 언어에 반영되어 온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도 우리 언어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점차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

한 선부른 예측을 주저하게 만든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 사회적 실재감의 저하, 대등한 의사소통의 구현효과, 의사소통 내용의 간결화, 익명성의 문제 등으로 정리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현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달라진, 변화된 언어현상들이 급속히 그리고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상에 나타나는 언어 변화 양상이 현실 공간에서의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역전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생활은 우선적으로 음성언어를 위주로 한다. 말하고 듣는 것이 먼저이고 읽고 쓰는 것은 그다음 가치이다. 언어 학습의 순서도 음성언어가 먼저이다. 문자언어는 음성언어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발전된 것이다. 문자는 속성상 보수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음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거지”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아이, 그지 같은 놈”이라고 말한다. 이미 말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거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표기에 합당하다고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필자가 ‘맘’이라는 단어를 썼다. 아마 정식으로 표기하면 ‘마음’이라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는 음성언어의 변화를 문자언어가 용인하지 않고 그 변화를 방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음성언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화는 문자언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다. 규범체계를 이루고 있는 문자언어의 변화는 쉽사리 음성언어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언어의 변화를 막아 줄 방어벽이 일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 상에 나타나는 언어변화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언어의 변화 양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언어 변화 모습은 대략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표기의 간략화이다. 인터넷의 본격적 등장 이전 1990년대에 사용되었던 소위 전화를 이용한 통신언어 시절, 간략화된 표현은 곧바로 통신시간의 단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통신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를 ‘안녕세요’로 ‘반갑습니다’를 ‘방가방가’로 줄여 쓰는 일은 일견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통

신요금 체계가 사라진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도 이러한 축약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인터넷 사용자 즉 네티즌이 금전상의 경제성이 아니라 시간적인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반형식주의적 언어사용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반 형식성은 이성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질서 속에 정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을 부정한다. 최근의 반 형식적 문화는 과거의 형식을 빌려 현재의 상황으로 변형시키는 과거의 현존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인터넷에 접목되어 문법의 파괴, 신조어의 생산, 표기방식의 다양성의 추구 등을 이룩해 냈다. 최근 인터넷 상의 표기들은 종래의 한글 자모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기호는 물론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다.

셋째는 차별성의 강조이다. 지배적인 이념체계가 사라진 현대에는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체계에 의해 차이를 인정하며 따라서 차별적인 존재가 더 교환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인터넷 상의 언어표기들은 일종의 언어유희로서 이를 사용하는 계층 사이에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 인터넷 언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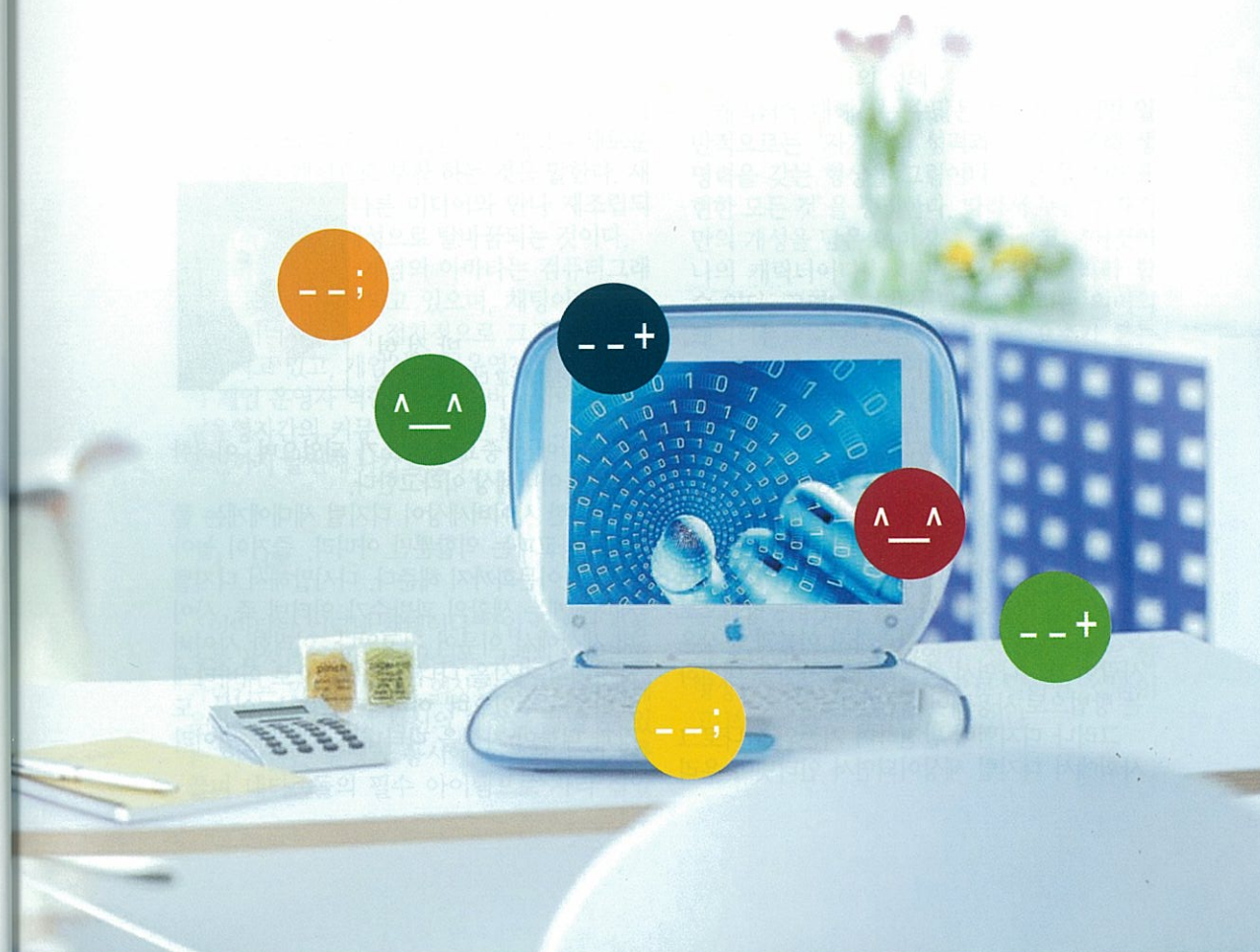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언어의 변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과연 그들의 표기는 우리 언어를 짓밟고 파괴하는 무분별한 현상인가? 아니면 언어변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견해는 사이버상의 언어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될 수는 없으나 이는 한국어의 긴 역사를 전망할 때 그리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언어는 일정한 문화적 전통 위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언어 속에는 일정한 문화적 전통과 함께 문화적 형식과 범주들이 담겨 있어서 그 언어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그 형식과 범주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현실을 파악하게 한다.

언어는 창조적이다. 언어는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 곁에서 명멸하다 사라진 술한 말들을 생각해 보라. 일시적으로 유행하던 말들은 결국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언젠가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진다. 소리의 변화와 어휘의 변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다. 언어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체계의 변화이다. 우리가 우리말의 모습을 정확히 알게 된 세종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말의 소리와 단어는 세종이 다시 환생하면 전혀 의

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변화하였다. 그러나 문법의 기본 골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표현과 문자들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표현들의 문제는 언어변화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실제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생활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현실적으로 세대 간 또는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의 자제나 완화를 유도하는 교육적,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 익명성으로 인한 예절의 부재, 사이버공간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공용어 인식의 저하, 지나친 창의성의 발휘가 가져오는 괴이한 도형의 생산, 확대 등은 차차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박 정 현
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초록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신만의 이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름은 수십억 인구중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름 외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도장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름과 도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자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이 발전하며 기존의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세상이되면서 인터넷이 우리

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것을 사이버세상 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이버세상이 디지털 세대에게는 물건을 사고파는 역할뿐만 아니라, 즐거이 놀아주는 놀이문화까지 해준다. 다시말해서 디지털 세대에게는 생활의 과반수가 인터넷 즉,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아바타캐릭터를 들수있으며, 아바타 캐릭터는 이름, 도장과 더불어 자신을 나타내는 제3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캐릭터라고 하는 개성체가 산업화 사회에서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수십 년에 이르면서, 최근 정보화시대에는 아바타 캐릭터가 캐릭터의 산업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테마가 되었다. 캐릭터가 산업화의 촉매로 등장함으로써 그 개념과 정의는 보다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졌다. 미디어의 발달과 시장 확대로 캐릭터의 용도와 기능도 변했기 때문이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 모니터 속에서 춤추고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자료가 아티스트의 손에서 재구성되어 다시 입력 되기도 한다.

다. 인터넷 웹 사이트들은 유행에 민감한 네티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아바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마련이다. 현재 포털 게임 업체들의 실적 주도는 제 2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아바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시장만으로는 좁게 느껴지면서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로 아바타 수출이 급진전 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들이 코스닥 유망 테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본론

1. 캐릭터의 개념

1) 일반 캐릭터의 정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만의 성격과 특징을 통해 생명력을 갖는 형상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 따라서 누군가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것이 나의 캐릭터이다!' 하면 그것도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캐릭터는 거기에 조금 더 사업적 요소가 붙는다. 바로 상품화 가치이다. 즉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캐릭터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이름, 성격, 행동 등에 강한 개성이 담겨져 있는 상징물로서 상품화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캐릭터의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창출되어야 하고, 그 외에 부가되는 가치는 캐릭터의 이미지 관리나 마케팅을 통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캐릭터는 엄연한 '상품을 전제로 한 형상물'이요,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품이고 브랜드'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장르가 파괴와 해체의 과정을 겪고, 미디어는 미디어끼리 믹스되고, 아티스트와 엔지니어가 상호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캐릭터는 '멀티캐릭터시대'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멀티캐릭터'는 두 가지 이상의 장르나 미디어가 해체와 재조립과정을 거쳐 제 3의 새로운 장르 또는 개성으로 부활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개성은 또 다른 미디어와 만나 재조립되고 전혀 새로운 개성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개념의 아바타는 컴퓨터그래픽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채팅이나 게임 등 사이버세상에서 점차적으로 그 활용범위가 높아지고 있고, 게임시 게임운영자의 분신으로서 게임 운영자 역할을하여 아바타캐릭터와 게임운영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그 이상의 표현까지 발전해 나가고있다.

I. 서론

아바타란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등에서 사용자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그래픽 아이콘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종 의상과 소품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맘껏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아바타는 탄생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네티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



2) 아바타캐릭터의 정의

가상사회(Virtual Community)에서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아바타는 분신(分身)·화신(化身)을 뜻하는 말로,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원래 아바타는 '내려오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Ava와 아리, 땅이란 뜻인 Terr의 합성어이다. 고대 인도에선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인터넷시대가 열리면서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 '아바타'는 인터넷 채팅 등 사이버공간 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실의 '나'를 대신해 가상공간을 활동하는 가상인물의 뜻으로 쓰여 지고 있다. 즉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사용자의 분신인 것이다.

2. 캐릭터의 역사 및 등장배경

1) 일반 캐릭터의 역사 및 등장배경

캐릭터 사업의 효시는 월트 디즈니사로, 1928년 세계최초의 유성영화 '증기선 윌리호 (Steamboat-Willy)'의 주인공 미키마우스가 히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캐릭터가 황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월트 디즈니에 의해 캐릭터는 각종 상품에 접목되었고, 이에 대한 캐릭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캐릭터 사업은 태동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세계 경제의 발전으로 상품이 풍부해지고 유행해지면서 텔레비전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들이 새롭게 탄생하였고, 캐릭터 사업은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발전하였다.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캐릭터 상품은 일반적인 제품에 디자인을 좀더 아름답게 한 상품 정도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부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캐릭터

상품 Human Communication의 메신저로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지 50여 년이 되었으며 상품의 영역도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의류, 식품, 레저, 소프트웨어, 출판, 애니메이션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은 실로 방대하다. 한마디로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캐릭터가 'Non Sex, Non Age, Non Generation'이라는 기본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가능성에 비하여 국내에 캐릭터 상품이 처음 선보인 것은 70년대 중반부터였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은 캐릭터 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 아바타의 역사 및 등장배경

아바타 용어의 대중화를 이끈 닐 스티븐슨(Neel Step-hensen)의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라는 SF 소설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은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이러한 소설 상의 가상세계들이 웹상에서 조금씩 구현되기 시작하여 점차 활성화되었다.

아바타의 등장 배경은 인터넷 사용수의 증가로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을 표현하기 위한 욕구 발생과 네티즌 역시 현실에서 억제된 욕구나 외모에 대한 불만을 아바타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함이었고, 여기에 인터넷 업체 역시 소속감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네티즌을 확실한 고객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채팅이나 게임, 커뮤니티, 메일에 아바타 기능을 추가해 익명의 공간이었던 사이버 세계를 오프라인처럼 개성 표현이 가능한 곳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3. 캐릭터의 종류

1) 일반캐릭터의 종류 (기능에 따른 분류)

- 1) 애니메이션 캐릭터 : 포켓 몬스터, 심슨 가족
- 2) 스타 캐릭터 : 왕건, 유재석(메뚜기), 세븐
- 3) 만화 캐릭터 : 오디션, 슬램덩크, 짱구
- 4) 팬시 캐릭터 : 마시마로, 헬로 키티, 푸카
- 5) 광고 및 프로모션 캐릭터 : 치토스의 체스터
- 6) 브랜드 캐릭터 : 카이 홀맨
- 7) CI 개념의 기업 캐릭터 : 현대자동차 쌍둥이

<그림1.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2. 스타 캐릭터>



<그림3. 만화 캐릭터>



<그림4. 브랜드 캐릭터>



<그림5. 팬시 캐릭터>



<그림6. 기업 캐릭터>



2) 아바타의 종류

(1) 2D 캐릭터(2Dimension:2차원)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여 만든 2차원적인 평면의 캐릭터를 뜻한다.

〈그림7. 2D 캐릭터〉



(2) 3D 캐릭터(3Dimension:3차원)

3차원 그래픽 툴에 의해 폴리곤 형태로 제작되어 점, 선, 면, 색상 등의 벡터(Vector)치를 가지고 있다. 캐릭터의 구조가 3차원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2D캐릭터 보다는 현실감이 뛰어 나지만,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높은 시스템의 사양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스템의 사양이 좋아지면서 이문제는 해결 되고 있으며, 따라서 3D 아바타 캐릭터의 사용범위는 갈수록 높아지면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림8. 3D캐릭터〉



4. 일반 캐릭터와 아바타에 대한 비교 분석

1) 일반 캐릭터

캐릭터나 캐릭터 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이자 첨단 산업이다. 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 등의 캐릭터 소스를 영상 그래픽,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프로모션 활동 등이 종합된 제작 시스템과 산업 각 분야와의 연계 자본이 필요한데도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설사 어느 정도 갖추고 있더라도 경쟁력이 없거나, 질적 수준이 뒤따르지 않았다.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 만화, 영상의 주인공 캐릭터와 산업화를 위한 디자인 캐릭터를 혼동하여 동일한 정책이 이루어졌다. 성공한 선진국의 캐릭터 산업은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은 아니다. 스토리나 캐릭터 소스를 산업화하는 엔지니어의 과학적 접근과 디자이너의 상품개발, 마케팅의 국제적 프로모션, 정책과 자본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캐릭터 산업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플래닝 전문가와 독창적 캐릭터 소스를 개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유능한 엔지니어, 아이디어에 투자자는 자본이 결합해야 한다.

2) 아바타캐릭터

아바타는 인터넷 세상의 가상사회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육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바타가 이용되는 분야는 채팅이나 온라인게임 외에도 사이버 쇼핑몰·가상교육·가상오피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온라인 채팅서비스로 아이콘 채팅, 3차원 그래픽 채팅 등의 아바타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아바타는 2차원으로 된 그림이 대부분이었다. 머드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3차원 아바타이다.

3차원 캐릭터는 입체감과 현실감을 함께 지닌 것이 장점이다.

아바타는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이어주며, 익명과 실명의 중간 정도에 존재한다. 과거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매료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아바타 캐릭터가 생겼다.

대부분의 게임이나 채팅서비스에서는 주로 몇 가지의 캐릭터를 조합하거나 이미 완성된 아바타를 제공하지만 그래픽 기술이 향상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만들어놓은 기성품(Ready-made)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ID처럼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도 등장하였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표현이 가능한 캐릭터의 등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3) 일반캐릭터와 아바타캐릭터의 비교 분석

일반캐릭터의 대표적인 표현방법으로는 인쇄매체를 통한 방식이었다. 기존의 아날로그에서는 캐릭터도 소비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정된 소재에서 선택의 범위가 좁고, 정보화의 빠른물결에 기존의 캐릭터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디지털 아바타캐릭터는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빠른 유행의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콘텐츠로 언제든지 소비자의 구미에 맞추어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방적인 아날로그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대방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호작용(inter-rective)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성은 내가 아바타캐릭터를 통하여 나의 불안전함을 완전하게 해주고, 분신화된 아바타 캐

릭터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 캐릭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디지털 형태인 아바타 캐릭터만이 가능하게 만든 미래지향적인 캐릭터 형태라고 할수 있다.

현재는 2D형태로 단순히 이름 대응이나, 게임시 지시에 의해서 단순적인 임무만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3D형태로 더욱 사실감있게 표현되며 자신의 분신으로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대변자 역할은 물론, 인공지능을 가진 어느정도의 능동적인 임무 수행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3D컴퓨터그래픽 아바타캐릭터는 가상현실을 더욱 사실감있게 해주기 때문에 뛰어난 사실감이 있지만, 앞으로 가상공간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적지 않은 휴유증도 생기리라 생각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일반캐릭터와 디지털시대의 아바타캐릭터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표1. 일반캐릭터와 아바타캐릭터의 비교〉

종류 내용	일반캐릭터	3D 아바타 캐릭터
사용자분류	캐릭터 개발자 중심	사용자 중심
개발목적	상업성	자기만족
디자인컨셉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과 무생물	인물중심
캐릭터의 성격	팬시형 캐릭터	분신용 캐릭터
매체의 성격	단방향성	쌍방향성
제작기법	인쇄중심	멀티미디어의 디지털중심
송출방식	오프라인, TV 지상파	온라인, 웹

4) 아바타캐릭터의 발전 가능성

온라인상에서 활동 시간이 증가한 현대인들은 가상공간에서도 아바타캐릭터를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아바타는 게임, 채팅동호회, 사이버 메신저, 이메일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전 콘텐츠에서 구현 가능하며 다른 콘텐츠와의 연동이 자유롭지 못하던 아바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3D컴퓨터그래픽의 발전으로 다양한 표정연출과 움직임이 있는 배경까지 연출이 가능하다.

MIT 미디어 랩에서는 그래픽 채팅 방에서 채팅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아바타가 채팅 내용에 맞추어 웃거나 화를 내는 등 얼굴 표정을 자동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표현하고 실제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 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사용자가 특별한 장비 없이 카메라와 대형 모니터를 보고, 카메라에 잡힌 자신의 이미지와 컴퓨터로 만든 영상에 조합된 것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가상의 생명체는 사용자의 머리, 손, 발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제스처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인공지능을 갖춘 가상 토틀런트(Virtual Talent)의 대중화를 이룰 것이다.

문자, 음성, 영상을 고속 처리하는 디지털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보고 듣는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초공간형 실감 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은 입체 정보통신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현실세계의 가상공간을 이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더욱 생동감있게 만들어질 것이다.

컴퓨터그래픽의 3차원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이므로 해외기술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한국형 입체방식 연구를 통해 첨단 3차원 기술의 선점과

응용분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III. 결론

현대 사회는 유형의 생산 산업보다도, 무형의 문화 미디어 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영화, 만화,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첨단 기술을 사용한 미래의 게임 산업 및 가상현실은 그 파급 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입출력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높임으로써 컴퓨터를 좀 더 현실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감각 (sensation)이란 생체 내·외부의 환경변화나 자극 (stimulus)에 의해 반응하는 의식 내용으로 현재의 시각 및 청각 인터페이스 기술은 현실 수준을 80% 이상 재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였다.

이처럼 가상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세계이다. 이를 위해 가상세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인간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 요소기술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의 세계가 발전할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컴퓨터 세상의 모호한 구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가상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져 실생활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욱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문화의 발전은 사이버세상의 발전을 가져오며 이러한 사이버세상은 현실의 연장선과 가상현실과의 2가지로 나뉘어 발전을 하게 된다.

게임은 가상현실에서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

하고있으며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캐릭터의 발전과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캐릭터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아바타캐릭터는 게임을 운영하는 자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단순한 그래픽적인 캐릭터가 전부였으나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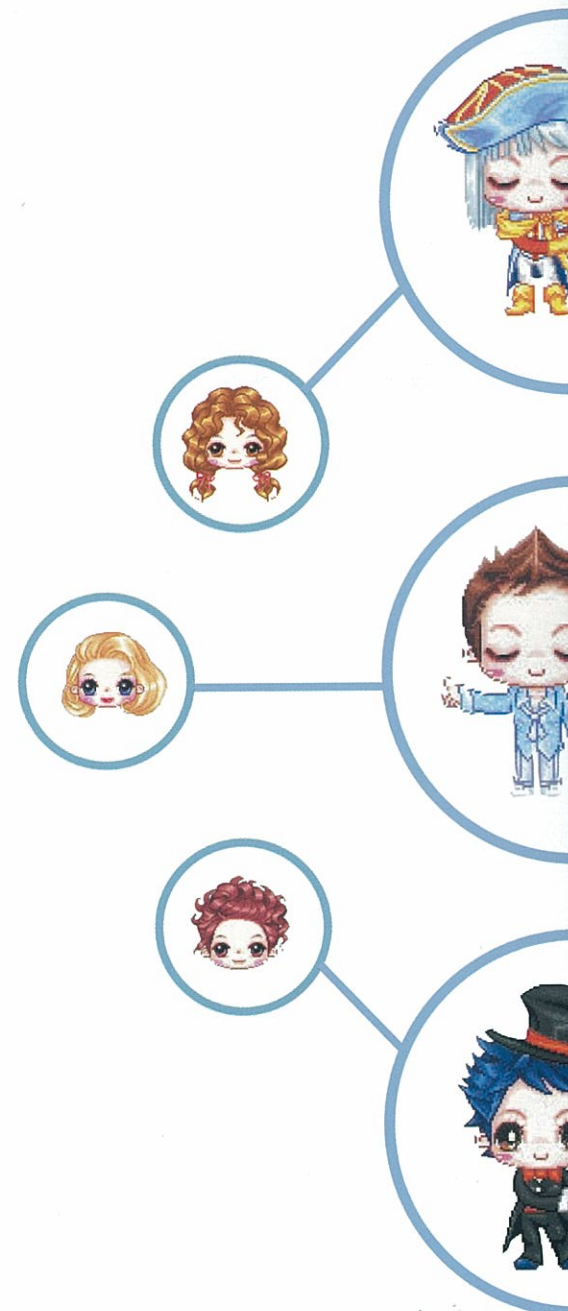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게임을 운영하는 아바타캐릭터의 감정이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바타캐릭터는 사람의 분신으로서 더욱 역할을 충실하며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Judith S. Donath, MIT Media Lab, "Identity and Deception in the Virtual Community"
- Sherry Turkle, Sociology of Science at MIT, "Life on the Screen"
- James Bolter & Richard Grusi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Remediation"

▶ 인터넷 사이트

- www.hangame.com
- www.allcharater.com
- www.sayclub.com
- www.netmarble.com
- www.skylove.com



해외 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사업 보고

‘보고서 내용일부 발췌’

1. 해외 선진축제 연수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충남 도내 각 시·군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으로 다양한 테마의 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음
- 특히, 주5일제 실시로 현대인들의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의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축제가 지역의 사회/문화/관광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차별성을 높이고 개선·발전방안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함
- 관광 선진국인 이태리 및 스페인의 관광자원 개발현황 및 관광상품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충남 각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 및 상품구성 방향설정
- 방문국의 문화재, 예술, 민속 등 문화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충남 각 지역의 문화발전에 응용하도록 함
- 문화원 관계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 충남 각 지역의 문화교류 및 활성화 도모



2. 연수의 목적

- 해외의 유명축제 참관을 통해 축제의 성공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 모색
- 축제 담당자들의 기획력 및 축제운영에 관한 전문성 제고
- 관광선진국의 관광자원 개발방향 및 상품내용 분석, 벤치마킹
- 관광선진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응용

2. 연수의 방법

● 축제별 연수과제

관찰 항목	세부 분석내용
홍보 및 안내	○ 안내소 위치, 적정성 ○ 안내판 설치, 기재언어 ○ 홍보방법 ○ 주요 홍보내용
행사진행	○ 행사장 동선 ○ 무대배치의 적정성 ○ 오·폐수 처리방법 ○ 화장실 등 편의시설
축제 프로그램	○ 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차별성 ○ 프로그램의 주제 관련성 ○ 전통문양 활용도
쇼핑 및 음식	○ 특산물 판매 ○ 기념품 판매 ○ 음식점 위생 및 가격 ○ 외국인 이용 편리성
주민참여	○ 행사일정 준수 ○ 축제개선 의지 ○ 지역주민 호응도 ○ 유관기관 협조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 외국인 안내 ○ 통역 도우미 ○ 외국어 안내판 ○ 외국인 방문객 수

관찰항목	세부 분석내용
숙박 및 연계관광	○연계관광의 편리성, 상품화 ○숙박시설 수용태세 ○숙박요금 ○숙박시설 위치
기타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축제의 발전 가능성 ○축제의 세계화 정도

- 방문지 관광자원 분석
 - 관광자원의 종류
 - 관광자원의 보존·보호 정책
 -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방법
 -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 사례
 - 방문지 관광자원의 특징

- 방문국(방문지)의 문화분석
 - 방문국(방문지) 문화의 특성
 - 방문국(방문지)의 문화정책
 - 무형문화재의 관광상품화 방법
 - 예술작품의 관광 매력성 제고노력 및 방안
 - 문화재의 관광매력성 제고노력 및 방안
 - 민속의 관광매력성 제고노력 및 방안
 - 전통의 계승 발전 사례
 - 음식의 관광상품화 정도
 - 관광기념품 등 쇼핑문화 발전정도



4. 연수기간 및 일정

- 연수기간 : 2006. 7. 4 - 2006. 7. 12 (8박9일)
- 연수지역 : 스페인(산페르민 축제), 이탈리아

5. 연수단 구성

- 연수단장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 지도교수 : 건양대 관광학과 지진호 교수, 충청대 관광학부 민양기 교수
- 연수단원 : 도내문화원장, 도·시·군 문화 및 축제 담당공무원
- 연수단 분임조 편성

분담	1팀 담당교수 : 지진호		2팀 담당교수 : 민양기	
	1조	2조	3조	4조
	이태리 관광자원	이태리 문화	산페르민 축제	스페인 문화 및 관광자원
연구조성	신상찬 (서산원장)	윤병배 (대천원장)	박노을 (온양원장)	정우영 (태안원장)
사진촬영	전용택 (홍성원장)	윤준웅 (부여원장)	정재욱 (공주원장)	유성열 (서천원장)
자료수집	권연옥 (천안원장) 김세경 (계룡시청) 이상설 (보령시청)	송용삼 (성환원장) 심의수 (당진군청)	정정희 (당진원장) 최성규 (충남도청) 차준필 (아산시청)	우제풍 (예산부원장) 김순기 (태안군청) 박기홍 (서천군청)
기록	정재권 (청양원장)	김호택 (금산원장)	임영이 (조치원원장) 홍정희 (연기군청)	최영환 (아우내부원장)
연수단장	박웅진(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진호(건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민양기(충청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총무	이 준 창(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사무처장)			

산페르민축제와 이탈리아 문화를 보고..

박웅진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SPAIN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각 지역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열리고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의 축제를 가봐도 내용은 비슷하다. 현재 충청도에 80여개의 축제를 포함하여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축제공화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제는 축제도 축소 또는 폐지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진행형에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기획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6년 해외문화 탐방 및 우수축제연구 사업은 지역축제 담당자들의 기획력이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축제 성공에 있어 문화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해외 우수축제로 널리 알려진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 참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광선진국을 탐방하며 관광 개발 방향이나 상품내용을 분석하고 관광선진국의 문화적 이해를 통해 도내 지역문화 발전에 응용하고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가 주관하여 도내 문화원장과 축제 담당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연수단을 구성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그 느낌 만큼이나 축제에 대한 인상은 강하였다. 스페인 중심 마드리드에서도 7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며 광활한 평야와 올리브 농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스페인의 북동부에 위치한 팜플로나(Pamplona)였다. 축제의 역사는 수호성인 산페르민(San Fermin)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고, 기우제의 제물로 바쳐지는 장소로 소를 몰아가는 소몰이와 투우가 주행사이며 9일간 약 158개의 단위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종합축제이다. 약 50만명



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공식적으로 노숙이 허용된다고 한다. 연수단은 운이 좋게 도착하자마자 가장행렬의 시작부터 참관할 수 있었다. 어릴적 운동회가 있던 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집을 나섰을때의 그 설레는 기분이라 할까.....모든 주민과 관광객은 너나 할것없이 흰옷과 빨간 머플러를 머리에 목에 허리에 두르고 흥분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이었다. 환호와 박수 노래가 이어지고 남녀노소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혼동속에 질서와 같은 창조적 카오스(chaos)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모든 세계인이 어깨동무하며 몸과 정신이 하나되어 축제속으로 내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동화되어 버렸다. 온통 흰색과 빨간색으로 거리는 장관을 이루었고 가장행렬의 진수를 보는 듯하여 순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게 바로 축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를 떠올렸다. 뭔가 획일화되고 틀에 짜여진 듯한 답답함이 비교되었고 공식적인 행사를 포함하여 시장이나 축제위원장 등 공무원을 비롯한 어느누구의 장황한 인사도 연설도 또한 듣기위한 축제객의 의자 마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는 행사장 질서나 하드웨어 부분만을 담당해줄 뿐 모든 것은 주민의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진행이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의 인식과 동참의식이 성공적인 축제의 주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니아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전통 문화가 바탕이 된 시민 정신이 녹아있는 난장적 요소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 이탈리아 문화유적 탐방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여 긴 장화모양의 반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연수단은 이탈리아 로마, 피사, 플로렌스, 밀라노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나흘간에 걸쳐 탐방하였다. 연간 5,7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탈리아의 주요도시에서는 공해 억제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차량 도시 입장료를 징수하여 주요한 관광수입이 되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시대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는 곳마다 주요 문화유적지는 그들의 찬란한 역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전투 복장을 착용한 안내원의 모습이나 원형경기장 앞의 수백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 길은 인상적이다. 연수단은 이탈리아 플로렌스 시청을 방문하여 그곳 평의원의 설명을 듣고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플로렌스는 연간 25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그중에 70%가 외국인이며 540여개의 호텔은 1년전 이미 예약이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연간 15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일정표가 모든 숙박업소에 배치되어 1년 축제를 관광객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유적지에서 관광객 사고 발생 시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관광 정책의 세밀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는 역사와 환경 모두가 다르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느낀점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인물이나 전설, 설화의 스



토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관광과 접목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스토리와 영상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중요하고 독특한 사료를 적극 이용하고 발굴하는 작업은 각 문화원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다. 또한 연기없는 굴뚝, 관광산업에 인재양성이 시급하고 인프라 구축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관광 분야의 행정지원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연수 기회가 정례화되고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연수를 마치며 장시간 이동과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무사히 수행한 참가자와 해박한 관광지식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 준 건양대학교 지진호교수와 충청대 민양기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중해 문화도시 이탈리아를 둘러보고

권연옥 ● 천안문화원장



지중해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로마나 마드리드의 경우는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유적일 정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역사박물관임을 실감하였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2700년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어릴 적 역사수업시간에 배웠던 고대유적이며 미술사를 장식한 예술가며 명화의 장면으로 가장 잘 알려진 나라다. 우리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오늘날 고대의 흔적과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 이는 한해 8백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장 큰 밀천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유산과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로마는 걷기에도 힘들만큼 후덥지근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고대 로마시대의 조각품들과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술 작품들, 그리고 시스티나 소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및 '천지창조' 등을 관람하고 돌아 나오니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베드로성당이 위용을 드러낸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국에 온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웅장한 내부공간에 압도되고 찬란한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의 예술작품에 또 다시 압도당한다. 정상에 있는 십자가까지 포함하면 무려 1백 36.5미터나 된다고 하니 어림하여 45층 빌딩에 맞먹는다 할 수 있다. 이어 들른 곳이 로마제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사적으로 꼽히는 원형경기장인 콜

로세움.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으로 순교시켰다고 전해지는 콜로세움은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 단 8년만에 완공했다니 당시 공사현장의 조직체계는 물론 시공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술한 지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버텼다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았나 싶다. 최근 고고학자들과 건축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토질로 이뤄진 인공호수의 바닥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

파리 개선문의 모델이 되었다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콜로세움 옆으로 홀리듯 바라보고 해신 트리톤의 얼굴이 석판에 새겨져 있는 진실의 입과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포로로마노를 바라보며 선진문화의 화려한 건축 양식과 유서 깊은 로마 체험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겨본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로마는 명화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멋스런 낭만과 고전적 분위기, 세계를 선도하는 유행과 예술적 공예의 산실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매치기나 집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도시' 나 '지붕 없는 박물관' 이니 하는 말이 그저 붙여진 말이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의 수도라면 피렌체는 '예술의 수도'로 불리고 있다. '꽃의 도시'란 뜻의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유명한 예술가들의 고향이다. 유달리 많은 문학과 미술인을 배출했고 적잖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활동했다.

우선 미켈란젤로·레오나르도 다 빈치·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3대 천재를 꼽을 수 있다. 또 문학가인 단테와 조반니 보카치오·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당시 가장들의 이름을 들라면 한이 없을 정도다.

로마를 출발해 피렌체까지는 버스로 4시간 이상 걸렸다. 로마시대 무솔리니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 건설했다는 이탈리아 남북을 잇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를 달려 피렌체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기에 일행은 바로 숙소로 향했다.

피렌체가 낳은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기념해 이름을 붙였다는 미켈란젤로 언덕. 우리는 이곳에서 유럽 최고의 풍광이라는 피렌체 도시 전경을 눈에 담았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피렌체 중심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두오모 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1296년부터 건립에 착수한지 140년만에 완공했다는 이 성당은 1백 미터에 이르는 돔을 아무런 기둥 없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건축가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30대의 혈기 왕성했던 미켈란젤로와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만났던 장소로 더 유명하다고 한껏 자랑하는 안내인의 말을 뒤로한 채 단테 생가로 향했다.

두오모성당 바로 인근에 단테의 숨결이 자리하고 있었다. 르네상스가 단테로부터 시작됐다고

할만큼 중세와 근세의 분수령을 이루는 대 문호 '단테'의 생가는 아주 좁다란 골목길에 그 이름 값에 미치지 못해 보였다. 르네상스의 대표작 '신곡'을 남긴 단테 탄생 6백주년을 기념해 새로 지은 지 벌써 1백년이 됐다고 하나 어느 시설에 견줘 볼 때 너무 허름한데다 초라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결국 피렌체를 밟고서야 비로소 왜 르네상스가 여기서 시작됐고, 그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 물론 피렌체에는 걸출한 예술가와 문학인이 유독 많았던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의 분위기가 르네상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정치·경제·문화적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메디치家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를 통해 살펴본 문화 체험은 잔잔한 감동과 움트는 새순의 미지를 향한 희망 같았다. 로마의 구석 구석과 피렌체의 서정적인 도시 이미지, 묵직한 중세 유럽을 보여주는 밀라노의 골목을 누비던 발걸음은 정말 오랜동안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 될 것이다. 가슴 한 구석에 자리한 뿌듯함과 살며시 드러나는 또 다른 문화에 대한 강렬한 충동은 미래를 위한 욕심일까? 준비한 만큼 보았고 아는 만큼 보았던 열흘간의 크고 작은 문화충격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산페르민 축제 관전기 (觀戰記)

김호택 ● 금산문화원장

지역의 축제를 담당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강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한다는 것은 흔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 것이고, 게다가 그 모임이 외국의 축제를 견학 하면서 지도교수들의 현장지도와 강의를 동반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에서는 박웅진지회장의 적극적인 자세에 힘입어 각 지역의 문화원장들과 최성규 충남도 문화관광과장을 필두로 한 충남도 각 지자체의 축제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를 관전(觀戰, 지역마다 치러내는 각종 축제가 거의 전쟁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도교수로 건양대학 관광과의 지진호교수를, 그리고 여행안내자로 충청대학의 민양기교수를 모시고 관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호사(豪奢)에 가까운 복이였고,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금전과 시간이라고 하는 투자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9일간이었다.

산페르민축제를 본 뒤 잠깐 가진 좌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한국의 실정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세계 2위의 관광객을 맞고 있는 관광선진국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그것도 '세계적인 축제' 중 하나인 이 축제에서 우리가 당장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마치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찬 다음에야 밖으로 넘치듯이 이런 저런 지식과 많은 생각이라고 하는 소위 '내공(內功)'이 쌓여야만 하기 때문에, 당장 하나를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그 자리에서 써먹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너무 성급한 요구라고 하겠다.

이번 연수로 지엽적으로는 지피지기(知彼知己)하는 의미의 성과도 있었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도 조금은 배양된 것 같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행 중에 나는 강의와 대화들에서 얻은 지식과 일행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친밀감이 앞으로 지역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축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전국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충남의 축제를 담당하는 각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술밥을 먹으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충청남도 전체가 '미래지향적이고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1)실제 체험하는 공부와 (2)이를 뒷받침해줄 이론적인 배경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3)

구성원 각자가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 세가지가 이번 연수의 성과였다고 하겠다.

■ 산페르민 축제

산페르민축제는 피레네산맥 기슭의 스페인 북부지방에 있는 인구 20만 가량의 팜플로나(Pamplona)시에서 8일간 벌어지는 일명 '소몰이축제'로 잘 알려진 지역축제로서, 한 산촌(山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역사성과 역동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이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투우'를 소재로 하면서도 칼과 피가 연상되는 잔인함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웃음'과 '흥(興)'이 넘치는 축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역발상'에 가까운 축제의 주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유명한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10년간 직접 참여했고, 그의 대표작 'The sun also rises'의 무대로 산페르민축제를 등장시켜 더욱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선 가장 부러웠던 것은 참가자 모두가 한가지 복장, 즉 흰색의 상하복에 빨간 모자, 머플러, 혹은 허리띠로 액센트를 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관중들의 통일성과 참여에 대한 열성이었다.

팜플로나시에 도착하면서 바로 길거리에 하얀 옷에 빨간 허리띠와 머플러를 한 사람들이 온통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다못해 화장품가게 쇼윈도우의 마네킨까지도 목에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고 초콜렛 가게에는 손님도 주인도 모두 빨간색이다. 이 복장의 유니폼화(化)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축제의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홍보해서 방문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세계 각지에서 관중들이 '알아서' 그리고 '기꺼이' 참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리아우 리아우"라고 불리는 거인인형의 행진이 있었는데, 이 행진에 그야말로 유모차 탄 아기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가하고 있었고, 솜방망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마구(아프지는 않게 생겼다)'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구경꾼이 아닌' 축제의 '참여자'가 되라는 격려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벤치마킹할만한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방문객들이 하나같이 알아서 흥겨워하고, 스스로 들뜬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최측은 그야말로 '물꼬 터주는 일'만 하면 그만이었다.

50만명의 관광객이 모였다고 하는 이 축제에서 정작 주행사인 소몰이는 작은 골목길에서 이루어지는데다가 안전을 생각한 '2층의 2층 바리케이트' 때문에 소뿔조차 구경할 수가 없었고, 단지 뛰는 사람의 머리와 구경꾼들의 뒤통수를 봤다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는데 아마도 소몰이를 제대로 구경한 관중은 3천명을 절대로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거리를 꽉 메운 수많은 군중들이 주로 젊은이들이고, 쓰레기가 쌓여가는 와중에 일부 작은 사고도 있기는 했지만 밤새 술먹고 떠돌고 난장치는 중에서 스스로 흥겹고 행복해지는 모습이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축제는 마치 신사 복입고 축구경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축제에 관한 한 우리의 일천한 역사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흥내내기식의 축제는 장래성을 보장받기 힘들고 조금 투박하고 조금 촌스럽더라도 우리 고유의 주제를 실천하는 축제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산페르민 소몰이축제에서 예정된 프로그램은 소몰이뿐이라고 하는데, 아예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리플렛 자체가 없었다. 다른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은 장소만 제공해주면 아무나 와서 공연하고 관객들이 모여든다고 하니, 주최측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참으로 편한 축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흥을 돋우지 않아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좋아하고, 기분이 좋으니 술 한잔에 쉽게 감정이 고조되어주니 명석만 깔아 놓으면 그냥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정리〉

우선 이 흥겨운 축제에 몰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겠고, 이 몰입이라고 하는 '흥(興)' 타령이 된장국을 먹어야만 나오고, 양식 먹고는 나오지 않는 것이라서인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이유에 따른 심리적 불안함이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축제에도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주민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축제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만이 살아남고 성공하는 지역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결국 사람들이 축제에서 원하는 것은 '카타르시스' 일 것이고, 질서유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흥이 지나쳐 광란의 축제가 될지라도, 축제의 문이 닫히고 흥분의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축제도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여야만 세월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장 금산인삼축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1)축제 고유의 색깔과 그에 맞는 복장을 개발해서 참가자들에게 참여도를 높이고 관중이 모두 하나된 마음을 갖게 만들어보아야 하겠고, (2)밤에 벌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축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는 데에는 '밤'이 주는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해야 하겠고, (3)1년에 한가지씩이라도 좋으니까 지역의 축제를 기념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에 좋은 디자인의 기념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이 되겠다. 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4)길거리행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흥에 겨워 스스로 참여하며 즐기는 행렬로 만들 방법을 강구

하고자 한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진행하는 주최측과 고장의 주민들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진행하는 '동원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스스로 그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족(蛇足)을 붙인다면 축제를 통한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산페르민축제가 우리의 실정과는 다른 먼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었고' '세계적인 축제'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금산인삼축제도 '세계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를 다녀와서...

송용삼 ● 성환문화원장

7월4일 : 암스텔담에 도착하니 밤11시가 되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보니 밤2시가 넘었다.

7월5일 : 9시30분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투우장에 도착하였으나 투우는 하지 않았다. 마드리드는 1492년부터 스페인으로 통합되었으며 콜롬브스로 인하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나라로 이사벨여왕때 무역이 형성 되었다고 한다. 축제는 3월부터 시작하여 6월~7월에는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직접 투우시합을 보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투우장은 아랍양식으로 24,000명의 관중을 수용하고 기우제를 위해서 투우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투우장을 나와 버스로 2시간만에 톨레도에 도착했다. 톨레도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지역이었다. 톨레도시는 낮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 졌으며 웅장하고 아담하였다. 톨레도 성당은 4대성당의 하나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명동성당과 같은 성당이라고 한다. 고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웅장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톨레도는 세계유산 도시로 지정될만한 성이라고 나 역시 생각했다. 언덕을 올라가 성을 내려다보니 아름다운성과 경관에 누구나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6일 : 다음날 팜플로나로 이동하는데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루하기 한이 없었다. 들판에는 평지로서 호밀 밭과 올리브나무와 텅텅 빈 들녘이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논과 과수원으로 둘러 쌓인 것과 같았다. 일행은 서로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었으나 이 시간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소개 시간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모두가 문화원과 관계가 있어서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오후4시에 시가지에 도착하니 상하의를 하얀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길가에 많은 인파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허리는 빨간띠를 두르고 목에는 빨간 머플러를 하고 다녔다. 오늘이 마침 소몰이 축제 전야제라고 한다. 흰옷과 빨간띠는 정열과 피라하며 거리퍼레이드는 동원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즐기고 있었다. 나 역시 인파들과 같이 휩싸여 들뜬 기분으로 즐기고 흥이났다.

7월7일 : 아침6시에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몰이 축제를 보려고 축제장으로 출발했다. 8시부터 한다고 하여 8시가 안되어 도착하여 보니 인파가 많이 모여든 관계로 직접적으로 소몰이를 하고

뛰는 것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6마리의 소와 하얀 옷을 입고 빨간색 스카프를 허리에 두른 참가자들의 인파는 장관이었다. 우리 일행도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다녔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이었다.

7월8일 : 일행은 바티칸 박물관으로 출발하였다. 역대 로마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 미켈란젤로의 벽화 장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높은 천장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난다. 성베드로 성당에 도착하니 웅장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크양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높이 132m의 거대한 돔은 참 인상적이었다. 로마 네로황제때 순교한 그리스도 12제자 중 성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카톨릭의 총본산이며 유럽역사의 산실이었다.

시스티나성당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600년이 다되었어도 건물과 작품들은 변화가 없었다.

콜로세움 : 내부는 둥근원형으로 관중석과 격투장으로 이루어져있었다. 많이 훼손되어 있으나 옛 로마의 전성기를 볼 수 있었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계단식으로 어느 곳에서나 서서 앉아서 관람을 할수 있었던 것이 옛날의 로마가 정말 부럽기도 했다.

트레비분수는 대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분수는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분수로 옆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은 여러 가지 색깔과 품질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먹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오전에 두오모지오토 종탑을 답사했다. 화려함과 장엄함에서 어느성당에 뒤지지 않는 대단한 성당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1296년에 공사하여 170년만에 완공되었다하니 어찌 말로 표현할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건물이었다. 대리석으로 이어 만든 성당은 완전 대리석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고딕양식으로 되어 있었다.

단테의 생가 플리렌시청에서 시청직원의 영접을 받고 년 5700만명의 방문객이 연간 시에 다녀간다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인구는 65만명 천안인구보다 10만명이 많은 인구인데 천안에도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다녀가는지 의구심이 서지 않을 수 없다. 호텔은 540개의 호텔이 있는데 일년전에 예약된 상태이며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순으로 많은 방문객이 이탈리아를 찾는다 하니 우리나라도 경제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알게 되었고 순위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았을까 생각이 든다. 관광버스가 시내로 들어오면 230유로를 인원과 관계없이 지불하여 환경비용, 주차장등으로 쓰여지며 돈을 받고서 관광객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와 수입금은 문화재 관광은행에 예치하여 400억 정도 문화유적지에 쓰인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후에 밀라노에 도착하였다. 4시간 소요 두오모대성당에 도착하였다. 500년 이상된 건축으로서 웅장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로 유명하여 세계 패션을 주름잡

고 있다하고 오페라의 고장으로 세계에서 오페라 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든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투숙하여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서로 얘기를 나누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 플로렌스 시청 방문회의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연수 결과보고서

신상찬 ● 서산문화원장

1. 건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평소에 바티칸 성당이나 박물관, 콜로세움 등 건물은 텔레비전이나 사진을 통해서 익히 보아 오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육중한 돌을 어떻게 저와 같이 정교하게 조각했나 하는 것과 벽돌처럼 쌓아 올리면서 접착제는 무엇을 썼을까 하는 것 등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풀어진 것이다. 우선 돌은 “까라라”라는 대리석광산에서 캐오는 것인데 채취당시는 손으로 만지면 자국이 남을 만큼 물러서 조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굳을 대로 굳은 돌에 끌을 대고 망치로 때리고 쳐서 조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바위를 조각을 한 것이 마치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갯 처낸 떡을 주무르듯이 자유자재로

모양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섬세하고 아름답기는 우리나라의 석조물과 비교할 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은 화강암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는데 사진만으로는 어떻게 저 높이까지 쌓았을까 의문이었다. 이것은 아교와 조개껍질, 그리고 옹회암을 섞어서 풀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콜로세움의 무너진 곳의 갯 변에는 이 풀로 쌓았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모래처럼 보이는 것이 옹회석 가루로 보이는데 만져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우중충하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흑 벽을 쌓다가 중단이 되어 1년만 지나면 벽 따로 길에 발랐던 시멘트 따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재시공해도 전에 발랐던 부분과는 접합이 안 되어 크랙이가고 갈라지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하찮은 원리로 쌓은 건축물은 오래가도 자연 붕괴를 볼 수 없으며 한 건물을 몇 백년간을 증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니 신기한 일이다. 아교 옹회석의 힘이 크다고 느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전돌을 아교와 찹쌀밥을 이겨서 쌓았다는 말을 들었다. 찹쌀은 농민을 희생시키면 구할 수 있었겠지만 아교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구했을까 의문이었었는데 여기서도 부딪힌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시원하게 듣지 못했다.

이 내용은 안내자의 해설임으로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의문이나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2. 시민생활과 유적 보호

주택가 골목은 비좁고 우중충하며 일률적으로 고색이 창연하고 화려하거나 예쁘게 꾸민 집은 찾아 볼 수 없다. 집 앞에 자가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노상에 주차할 공간하나 없다. 문화재 보호도 좋지만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그래도 외부활동은 명랑하고 쾌활하다. 전체적으로 “로마의 휴일” 등 영화에서 보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광을 어렵게 하는 조치가 많다. 우선 버스에 도시입장료를 징수하고 공중화장실이 없으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래도 관광객이 몰려 바티칸에 들어갈 때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중요지점에서는 동행을 잃어버릴 정도로 붐볐다. 유적 보호라는 명목아래 관광객 유치보다는 편의주의적인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오는 사람들의 의식도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해미읍성은 6만평인데 관광버스 10대만 와도 딱 차서 질서를 못 잡는다. 이때 다른 일행이 왔을 때 입장을 1시간 지연 시키면 조용히 기다릴 것인가. 우리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한국축제와 유럽축제의 비교

유성열 ● 서천문화원장



한국축제와 유럽축제와의 구조적 차이점을 보면, 한국축제는 시간성에 관한 유럽 축제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한국 축제 놀이의 근본은 태양숭배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이 달이다. 그래서인지 유럽축제들이 겨울-봄에 집중되어 개최되는 반면, 한국축제들은 봄, 여름, 가을의 절기마다 일년 내내 개최된다. 다시 말해 유럽축제에 내재된 시간성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불이 강조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민속, 풍습, 축제에서는 불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월대보름 사이에 주로 행해지는 불놀이는 봄맞이 차원의 불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의 봄기운을 깨우고 대지를 정화하는 역할과 함께 생산력 향상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가 있다. 또한 초파일의 연등불행사도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여기에 특이한점은 강에 연등 띄우기 같이 불과 물이 함께 쓰인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편을 갈라 행하는 놀이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축제에서는 특히 대보름의 겨울놀이가 중요하며 여기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이 줄다리기 같은 겨루기이다. 한국축제와 놀이 모두 농경문화의 탓인지 달의 절기를 따르고 있는데 달은 만물이 낳은 대지의 어머니 여신으로 간주되며, 풍요의 상징이 있다. 정화적 차원의 속죄의식과 순환적 질서를 안착시키고 풍요를 기원하는 유럽식의 불 이미지와는 다른 한국식 혹은 동양식의 불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축제의 원형적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축제는 무엇보다 놀이중심이다. 그런데 놀이들이 차전놀이, 농기싸움 등 기본요소로 편을 갈라 행하는 놀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겨루기 놀이의 성행은 음과 양의 대결을 설정한 결기로 자연물을 음양원리로 이해하고 즐긴다. 그리고 한국축제는 신과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 놀이에서 줄을 만들 때의 제작과정과 만든 후 시험을 하기전의 보호할 때 수많은 금기들을 통해 이미 짙이라는 자연적 성질을 떠나 신성이 깃든 신성한 사물로 여겨진다. 줄다리기에 좀 더 살펴보면 줄다리기는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식들을 통해 풍요로운 수확, 생명력을 기원하는 제의라고 한다. 한국인들의 놀이문화는 유럽축제에서 불을 지피고, 그 힘을 빌려 자연적 에너지를 증대 시키고자하는 욕망의 다른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럽축제를 포함해 세계의 거의 모든 축제놀이들이 풍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이 있으나, 우리

들만의 고유한 집단 무의식이 있다.

네 번째 차이점으로는 유럽축제와 한국축제에서 거대한 크기(거인성)라는 의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퍼레이드에서 거인성이 많이 형상화 되어 나타내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축제에는 표면적으로 거인성이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은 것 같다. 축제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축제와 유럽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보면, 축제를 통해 번성과 풍요, 집단간의 연대성을 기원하고자하는 마음은 세계의 축제 어디서나 같은 것이다. 유럽축제는 질서의 위기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하여 정화의식 순환질서의 재확립 그리고 유토피아적 풍요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 될 수 있겠다. 유럽축제의 강력한 불의 힘은 자연적인 차원을 넘어 초자연적인 세계의 경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물질과 인간이 세속에서 신성으로의 전이의 기회가 사라진 현재, 단지 힘만을 부각시키는 전략된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비해 겨루기적인 요소와 불과 불의 결합된 이미지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나타난 한국축제의 집단적 무의식구조는 진보주의적 발전사관보다 초자연적 힘과의 일치를 통해 승화되는 자아의 발견이 선호된다. 사실 음력을 사용하는 우리는 태양력과 음력간의 차이로 인한 순환적 질서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혼란의 모방과 극복을 배보하는 유럽보다 물질의 세계에 깃든 신성을 찾아내어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승화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집단의 한층 고조된 연대감을 이끌어내어 공동체의 자아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중시한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남유럽에 위치한 이탈리아를 다녀오다

윤병배 ● 대천문화원장



ITALY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반도국가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면이 지중해로 둘러싸여 지형적인 면에서 가장 유럽적인 자연과 문화를 지닌 곳이다. 19세기 중엽 가리발디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과 이에 맞서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통일이 필요성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로서 불과 1세기 밖에 안되는 경험보다도 로마교회의 권위 밑에서 1,000년 이상이나 살아온 이탈리아인이 많은 것이 현실로 본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은 사실이며 우리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오

늘날 고대의 흔적과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루며 2차 대전 뒤에는 자동차공업, 패션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로 역사적 유산과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로마는 오늘날 세계인의 발자취로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장 큰 밑천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가톨릭 세계의 성지 바티칸시국

바티칸은 로마 시내에 있는 세계 최초의 독립국이다. 교황을 원수로 하는 이 작은 독립국이 가톨릭의 총본산으로서 전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고대 로마시대의 조각품들과 미술작품들을 관광하면서 역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각하니 느낌만으로 족한 정신문화의 위대성 즉 서양문명의 모든 문화적 예술적 측면을 상징하고 있어 베드로성당의 위용을 드러내어 감탄한 바 있다.

따라서 그 당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오랜 역사 속에서 완공한 성당과 박물관은 그 당시 공사현장의 지휘감독은 물론 시공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화려한 건축양식과 유서 깊은 로마체험을 의미 있게 새겨보았다.

■ 로마유적답사

유네스코 1호로 지정된 고대로마의 투기장 콜로세움(4층 건물)을 올라가 보면 로마인의 도시 건설은 우선 공공광장을 만든 것이 뛰어나고 시내 여기저기에 고대의 유적이 남아있어서 먼 곳에서나 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통일기념관 바로 옆의 로마시청이 있는 언덕을 올라가보기도 하고 사랑의 샘물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설이 정착되어 있고 또한 샘물은 기원전에 물을 끌어 올려 지금은 이 물이 나보나 광장의 분수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전설의 입(얼굴에 손을 넣어 운수를 본다) 등을 돌아보다.

그리고 피사의 사탑과 두오모의 성당은 12, 13세기 건축의 본보기로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는 탑도 관광하면서 느끼기를 작은 면적의 로마는 멋진 낭만과 고전적 분위기를 세계를 선도하는 유행과 예술적 공예의 산실이라는 도시형태를 오늘날까지 오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볼거리가 풍부하여 세계인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 피렌체 관광

피렌체는 15세기의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기념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상장으로 훌륭한 작가들이 피렌체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을 쌓았으며 훌륭한 미술가들의 그림과 조각품은 피렌체를 세계최고의 예술도시로 탄생시켰다고 한다. 피렌체는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로소 활

기를 띄기 시작되었고 한때는 권력세력의 귀족에게 넘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 그 당시 유럽의 문화와 지성을 선도한 적도 있고 부유한 후원자 도움으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 덕분에 도시의 거리, 교회, 궁전마다 세계 최고의 르네상스 작품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 후 피렌체는 1865~1871까지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로도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두오모 대성당, 지오토 종탑, 시뇨리아 광장, 미켈란젤로 언덕 등 관광을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유럽최고의 피렌체도시 전경을 눈에 담으면서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의 수도라면 피렌체는 예술의 수도로 연상할 수 있을 만큼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많은 문학과 미술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한 모습이 역력했다.

■ 이탈리아의 간판도시 밀라노 관광

밀라노는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지이며 정치의 중심지이자 관광도시인 로마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고 안내원이 소개했다. 고층건물이 뻗뻗이 들어선 도시며 아무리 근대적인 공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역시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도시이다. 거리에서는 중후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뭉치뭉치 해도 두오모 성당 지붕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수많은 첨탑이 있어 웅장한 건물에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한 멋을 더해 주는 것 같았다.

대표적으로 오페라의 메카스칼라극장, 두오모 성당, 스포츠체스코 성 등이 압도해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밀라노라고 하면 파리에 이어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로 이름나있다고 안내원이 전했다. 그리하여 나는 유행이 생활의 유행으로 발전된 도시라고 느끼기도 했다. 끝으로 지중해의 문화도시 이탈리아 문화체험은 대표적으로 로마는 그 자체가 신화의 창조자이며 거대한 미술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열기를 갖고 찬란하게 빛나는 활동적인 도시이며 피렌체 도시라든지 밀라노 도시 등 문화예술에 대한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칩니다.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를 보려고 ...

윤준웅 ● 부여문화원장

산페르민 축제(매년 7월 6일~14일까지 거행)는 스페인의 국가적 축제답게 자국민들의 단결된 자발적 참가 모습과 이웃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축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 일행은 축제 전날인 7월 5일 오후 4시경 현지 팜플로나 시에 도착하여 축제 분위기를 파

악하고 내일 본 축제가 오전 8시부터 있다기에 현장만 보고 일단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지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호텔을 나와 버스에서 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1시간을 달려 6시 30분경 축제 현장에 도착했다. 막상 어렵사리 현장에 왔지만 소몰이가 지나간다는 도로 양쪽에 이미 수많은 인파로 뒤범벅이 되어 몸을 마음 놓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 혼잡이었다. 우리 일행은 이리 저리 틈새를 찾았지만 도저히 뚫고 들어갈 틈새는 전혀 찾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결국 소몰이 구경꾼 뒤통수만 구경하고 양쪽 고층건물 베란다에 빼꼭히 매달린 인파만 구경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나름대로 이 나라 축제의 현장을 보고 느낌을 몇 자 적어 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산페르민 축제가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어제 우리 일행이 축제 도시에 도착했을 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축제 전통복장인 흰색 상하 복에 붉은 허리띠와 마후라를 목에 두른 사람들로 온통 시내 거리가 웅성이고 특히 축제 현장 부근에 도착하니 각종 악기행렬과 큰 인형을 뒤집어쓰고 가장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지럽게 널 부러져 있는 휴지며 쓰레기와 술에 취한 젊은이들의 자유 분명한 모습과 정원이나 거리 길가에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축제기간 만은 거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노숙도 허용된다는 축제 도시의 현상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사뭇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어떤 축제에 온 시민이 폭 빠져들어 혼연일체가 되어 흥을 돋우며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 이유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오랫동안 면면히 이어온 불교의 바탕에 지금은 기독교가 갑자기 왕성해 지면서 종교간의 견해 차이로 이견이 속출되는 현상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에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페인은 90% 이상이 단일종교로 구성 되었다니 종교적으로 갈등 요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대부분이 전통민속문화축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전통민속축제를 보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시각에서 다른 편견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과연 어떤 지방에 축제가 이루어지면 견해 차이로 참가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종교적인 차원을 완벽하게 뛰어 넘는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의 단결된 축제 문화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질서하게 각 지방에서 전통축제를 무시하고 각종 산업 축제가 난무하는 지방화 시대에 좀 더 차원 높은 후세에 까지 오랫동안 물려줘가며 거행할 전통문화 축제 개발에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연수를 다녀와서

전용택 ● 홍성문화원장

■ 장엄한 로마여!



저녁때가 되어서야 로마의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곧바로 호텔로 향하여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바티칸 박물관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줄기차게 3시간 30여분을 기다려서 바티칸으로 입장할 수 있었는데 바티칸은 연간 입장료 수입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대단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시장에는 이집트 문명의 유물들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석고상 및 초상조각들이 대단히 많았다. 바티칸 도시국가는 현재의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날마다 로마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성 베드로성당, 도서관 등은 매력적인 이태리의 관광 명소이다. 라파엘로의 그림이 걸려있는 라파엘로 방을 거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렸다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천장

(총면적 약 520㎡) 프레스코 작업을 교황 율리우스 2세와 계약날인 1508년 5월10일에 시작하였다고 한다. 천장 중앙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원죄그림을 시작한 1509년 말 미켈란젤로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틀이나 원형창 혹은 푸디 같은 부착적인 일을 시켰다. 1510년 프레스코 작업이 끝나고 1512년 11월1일에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는 모두 끝났다고 한다. 이러한 대단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금번 유럽문화 연수는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대한 바티칸을 뒤로하고 베드로성당 앞으로 갔는데 경찰들이 야하게 입은 여자와 반바지를 입은 남자들은 입장을 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경건하고 거룩한 성당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가 보다. 교황이 해마다 신년예배를 드리는 성당내부! 경건하고 거룩함을 함축 시켜놓은 곳이다. 베드로 성당의 본당 회중석은 바오르 5세 보르그 헤세의 명령에 의하여 1608년부터 12년간, 카를로 마테로라가 만들었다고 한다. 동 안쪽 모자이크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리라.”

본당입구에서 계단까지는 186.36m이다. 바실리카의 화려한 장식들은 베르니가 설계하고 감독하였다고 한다. 성당 내에는「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카라라」에서 나오는 대리석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성모마리아의 어깨 띠에 있는 글귀와 함께 그의 서명이 들어간 유일한 작품이라 한다. 고요와 아름다운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피에타」를 뒤로하고 우리들은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으로 발길을 돌렸다. 큰 경기장을 둘러보며 로마 제국의 건축술에 다시 한번 감탄사를 연발한다. 원형그대로 보존하여 옛 로마인의 정서를 그대로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이탈리아인의 문화수준은 세계의 관광객들을 매료하고 있었다. 트레비 분수, 로마시청, 독립기념관, 개선문 등등 규모의 웅장함에 찬사를 보내며 밀라노로 향하였다.

■ 밀라노의 풍경들

평균 36℃ 까지 되는 이탈리아의 무더운 여름날 오후 우리일행은 밀라노에 도착하였다. 밀라노에 오면 도시의 중심지인 「두오모광장」에 우뚝 솟은 두오모 성당의 거대하고 섬세하며, 화려함의 극치에 많은 사람들은 넋을 잃는다고 한다. 밀라노의 상징이며 배꼽에 해당된다는 DUOMO는 고딕건축의 대 걸작인 수백개의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있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에 의해서 완성된 두오모 내부! 어두컴컴한 높은 곳에 있는 스테인드글래스는 보는 이들의 찬사가 절로 나온다. 우리들은 잠시 목상의 시간을 보내고 유럽에서의 그리스도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해주는 두오모의 문을 나섰다.

밀라노의 거리는 《밀라노패션》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현대의 예술인 패션이다. 시내 곳곳에서는 패션잡지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특유의 활발한 태도로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술품을 낳고 예술가를 키우며, 패션의 도시로 변명하도록 밀라노를 지탱해주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한국 상인의 태도와는 달리 그들은 사려는 물건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태도에 좋은 느낌을 받았다.

레오나르도 조각상이 있는 정면 건물인 오페라 극장인 스카라 극장이 눈에 띄었다. 스카라 극장은 1778년 산타마리아 델라스카라 교회의 터에 세워졌으나 1943년 공습으로 파괴되고 지금의 극장은 1946년에 재건되었다고 한다. 문화원장들은 스카라 극장의 고상한 오페라 감상으로 더운 여행길의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공연은 6월 말로 끝이 나고 9월 중순경에나 문을 연다고 안내 되어 있었다.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스카라 극장의 외부만 슬쩍 훑쳐보는 아쉬움 속에 지금까지 8박9일 동안의 이번 문화연수를 치루면서 생각했다. 이탈리아는 긴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복원시키고 문화재를 계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술품을 후세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기세를 세계에 널리 펼치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문화재를 더욱 아끼고 보존하여 문화강국으로써 면모를 뽐내는 유럽인들! 그들의 차별화된 문화와 역사의식의 장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정우영 ● 전 태안문화원장

■ 스페인에서의 축제 견학

유럽 대륙의 서남쪽인 리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

그러나 처음으로 유럽을 찾아온 나로서는 이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수가 없을 수밖에 없

었다.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스페인은 유럽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로서 우리나라 보다는 국민소득도 50% 이상 높은 서방의 선진국이다. 1990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천4백 불에 불과할 때 스페인의 국민소득은 1만 불이 넘었음을 볼 수가 있다. 아울러 면적은 50만 4,782 m 로서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와 프랑스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5배가 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한없이 넓은 평야지역에 기후마저 지중해성기후 및 서안해양성 기후 등으로 따뜻하여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 올리브, 오렌지, 포도 등을 수출하고 있음과 아울러 수은, 철, 납, 구





리, 석탄, 등 여러 가지의 지하자원들도 풍부하여 천혜의 복 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3,915만 명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적게 살고 있으니 지평선을 바라보는 넓은 땅들이 한없이 부럽게만 느껴지는 나라다. 인종은 리베리아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페니키인 과 그리스인 또는 켈트인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97%가 넘는 대부분의 인구가 가톨릭을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BC 3세기 말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AD 6~8세기경에는 사라세인의 지배를 받게되는 등 식민지 생활도 경험하였지만 11세기이후 그리스도 교도들의 국토회복운동에 힘입어 카스티야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왕 페르난도 2세의 결혼에 의해 양왕국이 통합됨을 보이더니 1479년에 와서는 완전한 국토통일이 이룩된 나라라고 한다. 아울러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에게 선박을 지원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스페인 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직하고 신사적이며 도적이 없는 정신적인 세계 선진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투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그러한 이유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선진예술인 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믿었다. 그리하여 투우를 견학하고자 잔뜩 기대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투우는 겨울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프라도미술관” 과 “투우박물관” 등만을 견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말았다. 오후에 찾아간 곳은 “플레도광장에 있는 플레도 대성당이였다.

플레도 대성당은 1227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유럽 에서는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과 영국의 세인트폴 대성당 스페인의 세빌리아 대성당 등 4개 성당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와 같은 플레도 성당은 오랫동안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을 당하기도 하였다 하는데 그와 같은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각된 이슬람식 건축물과 조각예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이슬람 문화도 함께 관찰할 수가 있었으니 그들의 문화인식이나 역사인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다. 다음날에는 팜플로나로 이동하여 소몰이축제를 견학하고자 하였다. 유럽에 와서 처음으로 견학하는 축제

였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부터 시간을 재촉하여 찾아간 소몰이축제 현장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질서의식이나 국민성은 수준이하 이어서 실망스러웠다. 혹시 프랑스의 망풍 레몬축제도 그러한 수준은 아닐까? 서로가 자기만 보려고 높은 건물의 층층마다 창문에는 사람들이 가득 가득 얼굴을 내밀고 있었으며 옥상위에는 옥상위대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은 이해가될지 모르지만 도로 한가운데에 경계선으로 설치하여 놓은 목책선 마저도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 발 디딜 틈도 없음은 물론 얼굴하나 내밀 틈도 없는데 안에서 소몰이 행사의 경기요원들인 듯 한 사람들이 달려가기만 하여도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무어라 무엇인지 알수가 없음은 물론 축제장이 아니라 난장판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와 같이 질서의식이 엉망인데도 안내하는 사람이나 통제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도 많은 사람들 틈에 짐작처럼 끼어들어 구경을 하려고 하고있을때 젊은 청년 두 명이 청중들을 해집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나가기가 무섭게 우리 동료들 중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청중들을 해집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소매치기였던 것 같다. 도대체 선진지역 이라는 유럽 대륙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는 스페인에서 이와 같이 소매치기가 판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 아울러 스페인 정부나 주체 측에서는 관광인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닐까?

스페인 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선진국이라 자처한다면 질서의식이 선진적이어야 할 것임은 물론 국교가 가톨릭은 기독교 국가라면 더욱더 정직해야하고 국가에서는 질서유지에 행정력을 기울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치부를 드러내고 있음은 어찌된 일이며 그러면서도 플레도 대성당이나 세빌리아 대성당 과 같은 문화유산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나의 눈에 비쳐진 스페인의 국민성이나 도덕성은 도저히 선진국의 국민들 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후진국 형의 국민성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 이탈리아에서의 문화유산 견학

팜플로나에서 소몰이 축제를 견학한 다음 우리 일행은 마드리드 공항으로 이동하여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kl 1704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우리일행은 다시 kl 1609 항공기를 타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이동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찾아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가온 가이드는 매우 친절하였다. 아울러 친절하고 상세하게 소개하므로써 그동안에 스페인에서 쌓이게 되었던 피로가 풀리는 듯 마음에 들었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부터 바티칸 성당을 견학하게 되었다. 바티칸은 성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국가라고 하였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성베드로 성당을 세운 것이 기원이라 하는데

9세기 중엽에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공략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29년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바티칸의 면적은 0.44km² 이고 인구는 약 1,000명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로마 시내에 주재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에 물리는 관광수입은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하루에도 몇 만 명씩의 관광객이 물리는 바티칸 주변에 놀랍게도 이탈리아에서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화장실을 가려면 영업중인 bar나 다방의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한다. guide의 말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는 당신들보고 우리나라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신들이 필요해서 오는데 무슨 불평이시오” 라고 로마시장이 반박 했다고 하니 배짱관광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이탈리아 역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선진국으로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 弗을 초과하는 부유한 나라인데 이와 같이 높은 소득은 알고 보니 관광수입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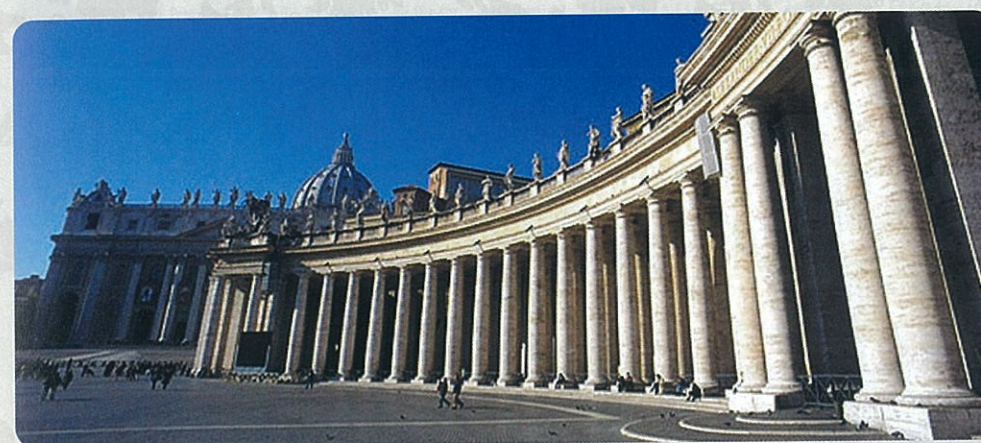
바티칸궁전 이외로 성베드로광장과 바티칸박물관, 스시티나 예배당 등도 관람할 수가 있었다. 오후에는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진실의입 등을 견학하였는데 과연 “로마제국의 유적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고대 로마의 역사를 상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중해식 기후 때문인지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은 매우 무덥고 숨이 벅찼다.

다음날은 두오모 성당과 지오토종탑 미켈란젤로 언덕 등을 관람하였으며 다음날은 피사의 사탑을 관람하고는 밀라노로 이동하여 두오모 성당과 스포르체스코성, 스칼라극장 등 시내관광을 끝으로 이탈리아 관광을 마치게 되었다.

■ 결론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유럽을 관광해 보았다. 그동안에 유럽에 대한 나의 생각은 책에서 공부한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이 선진국으로서 국민성이 우수함은 물론 신사적일 것으로 착각했었다. 그것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표본으로 삼으면서 유럽과 일본을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친절감과 애국심에 탄복하면서 유럽의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대하여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유럽을 여행하여 보고는 정말로 느낀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이웃나라인 일본만은 못할지 모르지만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유럽을 자세하게 알기위하여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 서구의 선진 지역이라 자처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독일 등을 견학하여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번의 해외연수의 목적은 축제

를 공부하기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태안문화원의 주관으로 자염축제를 주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축제들을 견학하면서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보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견학한 소몰이축제 등은 실망이 컸다. 물론 프랑스의 망풍 레몬축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가면)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영국 에딘버러의 프린지축제 등 유명한 축제들을 견학하지 않은 채 스페인의 소몰이 축제만을 보고 실망스럽다고 평하는 것은 단편적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의 연수에서 나는 축제보다 더 중요한 애국심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더욱 값지고 알차다고 생각된다.



스페인 이태리 여행기

정재권 ● 청양문화원장

문화원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느 사찰에 가면 국보가 몇점이고 보물이 몇점이며 어느파에 속하는 사찰이며 어느시대 어느분이 창건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아는 것이나 사람과 사람이 첫 인사를 나눈뒤에 성과본이 어디며 어느 할아버지(주로 정승이상의 벼슬을 지내신 분) 몇 대 손이며 등을 아는 보학(譜學)을 잘 안다고 문화를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사례의 내용이 문화가 아닌 것도 아니며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의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란 기록을 외우

고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며 어떤 기존틀(형식)을 지키려는 속박된 행위가 아니라 창조하며 즐기는 것이며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공유하려는 상식이요 내용이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이글에서 이런 얘기를 모두에 피력하는가? 나는 이번 여행에서 한가지도 건지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심정이 크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적에 교과서에서 보았거나 또는 다른책자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하고 있는 소위 명작품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궁이나 성앞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아름답다든가 부럽다든가 하는 찬탄보다는 종교의 혹독한 횡포와 힘있는 군주의 한없는 파렴치한 욕심을 상상하면서 못 피우는 담배를 옆에 분에게 얻어 피우며 한없이 쓸쓸한 생각으로 여행길을 걷고 있었다.

구태여 비싼돈 들여 갔다 왔으니 느낀점을 꼭 말한다면

○산 페르민 축제(소몰이 축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많은 관중들속에서 동양에서는 보기 민망한 젊은 남녀의 도에 지나친애정 표현을 보면서 아주 쓸쓸한 생각으로 시 한편의 초고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고치고 다듬으면 시가 될는지 모르겠다.

○제일 아름답다고 느낀 도시는 이태리의 피렌체였다.

피렌체는 이태리의 문화의 수도라고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도 있었거니와 신곡의 작가 단테의 생가가 그 도시에 비하면 초라한 채로 유지되고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었으며 말로만 듣던 피렌체의 스카라극장의 외형이라도 본 것은 감동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학생시절에 보았던 「로마의休日」에서 그리고리팩과 오드리헵번이 다니며 구경한 진실과 거짓말을 가려낸다는 「진실의입」과 동전을 던져 사랑을 이룬다는 트레비분수(일명 처녀의샘)와 그곳에서 구해 먹었던 三色 아이스크림의 상큼한 맛은 상상만으로 침이 고인다.

○스페인에 대한 느낌은 누가 다시 설명이나 해주면 모르되 나는 기억이 별로 없다. 땅이 척박하다는 것과 그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역사를 이루며 번영하고 있다 정도 밖.....,

○그리고 현지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중심이 되었던 암스테르담은 바다를 막아 바다보다 얕은 국토를 옥토로 만든 강인한 민족이며 한스라는 어린아이의 미담이 있는 것 밖에 아는게 없었으나 비행기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여행을 통하여 나는 두가지의 결론을 얻었을 뿐이다.

(1) 청양에서 매년 추진하는 「장승문화 축제」에 벤치마킹할 아이디어는 얻지 못했다. 다만 많은 분들과 오랜기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게임을 부리고 있지 말고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이 생겼을 뿐이며

(2) 너무크고 고급스런 문화유산 앞에서 나는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다.

끝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스페인은 해적이거나 산적같다고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이태리는 「감자탕 주인」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조상 뼈다귀 팔아서 관광수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감자탕 주인이 돼지 뼈다귀에 감자 넣어 팔아서 돈 버는 것과 같다는 사리에 잘 맞지 않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과 이태리 문화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는 문화가 아니고 회고적이며 침체된 문화란 생각도 들었다.



축제문화의 변화를 기대하며

정정희 ● 당진문화원장



여행은 고행이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잊고 기대와 설렘으로 거의 하루(23시간)를 이동해서 시작한 연수 일정에 몸과 정신이 적응하기에 힘들었지만, 이번의 연수가 뜻깊었고 값진 수학의 길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문화 실현을 고민하는, 충남도내 문화원장과 부원장, 그것을 뒷받침 해줄 행정,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 이 세 주체들이 선진화 된 축제의 현장에서 함께 보고, 느끼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현실에 우선 감사했다. 이 연수를 통해 충남 전체가 그야말로 비전을 담은 축제 문화

를 가꿔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어본다.

모든 산과 들이 스스로의 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편안함과 위로가 되듯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자랑할만한 문화가 있지만, 스페인의 축제는 릴레이경주를 하듯, 마드리드에 19개로 나뉘어있는 자치구 중 한곳에서 축제가 시작되면 다음에는 바로 옆의 자치구로 이어지면서 봄과 가을에는 어느곳에서라도 축제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야말로 축제로 일상을 보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네덜란드 공항에서 '뎀브란트'를 조우할 수 있는 것 또한 문화를 산업의 중심에 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네들의 안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산업화로 전성기를 누리던 도시의 공장들을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개조해서 문화명소로 바꾸는 일, 소설의 무대나 작가의 고향이, 많은 이들이 찾는 문화명소로 각광을 받는 일 등은 과거의 흔적들을 문화산업의 근거로 만들어 성공을 한 사례들로서,,, 상징이 되고 있는것은 문화를 산업의 중심에 놓고 정부나 지자체가 들이는 노력이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성과라고 본다. 그리고 해외 문화탐방에서 매년 느끼는 감상이지만 유형의 자원이든, 무형의 자원이든 본래의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치루고 있다는 점이나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를 실감할수있는 거리와 창작의 여정에서 예술혼을 태운, 그들의 조상에게 솔직히 경의를 표하면서 부러움도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스페인에서 거리를 달리는 한국산 차들을 보면서 반가움과 자긍심이 들기도 했지만 공업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한 편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축제의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충격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축제 이전에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라는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진정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축제공화국이라는 비난에 그 누구도 이의를 걸지 못하는 국내 축제의 실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온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도 지양해야 할 일이고, 지역문화원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주체적 입지를 갖지 못하는 것도 재정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열악한 운영비 지원구조에 능력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앞으로 지역축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서도 담당공무원과 지역문화원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전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수일정은 비교적 축제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구성된 만큼 우리 지역축제에 나름의 개발과 접근, 이런 화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외국의 풍물이나 유적을 좋은 구경거리를 만나서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한 심경이 있었다. 그것

은 내면에서 들리는 변화에 대한 요구이며 문화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결부된 숙제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연수 일정이 우리에게 당장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느끼는 감상은 우리문화의 현주소를 반성하게 되는 일이다. 함께 했던 행정가나 학자들,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똑 같은 과제를 안고 왔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연수에서 터득한 축제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열정이 참가하신 분들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감은 물론 충남전역을 정착시키는 힘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찬란하고 역동적 문화의 세계가 펼쳐지는 현장에 훌륭한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

"나침반이 바르르 떨며 불안스레 북쪽을 가리키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는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그런 불안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한 곳을 가리키며 요지부동일 때, 그것을 버린다고 했다.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에 안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여기에 인용한 변화 관리 전문가의 글처럼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그 체험을 생활에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열흘에 가까운 일정을 함께 했던 일행들과 알게 모르게 쌓은 우정과 호의는 앞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지진호 ● 전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플라멩고의 정열적인 춤과 투우장의 함성, 피카소의 게르니카, 가우디의 건축물, 톨레도 대성당, 강렬한 태양과 축제장의 열기. 이 모두가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연평균 강수량 700mm에 불과한 척박한 이 나라는 문화의 점이지대요, 관광대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일찌기 스페인은 BC 1,500년 경 로마제국의 식민지를 거쳐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西)고트족,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차례로 받다가 1492년 그라나다에서 이슬람세력을 이베리아반도에서 완전히 쫓아낸 뒤, 한때 무적함대 'Armada'가 유럽일대를 호령하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에 의해 무적함대가 패하면서부터 국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여, 2차대전 직전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으로 집권한 프랑코 총통 치세 36년 동안에는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럽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5년 프랑코 사후, 숨겨진 민주화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EU국가 중 가장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고도성장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에서 연간 약 5,600만 명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찾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접이시대라는 그들의 아픈 역사와 척박하기 그 지없는 이베리아 반도에 내리 쬐이는 태양 때문이다.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꼭 가 보아야 한다는 톨레도는 수도 바르셀로나에서 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시대의 요새로 개발되어 1083년 수도로 지정되었지만 국운이 상승하자 현재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천도한 뒤에는 4만 가량의 인구가 사는 천년고도(千年古都)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이곳에 있는 톨레도 대성당은 콜롬부스가 신대륙에서 가지고 들어온 금을 이용해 성당내부를 꾸며 놓아 화려했던 그들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이 대성당은 1227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494년에 완성되었으나 내부는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비잔틴과 고딕, 로마네스크 등 다양한 건축 기법이 총 망라된 독특한 건물로 잘 알려져 있다. 톨레도는 영광과 굴곡으로 이어진 스페인 역사와 문화의 상징인 셈이다.

스페인은 일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축제의 나라로도 유명하다. 축제를 모르고 스페인 문화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제가 많은 이 나라는 축제로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개 지역마다 성인(聖人) 혹은 성녀(聖女)를 모시는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발전한 이 축제들은 3월에 발렌시아의 라스 파자스(불꽃축제)로 시작하여, 11월 사라고사의 필란 축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축제는 뷰놀의 토마토 축제와 팜플로나의 산 페르민(소몰이)축제이다.

이 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팜플로나(Pamplona)시에서는 해마다 7월 6일이 되면 또 다른 의미의 향연이 펼쳐진다. 1591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마을 수호성인(守護聖人)인 산 페르민(San Fermin)을 추모하는 행사였으나 지금은 엔시어로(encierro)라는 소몰이 축제로 잘 알려져 있다. 9일 동안 목장에서 투우장까지 하루 6마리의 소가 825m의 좁은 골목을 약 3분간 사람들과 함께 질주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인구 20만 명의 이곳에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다. 이 축제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소설가 헤밍웨이(Hemingway)가 10년간이나 이 축제의 소몰이 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뛰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The sun also rises)”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축제의 전야제에는 하얀 옷에 빨간 허리띠와 머플러를 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리아우 리아우”라고 불리는 거인 인형을 앞세운 행렬을 함께 하는데, 이때 주민들은 시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실정(失政)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 물세례를 퍼붓기도 한다. 이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솜방망이를 들고 시민과 관광객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마구 때리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누구든

지 “구경꾼”이 아닌 축제의 참가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스페인 사람들의 개방적인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산페르민 축제에는 예정된 프로그램은 소몰이 행사인 엔 시어로(encierro)뿐이다. 158개가 넘는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 등은 주축에서 장소만 제공해 줄 뿐, 누가 언제, 어떤 행사를 하든 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흥을 돋우지 않아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모두가 즐겁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제정신이 산 페르민을 유럽에서 유일하게 노숙을 허용하는 축제로 만든 것이다.

축제에는 스페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 있다. 그래서 축제는 곧 그들의 문화가 되고 있는 셈이다.

스페인의 문화와 축제

최영환 ●아우내문화원장

유럽에서 첫 날밤을 지낸 후, 우리시선에 와 닿는 돌래도 대성당의 웅장한 건축물, 현재의 최첨단 건축기법으로도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술작품 건축물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점을 보고 감탄과 탄성으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된 그곳에 가지 않고는 접하기 힘든 유명한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에는 외국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이 몇 점이나 소장되어 있는지 늦었지만 꼭 찾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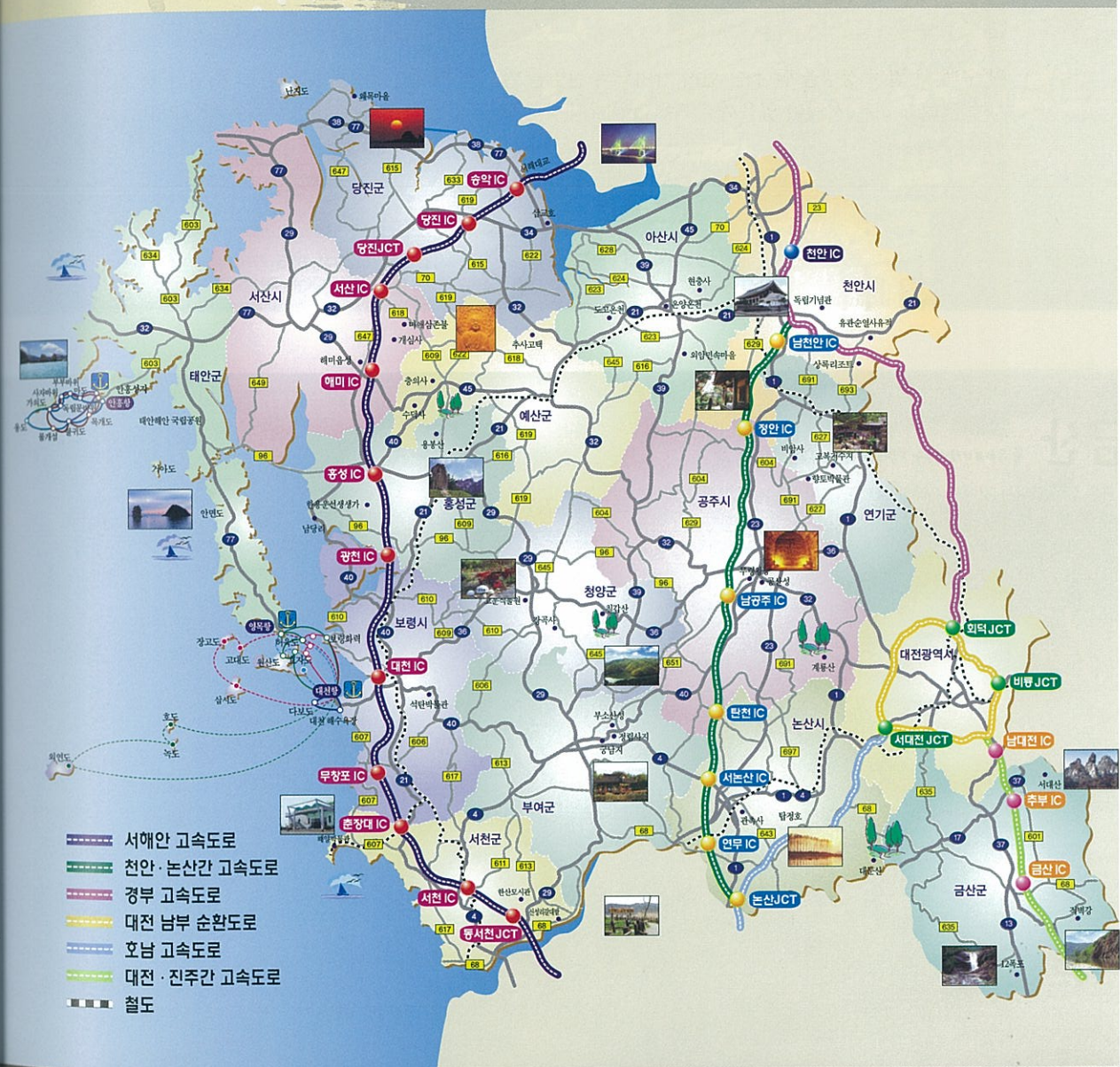
유럽방문 3일째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산 페르민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8시간 동안이나 스페인 고원지대를 달려 큰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소몰이 축제하루로 전 세계에 유명해진 팜플로나라는 도시에 입성했다. 20여분도 채 안걸리는 소몰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국적모르는 이들의 무릎틈새로 머리를 내밀고 보니, 소 몇 마리를 몰고 가는데 수천 명의 인파가 따라가며 즐기는 장면을 보고 저것이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축제의 결정판이구나 생각하니 의아함과 실망감이 교차한다. 전날 있었던 전야제에서 각종 가면과 악기를 불며 행진하는 과정에 남. 여. 노. 소를, 아니 국적을 가리지 않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의 독특하고 낭만적인 국민성, 서양이나 유럽인들만이 지닌 적극적이면서도 낙천적인 인간성이 사뭇 부럽기만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볼거리도 없는 20여분 그 장면을 보기위하여 전 시민이 먹고 마시고 뒹굴며 흥에 겨워하면서 즐기는 바로 그 장면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조성하면서 축제에 들떠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기위해 세계인들이 찾고 주목하는 산 페르민 소몰이 축제로 발전시킨 것 같다.

SPAIN

그 이면에는 스페인(팜플로나, 시민) 사람들의 낙천적인 국민성이 한몫하였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도 산 페르민 축제 못지 않은 소재를 가진 좋은 축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축제를 가보아도 축제에 스스로 참여 하기보다는 인기가수 몇 명 초청하여 축제부대행사로 치러지는 공연을 보기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관에서 후원(동원) 하지 않으면 관람객을 모으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소몰이 행사에 같이 뛰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백 대 일의 경쟁을 한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위험한 행사에 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니 아우내장터 3.1절 봉화제에서 봉화불을 들지 않으려고 행사 진행자와 실갱이 하는 주민들이 내 머리 속을 스친다. 저들의 축제를 그들과 다른 우리의 국민성과 우리의 문화에 접목시켜 우리도 세계적인 축제가 자리매김 하기에는 우리 한민족의 근본적인 경직성과 단일민족인 우리 조상의 근엄한 얼을 이어받은 우리로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방문국인 로마제국, 이번이 4번째 여행이지만 또 와보고 싶었던 나라이다. 이태리 한 국가의 유적이기 전에 전 세계인류의 문화유적의 보고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베드로 성당이나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 할때마다 이 어마 어마한 예술품같은 건물과 작품들을 잘 관리하여 세계인들이 가고픈 관광지 1위에 올라있는 로마를 가진 이태리 국민들을 부러워하면서 마지막 방문지인 피렌체로 이동한다. 이번 여행 어느 여행보다 문화원 종사자로서의 유익한 문화유적 탐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것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장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공주 64년동안 왕조를 지킨 산성.. 공산성

백제의 옛 궁성인 웅진성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대표적인 성곽이다. 성안에는 웅진도읍 시기로 추정되는 왕궁지, 금서루, 영은사 등과 조선시대 인조 대왕이 이괄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쌍수정 등이 남아있다.



공주시 산성동 tel: 041-856-7700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공주IC > 공산성(5분)

논산 비록보살의 미소가 머무는 곳.. 관촉사

관촉사에는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있으며 고려 목종 9년(1000)에 혜명스님에 의해 완공되었다. 매년 4월에는 입구 4Km의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등 주변경관이 빼어나다.



논산시 관촉동 반야산 tel: 041-730-322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서논산IC > 1번국도 > 논산 > 643번지방도 > 관촉사(15분)

금산 물 위에 비치는 저쪽의 물 그림자.. 적벽강

적벽은 산이 붉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밑으로 강이 흘러 적벽강이라 한다. 일설로는 중국 양자강 상류의 적벽강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한다.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강물에 투영되어 강이 더욱 붉게 빛난다.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tel: 041-750-2225(군청)
경부고속도로 비룡 분기점 > 남부순환도로 > 대전·진주간고속도로 > 금산IC > 37번국도 > 601번 지방도 > 적벽강(15분)

당진 해와 달이 머무는 소박한 곳.. 왜목마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 일몰 광경을 볼 수 있는 서해의 땅끝 마을이다. 해와 달이 잘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고, 마을 언저리 바다 위에는 작은 섬들과 고깃배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다.



당진군 석문면 교로 2리 tel: 041-350-3121(군청)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 38번 국도 > 석문방조제 > 왜목마을(30분)

보령

많은 바다와 산이 있는 개항의 조지 원산도

원산도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질과 원만한 경사로, 그리고 깨끗한 수질과 적당한 수인들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갯바위에 낚시를 드리우면 놀래미, 살감성돔 등을 낚을 수 있으며, 백사장을 조금만 헤쳐도 조개를 잡을 수 있다.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가족단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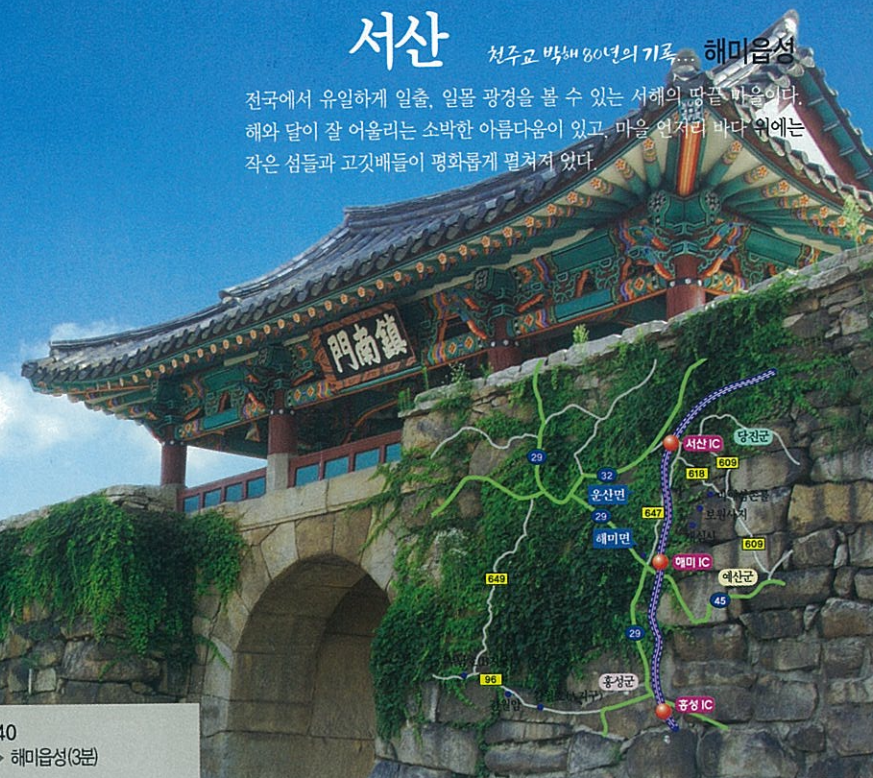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tel: 041-930-3618
서해안고속도로 ▶ 대천IC ▶ 36번 국도 ▶ 대천항 ▶ 원산도

서산

천주교 박해 80년의 기록 해미읍성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 일몰 광경을 볼 수 있는 서해의 땅끝 마을이다. 해와 달이 잘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고, 마을 언저리 바다 위에는 작은 섬들과 고깃배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다.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tel: 041-660-2540
서해안고속도로 ▶ 해미IC ▶ 29번 국도 ▶ 해미 ▶ 해미읍성(3분)

부여

단아한 백제의 석탑... 정림사지와 5층 석탑

정림사지는 전형적인 백제 절터로 이곳에는 국보 5호인 5층석탑과 고려시대 석불좌상이 남아있다. 5층석탑은 목조 양식을 계승한 걸작품으로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tel: 041-830-2523
천안-논산고속도로 ▶ 서해안IC ▶ 4번국도 ▶ 정림사지(15분)

서천

영희의 소리가 들리는 갈대밭... 신성리갈대밭

금강 하구 주변에 폭 200m, 길이 1km, 면적 6만여평의 갈대숲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먹이가 풍부해서 겨울철이면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어 장관을 이룬다. 최근에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 되었다.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tel: 041-950-4224 (군청)
서해안고속도로 ▶ 동서천IC ▶ 29번 국도 ▶ 613지방도 ▶ 신성리 갈대밭 (15분)

연기

유관순 열사의 흔적을 찾아서... 연기

비암사에는 다포계 건축물 극락보전과 삼층석탑이 있으며, 건축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중기에 장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적이 드물어 옛 산사의 분위기를 한껏 읊어줄 수 있다. 또한 800년 넘게 도량을 지켜온 커다란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다.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tel: 041-863-0230

천안고속도로 ▶ 정안IC ▶ 604번 지방도 ▶ 691번 지방도 ▶ 비암사(30분)

천안

유관순 열사의 흔적을 찾아서... 유관순생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1969년 추모각을 건립하고 생가지를 복원하였으며, 1972년부터 매년 10월12일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tel: 041-550-2532

서해안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목천IC ▶ 21번국도 ▶ 유관순생가(20분)

예산

소금기에 유물들은 복고의 유물지. 수덕사

수덕사는 국내 제일의 나트륨 온천인 덕산 온천지구와 이웃하면서 경관이 빼어나 호수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는 덕송산에 자리하고 있다. 국보 49호인 대웅전은 백제 개성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건물로 옆면의 장식적 요소가 아름답다. 또한 전립연대가 분명하여 한국 복조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송산 tel: 041-330-2557

서해안고속도로 ▶ 해미IC ▶ 45번 국도 ▶ 40번 국도 ▶ 수덕사(25분)

청양

최고의 맛을 느끼는 고가. 장곡사

장곡사는 남한강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보 68호 절조와 사예래좌상부석조 대좌, 국보 49호 비유불괘불탱 등 각종 국보급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하 대웅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tel: 041-942-6769

천안고속도로 ▶ 공주IC ▶ 36번국도 ▶ 645번지방도 ▶ 장곡사(45분)

태안

해안리척의 개성 넘치는 풍경...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와 태안반도 일대 120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형성된 30여개의 해수욕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해안국립공원이다. 공원내에는 수백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풍부한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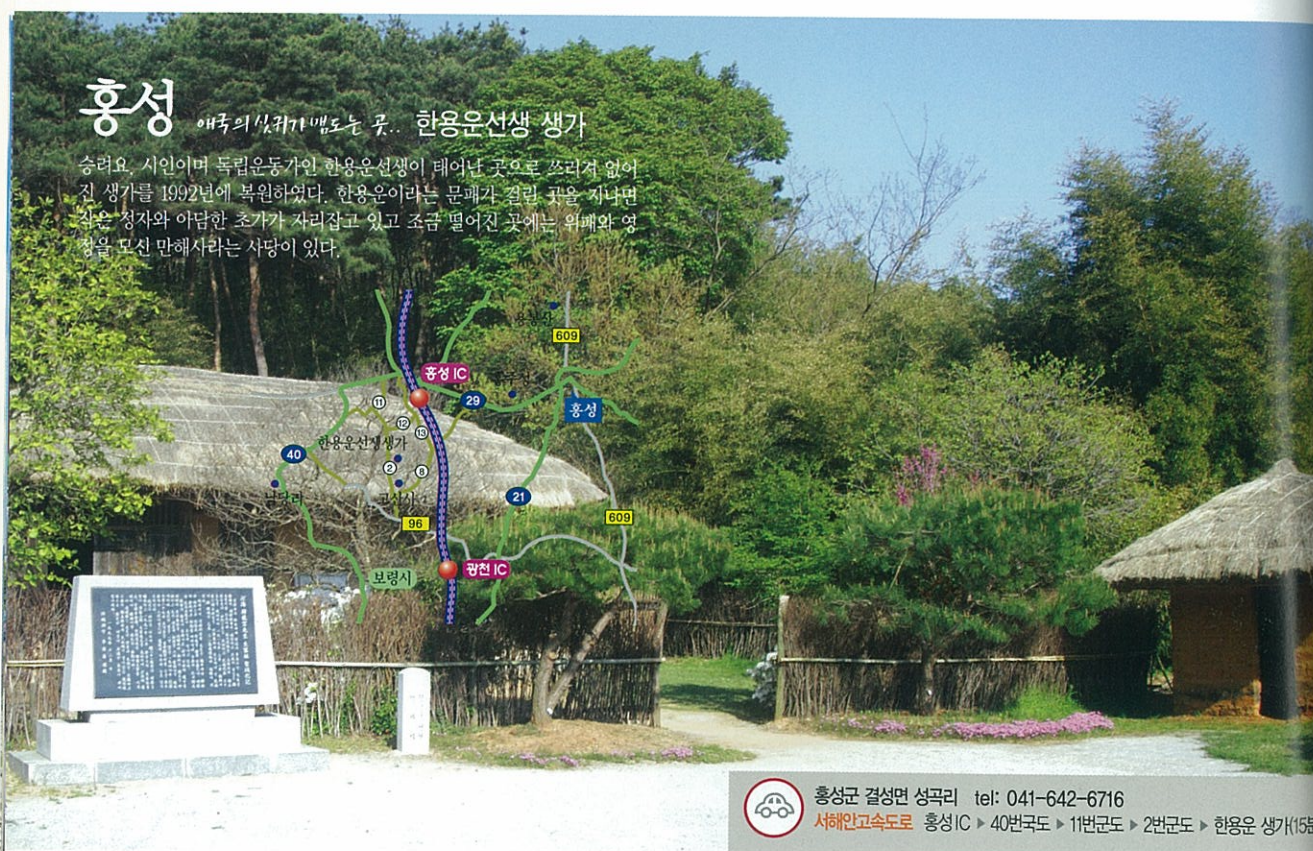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 안면도까지 tel: 041-670-2545 (군청)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 40번 국도 > 96번 지방도 > 태안반도

홍성

애국의식위가 애도하는 곳... 한용운선생 생가

승려요,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쓰러져 없어진 생가를 1992년에 복원하였다. 한용운이라는 문패가 걸린 곳을 지나면 작은 청자와 아담한 초가가 자리잡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위패와 영정을 모신 만해사라는 사당이 있다.



홍성군 결성면 상곡리 tel: 041-642-6716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 40번국도 > 11번군도 > 2번군도 > 한용운 생가(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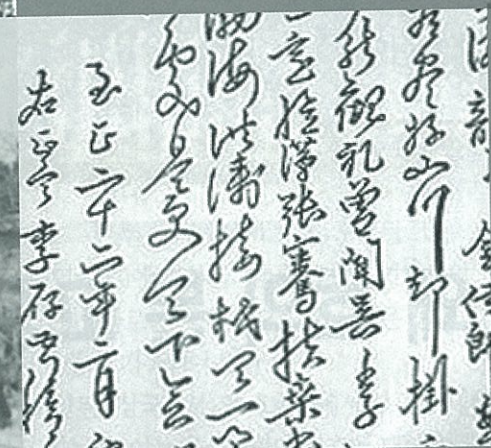
공주문화원

'문화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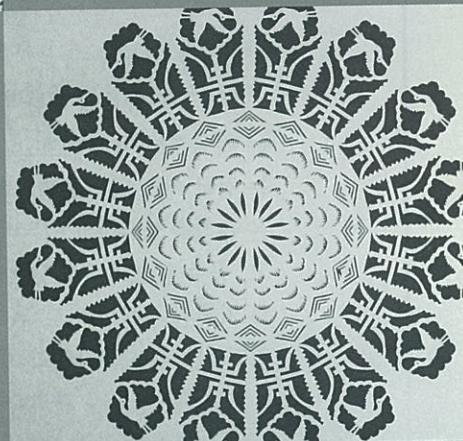
부여문화원 · 당진문화원

'충남의 인물'



홍성문화원

'충남의 민속'



금산문화원 · 청양문화원

'충남의 전설'



아우내문화원 · 태안문화원

'충남의 문화재'



공주가 왜 효의 본 고장인가?

정재욱 · 공주문화원장

우리고장 공주에 대한 수식어는 공주의 역사만큼이나 많은데 그 가운데 효의 본고장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충, 효, 열을 생활의 최고 덕목으로 여겨왔던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에 관련된 유적물들이 산재해 있다. 공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적의 양적 기준에 의하여 효의 본 고장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고, 공주를 효의 본고장으로 칭하는 것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에 최초의 효자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우리고장의 효자 향덕이기 때문인 것이다. 향덕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의 인물로 삼국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향덕은 웅천주 판적향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선이고 자는 반길인데 천품이 온순하고 선량하여 향리에서 그의 품행을 높이 칭찬하였다. 어머니는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았다. 향덕도 효성이 있고 공순하기로 당시에 유명하였다. 천보 14년 을미(755년, 신라 경덕왕14년)에 흉년이 들어 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계다가 유행병까지 덮치었는데, 향덕의 부모가 주리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또 등창이 나서 모두 죽기에 이르렀다. 향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지만 봉양을 할 거리가 없는지라 이에 자기의 불기살을 베어 먹이었다. 또 어머니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서 모두 무사하게 되었다. 그 고을 관리가 이일을 주에 보고하고 주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지시를 내려 벼 3백斛(1斛은 열말)와 집 한 채와 구분전 얼마를 주고 관리에게 명령하여 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곳을 이름하여 효자의 마을(孝家里)이라고 한다.



충·효·열은 전통시대의 중요한 유교덕목이었으므로, 역사서를 편찬할 때에는 충·효·열 인물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충·효·열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먼저 역사서들을 들 수가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윤리서 라든가, 국가의 포장정책에 따라 예조에서 작성한 등록류 자료는 구체적이다. 그런가하면 포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고문서 자료라든가 지역별로 삼강인물의 행적을 이어가려는 의지 때문에 지리지·읍지의 인물조의 기록도 매우 많다.

다음으로는 역사서의 충·효·열 기록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전 사서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1145년(인종23)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기전체의 역사서로 이종 효와 관련되는 기록은 열전에서 보인다. 효행인물로는 향덕, 성각, 효녀 지은 등과 열녀로 신라 진평왕 때의 설씨녀, 백제 개로와 때의 도미처 등이 기록되어 있다.

1281년(충렬왕 7) 경에 편찬된 『삼국유사』의 효선편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적인 선행에 대한 미담 5항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에 대한 기록이 독립된 편목으로 다루어진 효시이다. 효선편의 내용은 진정사의 효도와 선행, 대성이 두세상 부모에게 효도하다, 향득사지가 다리살을 베어 아버지를 공양하다. [향득사지는 삼국사기의 향덕과 동일인이다.] 손순이 아이를 묻다, 가난한 딸이 어머니를 봉양하다 등으로 향득의 경우를 제외하면 효사를 불교관념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것들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역사서인 『고려사』에서는 공주의 충효열 인물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이종 충남사람으로 윤구생이 있는데, 그는 금주(지금의 금산군)사람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충·효·열을 대단히 중시 하였지만, 초기의 『조선왕조실록』이 충·효·열 인물과 그 행적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는 반면, 중·후기에 이르면, 충신이나 효자보다 열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시대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공주목의 효행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2)의 기사이다. 이후 순종 실록까지의 공주의 충·효·열 관련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참고문헌 공주의 충·효·열 유적) 이 내용에서 나타난 것을 요약해보면 대략 두 가지가 될 것 같다. 하나는 효를 행하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효를 행

한자에게는 나라에서도 상을 내리고 비를 세워 후세에까지 그 행적을 기리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 기준이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충·효·열의 역사와 유적, 그리고『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공주목의 효행 인물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충·효·열 포장의 역사와 유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동양사회에서 충·효·열은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성리학의 발전과정과 함께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로서 그 의미를 부가시켰다.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었고, 특히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하였던 조선시기에는 전 기간 동안 충·효·열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물론 이들 충·효·열 삼강의 행적은 하나의 종합된 덕목이었으므로 가치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배경에 다른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어느 시대에는 충이 더 강조되고, 어느 시대에는 효가 더 강조되는 등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또 충·효·열을 행한 인물에 대한 포장 정책 역시 시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행적이 뛰어나고 향중의 공론이 형성된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서 포장을 하고 이에 따른 특혜를 주었다. 충·효·열 행적이 인정된 자는 포장을 청하여 공론을 모아 대개 사람들이 연명으로 천장을 수령·관찰사·어사 등에게 올렸으며, 직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조에서는 현지조사를 하여 포장을 결정하였는데, 포장의 종류에는 정문, 상직, 복호, 상물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효행 행적에 대해 이루어진 포장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인 정려는 오늘날에도 곳곳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니면서 많이 남아있다. 또 정려 유적(정려·정문·정려비) 이외에도 관련 고문서, 비석 및 기타 삼강의 행적과 관련된 유물·유적 등은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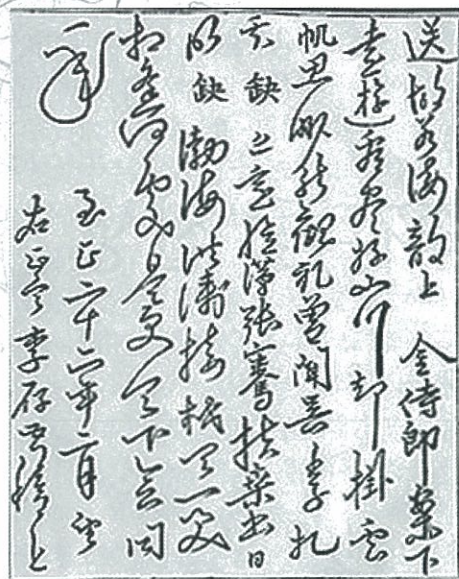
정려는 목조건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락하면 후손들에 의해 중·개수 되거나 새로 건립된다. 따라서 현존 정려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려가 건립된 배경, 건립과정, 정려의 건립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충·효·열 관련문헌으로는 사서, 지리지의 인물조, 윤리서, 예조에 작성한 등록류 등이 있다.

고려충신 석탄 이존오(李存吾) 선생

이존오 선생은 경주 이씨요, 자는 순경(順卿)이며, 호는 석탄(石灘)으로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태어나셨다. 선생은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성격이 곧고 지조가 강한 분으로 어려서부터 배움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가정은 가난하여 고학으로 학문을 닦았다. 나이 열 살 때에는 “큰 들이 다 함몰하였으나 높은 산은 홀로 의연하였다(大野皆爲沒 高山獨不降)”라는 한시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한다.

가장 젊은 나이로 당시 유명한 학자 정몽주·박상충·이승인·정도전·김구용·김제안 선생들과 친교가 두텁고 학문이 장하여 여러 차례 강론을 거듭하여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학문이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다.



■ 이존오 선생의 「명기필보」 중

선생은 1360년(공민왕 9) 나이 19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수원서기(水原書記)를 거쳐 사헌(史憲)에 보직되고 승진하여 감찰규정에 오르며 서기 1366년(공민왕 15) 25세 때에는 사간원 우정언(右正言)에 올랐다. 그러나 공민왕은 옥천사(玉川寺)에 사는 중 신돈(辛旽)을 가장 높은 벼슬에 기용하였다. 신돈은 왕에게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고 한 사람의 독재로 정치를 제멋대로 행하였다.

그 후 갖은 학정을 다하여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는 점차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돈의 횡포와 세도에 눌려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선생만이 일신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여겨 죽음을 각오하고 인척인 좌사의대부 정추(鄭樞)라는 사람과 더불어 신돈은 요물이라 나라를 망치니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므로 당장 파면하고 그의 일당을 모조리 엄중히 처단하라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를 받아 본 공민왕은 대노하고 상소문을 다 보지도 않은 채 불사르고 선생을 극형에 처하려고 즉시 문책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왕이 불려서 대궐에 들어가 보니 신돈은 여전히 신하로서 예절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왕과 같이 평상에 앉아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선생은 의분심에 노기가 충천하여 왕 앞에서 당당하게 “늙은 중이 어찌 이와 같이 무례한가!”하고 호통을 쳤다. 신돈은 그 순간 놀라 황망하여 저도 모르게 평상에서 내려 앉았다 한다.

이에 화가 난 왕은 곧 선생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존오의 성난 눈을 두려워 한다”고 하였다. 왕은 선생을 극형에 처하려 하였으나 목은 이색 선생께서 극구 변론하기를 “고려를 창건한지 500년 사이에 일찍이 한 사람의 간관을 죽인 일은 없다. 만일 죽이면 왕의 악평이 나라 안에 퍼지리라” 하였다. 왕은 할 수 없이 선생을 장사감무(長沙監務)라는 벼슬에 좌천시켰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선생을 진정 나라의 정언(正言)이라 칭송하였다. 그 후 선생은 왕이 끝까지 신돈을 파면하지 않고, 여전히 정계에서 포악한 정치를 계속하여 나라는 날로 쇠퇴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유리방황하니 심히 개탄한 나머지 용감하게 퇴관하고 지금의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 내려와 은거생활을 하였다.

선생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신돈의 포악한 정치를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마침내 원통하고 울분하여 병이 났다. 병은 날로 더욱 심하여 위독한데, 하루는 선생이

문기를 “근자에도 신돈의 세력은 여전하냐?” 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선생은 노기 띤 어조로 “신돈이가 죽어야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다시 자리에 편안하게 눕기도 전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선생의 나이 31세인 1371년(공민왕 20) 5월 이었다.

그 후 나라에서는 선생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성균관 대사성을 추증하였고, 선생의 아들 이내(李來)가 열살이었을 때 공민왕이 친필로 “간신(諫臣)의 아들 안국(安國, 이내의 어릴 때 이름)”이라 크게 써서 장차직장(掌車直長)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한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석달만에 신돈은 갖은 음탕과 포악한 정치를 계속하고 나중에는 왕에게 반역하려 하다가 공민왕이 이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선생은 천하에 드문 수재로서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한 몸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싸우며 끝까지 절개를 지켰으니 몸은 가셨으나 이름은 천추에 빛나리니 후세의 귀감이 되기에 넉넉하다.

선생은 여주의 고산서원(孤山書院), 부여의 의열사(義烈寺), 무장의 충현사(忠顯祠), 공주의 공암서원(孔巖書院)에 모시어 고이 잠들어 있다.



의춘부원군충장공(宜春府院君忠壯公) 남이흥(南以興) 장군

충장공 남이흥 장군은 선조 9년(서기1576년) 7월 27일(양력9월10일),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고 부친은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의천부원군(宜川府院君) 유(瑜)이다.

공(公:충장공 남이흥장군 약자)은 어려서부터 그 기질(氣質)이 뛰어나고 체력이 장대(壯大) 하였으며 보통 아이들과 달리 비범(非凡)함을 보였다.

6세쯤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높은 곳에 홀로 앉아 좌지우지 지휘(指揮)하고 영도(領導)하였으며 만일 그들 가운데 잘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크게 꾸짖고 벌하며 습복(習伏:엎드려 굴복시킴)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공을 두려워하였기에 감히 거역하는 일이 없이 순종(順從)하였다.

여섯 살 때 외가(外家)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외종형과 몇몇 동리 아이들과 함께 우물가에 놀고 있는데 나이 열 살이나 되는 외종형(外從兄)이 잘못하여 우물 언덕에서 미끄러져 우물 속에

의춘부원군충장공(宜春府院君忠壯公)남이흥(南以興)장군



■ 남이흥 장군 영정

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때 나이 어린 공은 황급히 형의 소매자락을 잡고 두발을 축대 돌에 버티고 서서 큰소리로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험에서 구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판 아이들은 옆에서 웃어대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판서공 외조부(全州柳氏 병조판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특히 여겨 공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아이는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할 것이며, 또한 그 사람들의 으뜸이 되리라'고 하였다한다. 공이 15세에 이르러 문한가(文翰家)로 장가를 들어 태사서(太史書:사관들이 붓으로 쓴 역사)를 많이 읽었다. 그리하여 주위에서는 그의 큰 성공을 예측하였다.

1592년(선조25년) 왜정불칙(倭情不則:왜인들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하여 공은 홀로 근심을 많이 했다.

그 즈음 공은 한 필의 준마(駿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훈련시키지 못했으나, 오직 공만이 매일 밤마다 말을 타고 달리기를 익히면서 아울러 말을 단련시켰다. 말을 지키는 자가 그 말 기르기를 중지하라고 수차 애원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전쟁에서 긴요히 쓰일 말이라 하니, 모든 사람들

은 영문도 모르고 비웃기만 하였다.

그 해 여름 마침내 왜적이 침공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임금께서는 서행(西幸:의주) 파천(播遷:임금이 도성을 떠나 탄 곳으로 피란 함)하시게 되었으며, 관군은 쳐들어온 왜적과 임진강에서 싸웠으나, 패하여 흩어지고 말았는데 공의 부친 의천군도 부평부사로서 그 전투에 참가하였을 때, 그 말(駿馬)의 힘을 입어 위험에서 빠져 나왔다고 한다.

이 때 공의 어머니는 의천군을 따라 부평부(富平府)에 계시었는데, 본가의 세전가장(世傳家將)을 가지고 올 수 없음을 탄식하는 것을 공이 듣고, 공이 갖고 올 것을 어머니께 청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근심되어 말하기를 "서울은 지금 왜란의 침입 때문에 난리 통이라, 인심이 흉흉하니 어찌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며, 설사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한들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을까 보냐" 하고 극구 만류하였다. 그러나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 "자식된 도리로써 어찌 여기에 머물러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자가 무사히 다녀 올 것인즉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며 긴장한 하인 수명을 거느리고 한양성내(현 서울로 들어갔다. 한양 집에 이르러 분주히 그 물건들을 챙겨 돌아오는데 길은 피난민으로 메워져 있었다. 이때 강변으로부터 무뢰배(도적들) 수 백 명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정신없이 피난길을 재촉하는 피난민(避難民)들의 짐을 약탈(掠奪)했다. 난민들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다. 이 광경을 본 공은 분기충천(憤氣冲天)하여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며 도적떼 중 선

등 선 놈들을 향해 화살을 연사하면서 우렁찬 큰 소리로 악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뒤따르는 도적 떼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도적 떼들은 크게 놀라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다.

공의 힘을 입어 험악한 지경에서 간신히 벗어난 피난민들은 공의 뒤를 놓칠세라 앞을 다투어 따라왔다.

이 때 공의 나이 17세 백면 소년이었으며, 그 같이 어린 나이에 수 백 명의 무뢰배(도적들)를 혼자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험지에서 구출하였으니 남다른 담력과 기개는 실로 출중(出衆)한 분이였다.

공이 23세때에 아버님 의춘부원군 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 하시어 거상(居喪) 하였으며, 26세에 상(喪)을 벗고 글읽기를 중단한 후 전망(全亡)하신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말달리기, 활쏘기 등의 무술을 연마하였다.

선조35년(서기1602년) 27세에 마침내 알성무과 한 후 28세 선전관검 비변사랑청에 등용.

29세 장연 현감으로 부임하여서는 전부터 내려오는 가혹한 정사를 뿌리뽑고 간교한 아전을 엄히 다스려 현민 들로 하여금 태평성세(泰平盛世)를 누리게 하였다. 이때 안문어사(按問御使)가 장계로서 이러한 사실을 왕께 알려 선조께서 친히 상을 내리셨다.

2세에 비변랑이 되고, 33세에 의주판관 (종5품)을 제수 받아 재임 중에는 3년 간에 걸쳐 전부터 쌓여있는 적폐를 깨끗이 제거하였으므로 변방의 인심이 일신(一新)되었다. 이때 이이첨(李爾瞻)이 부윤(府尹)으로 있으면서 공을 대우하기를 극진히 하였으며 후의로써 대접하였다. 그리고 그 곳을 떠날 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남 통판(通判) 부용천(赴龍川) 송별시

- 이이첨

「내 성품은 평범함이 많은데,
그대 재질을 유독 높이 뛰어났네.
성(成)을 지킴에는 대절(大節)을 함께 기약하였기로
부(府)를 나누는데는 번거로움을 덜었네.
후일을 기다려 서주(西州)가 감화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북쪽 오랑캐의 교만함을 근심하리오.
백성들의 뜻으로 도사(都事)를 사양하고
더 큰 벼슬을 꿈꾸었도다.
군사를 주둔한 것은 전략에 의하고
어진 이웃은 뛰어난 풍모를 우러러 보네.
떠나는 자리에서 몇 번이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별하는 회포는 술을 마셔도 씻을 길이 없구나.
암흑강물에 안개가 자욱하고,
용만(龍巒:의주에 있는 산)의 산 외 뿌리에는
월색(月色)만 가득하여라.
괴롭게 시를 읊조리는데 겸하여 병(病)이 드니,
긴 후파람이 도리어 무효하구나.
겨울 속에 비친 백발은 새롭기만 한데,
하늘가에서 검은 매자가 떨어지는구나.
봄 바람에 준마(駿馬)를 띠려서
옛 친구를 자주 찾아주소.

35세에 용천 군수(종4품) 제수 받고, 36세 직(職)에서 사임하였다. 이때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이 체찰사(體察使)로서 부(府)를 두고 덕망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무관을 수하(手下)에 모으고 있었는데 공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부령부사를 제수 받았다. 공은 이 곳에서 병기를 정리하여 갖추고, 군량을 비축하여 육진(六鎭) 중에서 부령(富寧)을 제일가는 부로 만들었다. 어사(御史)가 와서 실정을 검열하였는데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비되었음을 보고, 임금께 장계를 올려서,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로 승진하였다.

부령부사 재임시 치적(治績)에 공이 많았고 경계를 출몰하던 외적(外賊)들을 소탕한 공이 인정되어 다시 가선대부(종2품)에 올랐다. 이어 부총관검, 포도대장, 군기사제조를 제수 받았다.

40세에 공홍병마 절도사(충청병마절도사)를 제수 받았다. (공홍은 공주와 홍성, 실질적으로 충청도를 말함) 재임 중에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엄명을 내려 난폭한 행위를 막았으므로 영속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즈음 이이첨의 하인들이 그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양민들을 괴롭히는 등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속(吏屬)들도 이이첨의 세도에 놀려 감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였다. 공이 그 정황을 알게 됨에 가차 없이 그들을 붙들어 죄상이 악독한 놈을 엄히 다스려, 장살(杖殺)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니 지금까지 시달림을 받아 오던 양민들은 모두 다 쾌재를 불렀다. 이때 대사헌이 이이첨의 사주를 받아 임금께 탄론을 제기 하였으나 임금은 공의 치적이나 일의 경위를 충분히 참작하시어 문책함이 없이 다만 직위에서 물러나게만 하였다.

42세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진주목사를 제수 받았다. 재임시 축석루(矗石樓)를 중건하였는데 이를 축하하는 시문이 지금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의곡사는 북쪽 비봉산 가운뎃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버렸으므로 공은 산승 성간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복원토록 하였다. 진양지(晉陽誌)에 명관 남이흥은 정사를 맑고 엄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정충신(鄭忠信)의 북천록(北遷錄)에는 1618년 4월13일 남병사 이흥은 천리길에 전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북청에 유배

중인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을 문안케 하고 귀한 남쪽의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 오성(鰲城)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

44세 구성부사 겸 평안도 방어사를 제수 받았다.

본시 구성 땅은 토질이 척박하고, 백성이 드물게 살고 있었으며, 산적들이 들끓어 예사로 관고를 털어 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이 부임한 지 한달 만에 모든 정사가 안정되고 고을 백성들도 편히 살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1620년에 송덕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비문에는 미만일삭 은중백년(未滿一朔 恩重百年)이라 쓰여졌다. 그 뜻은 한 달이 채 되질 않아서 그 은혜는 백년 보다 무겁다는 뜻으로써 공의 치적이 단 시일 내에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났는가를 단적으로 표시해주는 산 증거라 하겠다.

45세에 평안도 방어사 겸 안주목사를 역임하고, 1622년 47세에 자헌대부(정2품)로 승진하였다.

1624년 인조2년 49세에 중군대장으로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인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 조정은 진무 1등공신 의춘군을 봉하고 승록대부(종1품)를 제수하였다.

1627년 인조5년에 3도 부원수겸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계실 때 후금(청국)의 3만6천 대군이 침공함에 정묘호란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안주성 싸움에서 3천여명의 군사로 혼신을 다하여 독전 분투하였지만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성안으로 많은 적을 끌어들이고 후약고에 점화하여 자폭으로 최후를 마쳤다. 그 날이 1627년 정묘 1월21일이고 충장공 연세 52세이니 역전의 원수로서 이렇듯 살신위국 함은 전사에 보기 드문 충절이라 하였다.

대보름

정월 15일 '상원일(上元日)' 또는 '대보름', '큰보름'이라고도 하며 설 명절 다음가는 명절로 치며 초하루부터 시작한 놀이와 의식이 이 날에 거의 끝난다. 대보름도 일년의 첫보름으로 그해의 풍흉과 신수의 길흉화복에 관한 민속이 대단히 많다.

1. 부럼 깨물기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럼' 즉 호도 잣, 은행, 생밤등 껍질이 단단한 과일이나 땅콩, 무등 껍질이 있는 땅속식물을 깨물면서 「올해 일년 열두 달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원한다.

대개 나이수로 깨물기도 하나 노인들은 이가 단단치 못하여 몇 개만 깨무는데, 첫 번 것을 깨물고 문을 열고 던지면서 "부럼이요"하기도 한다. 부럼을 깨무는 것은 종기 등 부스럼을 막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이고, 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 귀밝이술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술 한 잔씩 늘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술 한잔씩을 마시는데, 이 술을 귀밝이술이라 한다, 이 술은 데우지 않고 조금씩 다 마시는데, 이 술을 마시면 귀앓이를 하지 않고 일년동안 좋은 소식만 듣는다고 한다.

3. 묵은 나물먹기

지난 해에 말려두었던 무, 박나물, 호박나물, 버섯 등을 대보름날 무쳐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4. 복 엮

정월 보름날 아침에 복엮을 먹으면 공부가 엮가락처럼 늘어나듯 하고 세간이 엮가락처럼 늘어나듯이 재수대통하라 하여 보름날 아침에 복엮장수가 다닌다.



5. 더위 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웃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부른다. “왜 그러느냐?”고 대답하면 “네 더위 내 더위 먼디 더위” 또는 “내 더위 사가라”하고 더위를 파는데, 판 사람은 일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으나 산 사람은 그 사람 몫까지 더위를 먹는다는 것이다. 더위를 팔러 온 사람에게 “내 더위를 사가라”하고 먼저 더위를 팔기도 한다.

더위는 한번 팔면 되는 것이지만 익살맞는 개구쟁이들은 더위를 팔수록 좋다 하여 이집저집 찾아다니면서 더위를 팔고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보름날 아침이면 더위를 팔고 사는 친구들간에 농담과 웃음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가축들도 더위를 먹는다 해서 소나 돼지의 목에 원새끼를 꼬아서 걸어주어 예방도 하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가지는 더위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 동들게 만들어 목에 걸어주기도 한다.

6. 닭 우는 소리

정월 대보름날 꼭두 새벽에 농가에서는 첫닭 우는 소리를 듣고 점을 친다. 닭이 열 번 이상 울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7. 달맞이

대보름날 저녁 달맞이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뒷동산에 올라간다. 보름날 처음으로 달을 본 사람은 운수가 좋다고 하여 저마다 빨리 산으로 오르려 하니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햇불이 줄을 이어 화려한 풍경을 이룬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둥근 달이 솟아 오르면 사람들은 맑은 보름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빈다. 농부는 풍년들기를 빌고, 충각은 장가 들기를, 처녀는

시집가기를 빈다. 이와같이 정월 대보름달은 소원을 성취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조상들은 믿어 왔다.

8. 다리밟기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는 전통적인 민속 놀이로 답교라고도 한다. 이날 다리를 밟으면 일년간 다릿병이 없고, 열 두달의 액을 면한다고 한다.

9. 달집 태우기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기 전에 마을사람들이 짚을 가지고 동산에 올라가 조그만 집이나 다락을 만들어 놓았다가 달이 떠오를 때 불을 지른다. 피어 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고 불꽃이 피어오르면 신나게 농악을 치며 즐긴다. 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새해, 질병도 근심도 없는 밝은 새해를 맞는 의미를 가진 것이 달집 태우기이다.

10. 지신 밟기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동네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매귀, 걸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는 농악대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쌀이나 돈을 내놓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기도 한다.



닥실나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개터마을 앞에 권충민공순절유허비란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때 이곳에서 왜군을 맞아 싸우다가 순절한 금산군수 권충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석이다. 이 비석과 함께 권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지금부터 4백여년전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왜군이 쳐들어온다느니 쳐들어오지 않는다느니 하고 입씨름을 하다가 임진년을 맞이하였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풍신수길은 30만대군을 우리나라에 상륙시켰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왜군을 맞이한 우리나라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왜군들은 4월13일 부산포를 함락시키고 이어서 동래·밀양·문경·추풍령·청주를 차례를 짓밟고 물밀 듯이 서울로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러면서 추풍령을 넘은 왜군들은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영동에서 금산을 거쳐 전주방면으로 진군하려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전에 금산군수로 부임한 권충은 이를 알고 6백여명의 군사를 모아 왜군의 진로를 막기로 했다. 권충은 광주목사로 있는 임진왜란의 명장 권율 장군의 사촌형으로 나라의 위급함을 그저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임금이 의주로 피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대경실색하며 통곡을 하였다. 권충은 도내에 있는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혈검문을 보내어 이지시와 백광언 등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독같이 권공은 너무 많고 금산

은 너무 협착하니 부하 군사를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산과 전주지방을 방위하겠으니 권공은 후방에서 군량이나 관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권충은 이들의 의사를 뿌리치고 금산성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기로 했다. 권충은 6백명 밖에 되지 않은 군사지만 영동에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닥실나루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면 몇천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강기슭에 있는 저곡산에 진을 치기로 했다. 왜군은 권충의 예상대로 영동에서 금산 쪽으로 진군해오고 있었다. 권충은 군사들을 이끌고 금산에서 20리도 채 안 되는 저곡산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했다.

군사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두 사기가 드높았고 훈련이 잘되어서 그들은 능름한 모습으로 행군을 하였다. 이미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로 작정한 권충은 비장한 감회가 들었다. 군사들도 어찌면 이번 싸움이 자기들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쯤은 숙연한 것같았다. 군사들은 두 줄로 나란히 줄을 지어 씩씩하게 걸어갔다. 한참동안 이렇게 행군하는데 그때 웬 여자가 하나가 행군하는 부대앞을 가로질러가고 있었다. “웬 여자가 재수없게 부대 앞을 가로 질러가느냐?”

목숨을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들은 격분하여 모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들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 한창 긴장했던 군인들은 모두들 여자가 행군하는 부대앞을 지나갔으니 부대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권충이 그여자 앞으로 달려갔다.

“이 요망한 계집 같으니라구.....”

권충은 칼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하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여자는 삼베옷을 걸친보잘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여자는 분명히 처녀때 권충을 짝사랑하다가 자살을 했던 여자가 아가. 그여자는 목을 약간 숙이면서 “이 길은 군수님께서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충이 가는 길을 만류했다.

“뭐라구?”

권충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힘껏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여자는 간 곳이 없고 칼을 허공을 후려칠 뿐이었다. 권충은 뭔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군사를 몰고 저곡산에 가서진을 쳤다. 그리고 내일이면 왜적이 당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금강 상류에 가서 흙탕물을 흐르게 하도록 명령했다.

그것이 왜적들이 강물의 깊이를 몰라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했던대로 왜적들은 나룻터까지 와서 강물을 감히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웬 여자가 뽕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휘어잡고 유유히 강물을 얕음을 알고 별떼처럼 강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리고 권충이 진을 치고 있는 저곡산성을 무찔렀다. 그뿐만 아니라 왜적들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금산성까지 점령을 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간 여자는 바로 권충을 사모했던 여인의 현신으로 권충한테 다시 한번 배척을 받아 원수를 갚은 것이라 한다. 닥실나루를 바라보는 권충의 순절비는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 있다.



임바위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에 임바위란 바위가 있다. 이 임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이곳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살림이 넉넉한 편이 못되어서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이나 살을 에일 것같은 겨울이라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야 하고 아내는 날품을 팔아야 했다. 이래서 늘 고단한 몸이었지만 그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나란히 앉아서 저녁밥을 먹을때는 더없이 즐거웠다. 남편은 아내가 날품을 팔러 다니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런가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매일같이 그 험한 산에 오르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런 땀 아내는 자기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남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래서 아내는 실사이드 없이 몸을 날리며 뛰어 다닌다.

이 날도 남편은 지계를 지고 일어 섰다. 몸이 좀 불편했지만 이런 것쯤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이날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남편이 산에 오르는 것이 꺼림칙했다. 어젯밤 꿈이었다. 남편과 나란히 친정을 간다고 길을 나섰다. 얼마쯤 걸어가자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말이 나타나더니 남편을 등에 업고 달리는 것이었다.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남편을 불렀다.

남편도 아내를 보고 아타까와 했지만 검은 말은 아랑곳없이 남편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없이 울다가 지쳐서 꿈을 깨었다. 아내는 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여보, 오늘은 당신 표정이 무거운데 집에서 쉬셔유. 몸이 좋지 않을 때 일하면 더 안 좋아유.”

아내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은 이럴때 행복감 같은 것을 느꼈다.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를 쉬고 싶었지만 이런 아내를 위해서 사립문을 나섰다.

“오늘은 쉬시래도 그래유?”

“걱정말고 있어. 오늘은 그대신 일찍 돌아올테니 당신도 일찍 돌아오도록 해.”

남편은 산으로 올라갔다. 가까운 산은 나무를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날 따라 지계를 벗어 놓고 나무를 할만한 자리가 얼른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울창한 숲, 그는 드디어 나무할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담배를 한대 피어 물 즈음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계 작대기를 들고 일어섰지만 날썰 호랑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호랑이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어쩔수 없이 호랑이한테 죽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을 산에 보내고 무엇인가 꺼림칙하게 느꼈지만 일터로 나가자 곧 잊어 버렸다.

이젠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어둠이 쌓이고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보였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썼다.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찬이슬을 밤새도록 맞았다. 꼬박 밤을 세운 것이다. 이튿날은 일을 나가지 않았다. 혹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 다쳐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도 사립문 앞 언덕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날도 해가 기울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등불을 들고 나와 밤을 지냈다.

그렇게 그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몸이 점점 야위어 갔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등불을 든채 쓰러져 하나의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임바위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이 바위가 있는 마을 이름도 임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1960년 비암사(碑岩寺)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불상은 국보 제 1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앞면 하단에서 측면, 뒷면에 이르기까지 비상을 조성하고 연대를 비롯하여 발원자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통일신라시대 초기 불상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앞면은 윗부분에 비해 아랫부분의 너비가 약간 넓은데, 가장자리를 따라서 감실형의 테두리를 새기고 그 안을 한 단 낮게 하여 상단에는 커다란 이중의 주형광배(舟形光背)를 조각하였다. 광배 좌우에는 각가 주악천(奏樂天)을 배치하였으며, 가운데 아미타불삼존상과 그 권속들을 조각하였다. 본존은 복련(復蓮)의 연화좌 위의 방형 대좌에 결가부좌하였고, 협시보살과 인왕(仁王)·나한(羅漢)들이 협시하고 있다. 얼굴부분은 마멸되어 확실치 않으나, 머리 위에 육계가 높이 솟아 전체적으로 가름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신체는 건장하며 안정된 자세를 이루고 있는데, 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을 짓고 있는 두 손은 비교적 크게 표현되어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슴 부근에서 여러 겹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는 통견의 법의는 무릎 아래에서 이중의 〰형의 주름을 이루며 방형대좌를 거의 덮어 내렸는데, 옷 주름이 두꺼워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두광은 원형으로 세 줄의 동심원 안에 연꽃을 배치하고 가장자리를 화문(花紋)과 연주문(蓮珠紋)으로 장식하였다.

협시보살상은 본존 쪽으로 몸을 약간 튼 자세로 연화좌 위에 서 있는데 삼국시대의 엄격한 정면 직립의 자세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통일신라시대의 삼곡(三曲) 자세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형태이다. 머리에는 연꽃을 돌린 간단한 원형 광배를 두르고 있으며, 마멸이 심하여 자세하지는 않으나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 듯 하다. 목에는 기다란 영락(瓔珞)을 두르고 있고 천의는 무릎부근에서 X자형으로 교차되었다. 한 손은 들어올려 가슴 근처에서 보주를 들고 있으며, 다른 한 손은 내려 정병(淨瓶)을 잡고 있다. 이 협시보살상 아래에는 걷고 있는 형태의 사자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보

살상 좌우에 있는 인왕상 또한 본존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있는데 왼쪽의 인왕상은 왼손에 긴 창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인왕상은 당시의 인왕표현과는 달리 갑옷을 입은 모습이며, 허리에는 X자형으로 교차되는 영락 또한 특이하다. 나한상은 모두 4구로서 상체부분만 조금 보이고 있어 보살상이나 인왕상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불상위로는 거대한 이중의 주형광배가 조각되어 있다. 화염형(火焰形)의 연주문으로 광배를 2분하였는데, 내부에는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화불 5구를 조각하고, 보존의 두광 바로 위에 커다랗게 보주를 새겨 놓았다. 외부에는 좌우 각 4구의 비천(飛天)을 새기고, 중앙에는 머리 위로 궁전형을 받들고 있는 좌상 1구를 배치하였다. 광배 밖, 즉 비상의 최상부 좌우에는 천궁(天宮)을 받들고 비약하는 천인을 조각하였다. 옆면은 주악천과 용이 새겨져 있는데, 주악상은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이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용은 비록 상체만 남아 있으나 용솟음치는 세부동작이 충실히 묘사되었다. 뒷면은 4단으로 구획하여 각 단마다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불상을 5구씩 병렬하여 조각하였는데, 각 불상 사이사이에 이 비상을 발원한 인명과 관등을 새겼다.



태안설위설경(泰安說位說經)

【구 분】무형문화재 제24호 (1998, 07, 25 지정)
【소재지】태안읍 남문리 638-5
【보유자】장세일



설위설경(說位說經)이라 함은 '경(經)을 이야기하다' 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 보다 넓은 범위의 뜻으로는 법사(法師)가 굿을 할 때, 굿 장소를 종이로 꾸민 화려한 장식을 가리킨다.

경의 크기에 따라 대설경(大說經), 홀설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굿당의 장식이 아닌 귀신을 잡아 가둔다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한지로 보살(菩薩), 신령(神靈)등의 모습과 부적(符籙) 꽃무늬 등을 자르거나 오려서 만드는데, 주사를 섞은 붉은 물감으로 신령의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부적을 써서 붙이기도 한다. 현재의 기능 보유자인 장세일이 사용하는 송독(誦讀) 경문(經文) 으로는 육계수, 천수, 축원, 성조, 조왕, 지신, 명당경, 부정경, 팔양, 연명경, 조상경, 옥갑, 신축경, 팔문경, 신장하강, 동신경, 기문, 백살, 육모, 적살, 삼재경 등을 제작하고 있다.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된 '설위설경' 문화재 보유자인 장세일 법사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에서 1932년에 아버지 장오선(張吳仙)과 어머니 이씨(李氏) 사이에 2남1녀중 2남으로 태어나서 1945년에 태안군 소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까운 이웃 동네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3년간 공부하였다. 나이 스무 살에 부인 권숙자(權淑子)와 결혼하여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소원면 소근리는 바다가 인접해있는 농촌이라 장법사는 어릴 적부터 설경을 친숙하게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한편 한학을 공부한지라 설경의 경전(經典)에 자연히 관심이 갔고 그러면서 한 두 가지씩 읽고 외던 경전에



뜻이 많은 줄을 깨닫고 23세 때부터 주변에 경전이 능한 사람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충청도에서 그 당시 설경 분야에 제일 유능하고 체계적인 학식을 갖추었다는 한응회(韓應會 1974년 74세로 작고)선생을 만나게 되어 한응회 옹으로부터 설경에 관한 제반 행술(行術)을 사사받고 법사의 길로 들어섰다. 한응회 옹을 만나고 난 이후 그와 같이 독경을 다니면서도 다른 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적(符籙)과 종이 오리기(장세일 법사는 '종이 까수기' 라고 한다)와 경문 등 한응회 옹이 사용하던 행술과 조금만 뜻과 모양이 달라도 의문을 갖고 수집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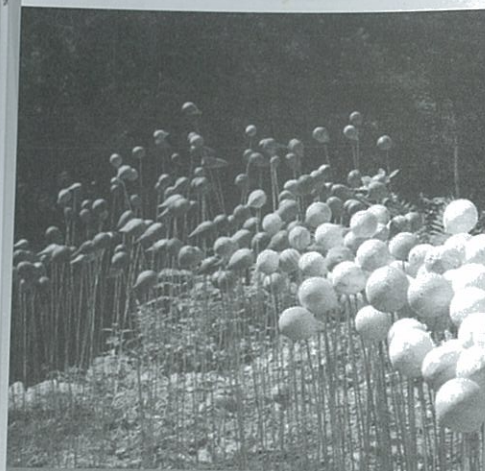
설경에 사용하는 종이 오리기 무늬는 하나의 부적으로 그 형태는 독경에 따라 수 십 여가지가 달리 사용되며, 축귀(逐鬼), 축사(逐邪), 해원(解冤), 축원(祝願) 등 경에 따라서 쓰는 무늬가 각기 다르다. 무늬의 종류는 약 30여 종류가 되고 설경에 쓰이는 종이 무늬 말고도 따로 제작이 가능한 무늬는 아주 다양하다. 현재 장법사가 사용하고 있는 송독경문(誦讀經文)으로는 육계주(六戒呪), 천수(千手), 축원(祝願), 성조(成造), 조왕(魔王), 지신(地神), 명당경(明堂經), 부정경(不淨經), 팔문경(八門經), 기문(奇門), 팔양(八陽), 연명경(延命經), 조상경(祖上經), 옥갑(玉甲), 신축경(神逢經), 신장하강(神將下降), 동선경(動神經), 백살(百殺), 육모적살(六拜赤殺), 삼재경(三災經) 등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이 경문들은 한응회 옹이 넘겨준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수집한 경문들을 오랜 연구

를 통하여 「경문요집(經文要輯)」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그의 주변 행술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그의 설경에는 종이 오리기와 함께 여러 가지 부적이 사용되는데 부적은 병세에 따라 쓰이는 부적, 가택평안, 장례식, 축귀, 재수, 삼재부적 등 기타 수백종의 부적이 있는 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약방에서 처방을 하듯 두 세가지 비방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 재료는 경면주사(鏡面朱妙)와 황지(黃紙)를

쓴다. 또한 부적을 만들 때는 전날부터 모든 부정을 금하고 목욕재계한 후 일체 바깥 출입을 삼가고 헛된 생각을 갖지 아니하며 독경으로 정진한다. 그날 자정에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소반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초를 켜고, 그리고 향을 사른 후 북두재배(北斗再拜)를 정성스럽게 드린 후 부적을 만들 때 그 부적에 맞는 주문을 계속 외운다. 장세일 법사가 한참 독경을 하고 다닐 때는 충청도 지역 외에도 제주도를 비롯해 안다녔던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설위설경 보존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창작작품을 연구와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매년 태안군에서 발표회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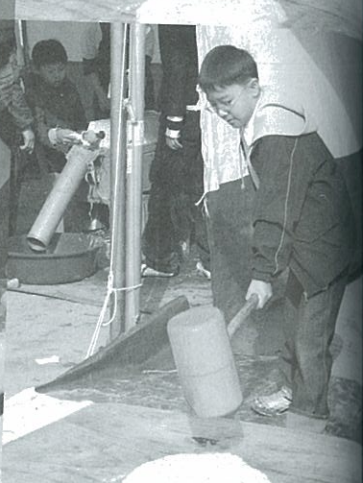
공주문화원제공
'금강자연 미술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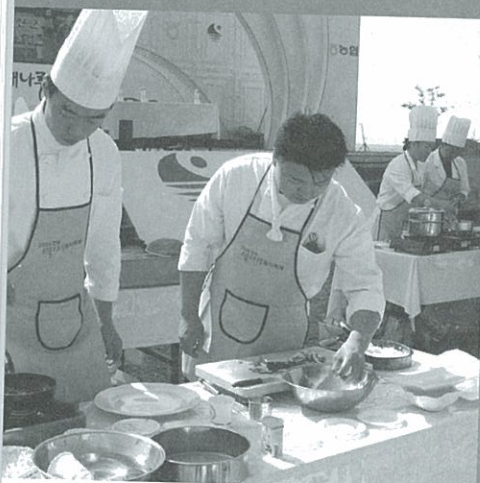
예산문화원제공
'추사문화제'

'2006년 충남의 향토축제'

논산문화원제공
'양촌꽃감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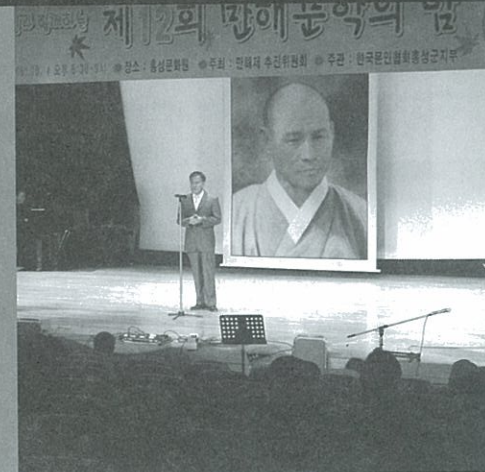
조치원문화원제공
'도원문화제'



당진문화원제공
'전국쌀사랑음식축제'



홍성문화원제공
'만해제'



2006

금강자연 미술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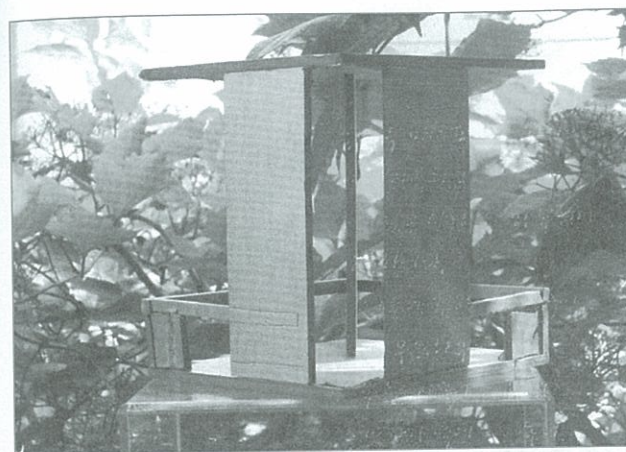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공주에서 국제규모의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특히 자연미술파트는 더욱 그렇다. 우리 고장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공주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여 낯설기도 하지만 공주를 널리 알리고 자연미술에 대한 이해와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선다.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를 소개한다.

우선 금강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일명 野投) 라는 모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1981년부터 탈 도시적이고, 탈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입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그들은 일반적인 예술가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본다. 자연을 제압하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협력·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하며,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고 협조하는 전형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들은 거슬림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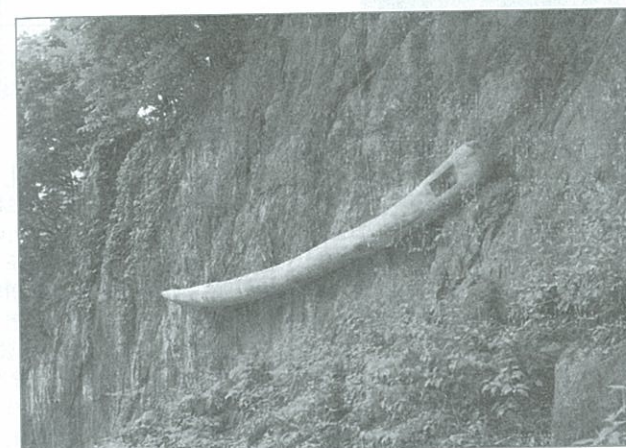
야투는 1990년대부터 자연미술의 발전과 폭넓은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드디어 금강을 중심으로 금강변, 공산성, 장군봉(공주영상대학)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연미산에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다.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6년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미산 일원에서 관람객 4만5천여명이 다녀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작 가 : 안케 멜린(독일)
▶ 꿈을 기다리며

연미산과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이곳을 찾은 이들은 여기에 앉아 가까운 자연과 저멀리 이어지는 아득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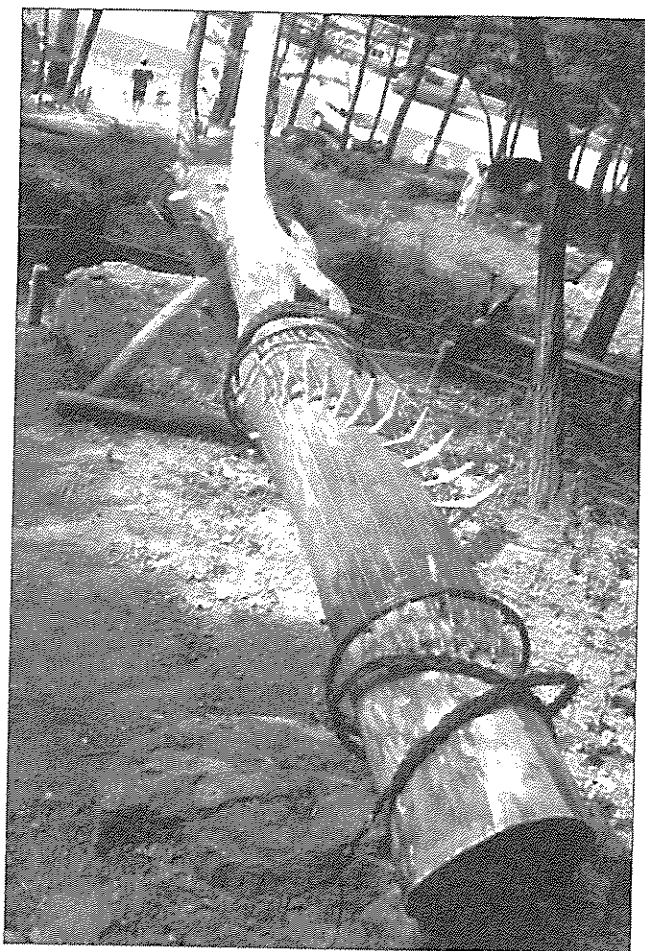
▶ 작 가 : 이응우
▶ 큰 바늘 (A Big Needle)

대부분의 바늘은 가늘고 길며, 군더더기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형태로 되어있다. 바늘은 그 기능으로 볼 때 우리의 가정에서는 생산과 보수의 상징으로, 병원에서는 치유와 희생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GNAB 2006을 위한 나의 바늘작업계획은 오늘날 인간에 의해 손상된 자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등장된 것이다. 나는 이 작업에서 바늘이 갖는 실제의 기능성 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 상징성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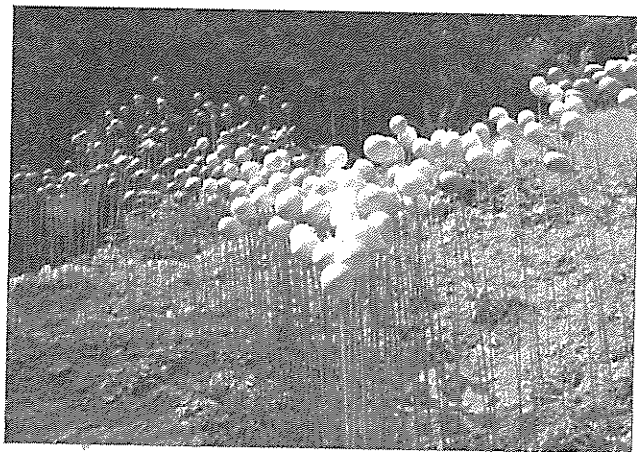
▶ 작 가 : 마리안 둔다코바(스위스)
▶ "노래하는 산" - 사운드시케이프

자연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연 속 사고와 대화를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감각(청각, 후각, 감각, 시각)을 가진 남녀노소 참가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계절 살아 숨 쉴 열린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산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큰 돌덩어리를 선택하였다. 단단한 소재(금속, 목재, 돌)를 사용하여 내재된 소리를 들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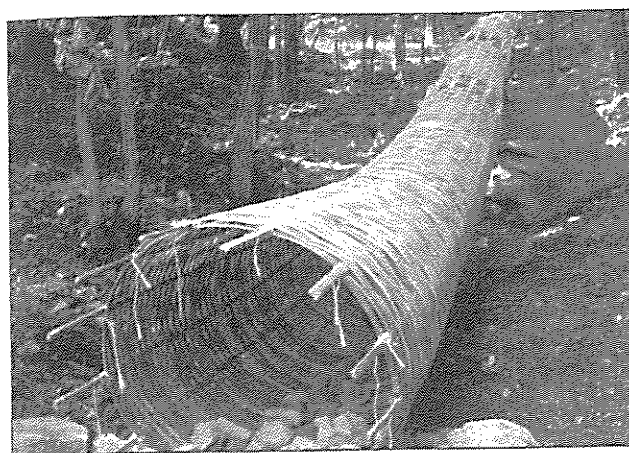
▶ 작 가 : 고승현
▶ 백 년의 소리 - 가야금 014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과 새소리,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시각이나 후각,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도 강한 감동을 줄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가야금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악기의 구조와 형태를 이용하여 새롭게 살려내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나무속에 오랜 시간동안 담겨졌을 많은 소리들을 다시 자연과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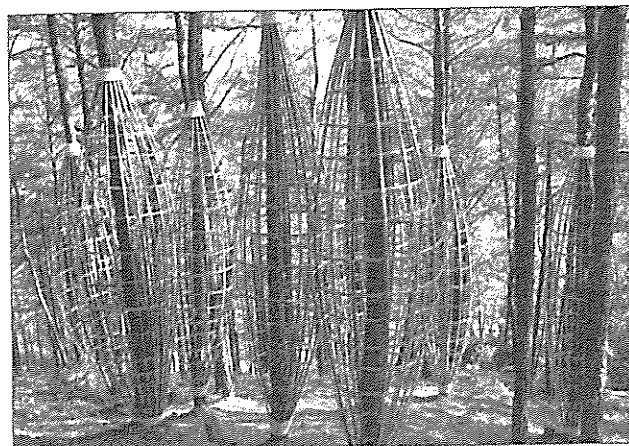
▶ 작 가 : 류신정
▶ 기대(Prospect)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물방울, 바람, 씨앗, 정자 등 생명체와 자연의 근원에 대한 상징물이다. 나는 자연과 인간의 원천이 되는 상징적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나는 숲 속에 설치된 원형적 형태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한 생명성을 일깨워 하나의 날개 짓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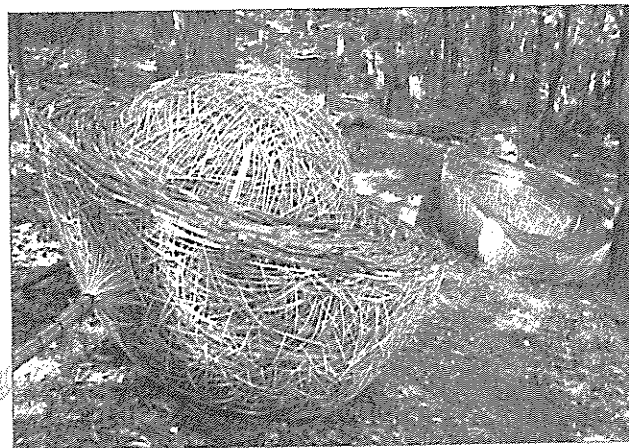
▶ 작 가 : 휘어만 드자밀(인도네시아)
▶ 대나무 터널

연미산 터널에서 영감을 얻어 대나무 터널을 제작하였다. 이 대나무 터널은 시간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대나무 자체의 성격과 시간은 연관성이 있다. 대나무는 길고 단단하며 곧고 싱싱하며 가지가 달리지 않았다. 즉, 일관성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 작 가 : 로저 "리쉬함" 타본(필리핀)
▶ 쉼터

나무는 사람과 같다. 의식이 있고 느낌도 있으며 자신의 생존과 존재를 의식한다. 타고난 수명이 있으며 자연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꼭 필요하다. 나무는 새, 곤충,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한다. 나무는 환경을 보호한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외부의 힘에 저항할 수 없으며 자신의 무지와 끝을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횡포 앞에 무력하다.



▶ 작 가 : 스트라이든 반 데르 메르브(남아프리카)

▶ 새로운 성장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그 장소와 관계를 맺는 형태를 찾아낸다. 자연과 더불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래, 물, 나무, 돌이 재료가 된다. 이러한 재료를 통해 기하학적 형태가 만들어지고 자연으로 돌아 갈 때까지 그 형태는 계속해서 변한다. 마침내 작품은 상상 속의 한 조각이 되어 사진으로만 볼 수 있지만 작가는 작품을 통해 비록 미약하지만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2006 양촌꽃감축제

'햇빛촌, 그 아름다운 가을속으로'

-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 ▶ 축제 영문명 : Yangchon Gotgam Festival
- ▶ 주최/주관기관 : 양촌꽃감축제위원회/양촌면
- ▶ 최초 : 개최연도 2003년도
- ▶ 개최시기 : 매년 11월 중 2일간
- ▶ 축제성격 : 특산물 축제

❖ 축제의 유래 및 특성

예로부터 양촌 일대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해 오던 두리(월하)감을 깎아 말린 꽃감을 제수용품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당도가 탁월하고 품질이 우수한 양촌꽃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은 100여 종 농가가 연간 2만여점의 꽃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유명 백화점 등 주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양촌꽃감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양촌 홍보는 물론 양촌꽃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제를 마련하였다.

❖ 지역특성

- 지명유래 : 백제시대에는 황등야산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엔 황산군으로 개명되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연산현으로 말기엔 은산현에 속했었다. 조선시대는 연산군 모촌면과 전라도 양량소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양량소면의 양자와 모촌면의 촌자를 따서 양촌이라 명명하고 논산군에 편입시켰다.
- 유적 및 지역명소 : 쌍계사, 달이산성, 모촌리 고분, 김기서효자정려 등
- 전승설화 : 채광리 할매바위, 쌍계사와 하마비, 서림리의 말무덤 등

❖ 축제를 마치고

'햇빛촌, 그 아름다운 가을 속으로'란 주제로 열린 양촌꽃감축제가 지난 11월 18, 19일 이틀에 걸쳐 양촌면 인내천 체육공원에서 개최되어 5만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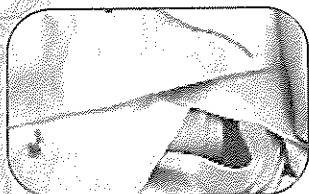
양촌꽃감축제는 지역 브랜드의 홍보와 특산물 판매신장이라는 기본적인 축제의 취지를 잘 살려 냈으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체험형 축제를 통하여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범적인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를 몸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농촌생활체험,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공예체험, 토끼몰이, 추억의 놀이마당, 전통 떡메치기, 감각기 체험, 전통혼례체험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또한 CMB충청방송의 씩씩 즐거운 노래세상과 청소년 열린 무대 공개녹화방송, 중국 소림기예단 시범, 감나무길 걷기대회, 꽃감 씨 멀리 뺄기 대회, 무한질주의 난타공연, 꽃감 씨 Lotto, 전통혼례재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통혼례재현행사는 실제로 양촌에 거주하는 신랑 최창남씨와 베트남에서 온 신부 짱띠느칸양의 결혼식을 올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서울에서 꽃감축제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한 250여명의 재경 양촌면민회원들과 건양대 총장이신 김희수 박사께서 자리를 함께 하는 등 많은 격려와 축하가 쇄도하는 그 의미가 남다른 행사였다. (<http://gotgam.non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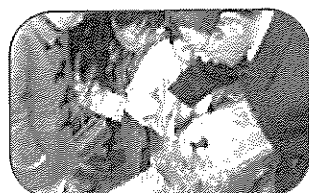
❖ 행사일정



- ▶ 천연 염색체험 행사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대상 : 제한없음



- ▶ 추억의 놀이마당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대상 : 제한없음



- ▶ 감쪽기 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대상 : 제한없음



- ▶ 놀이 전통 공예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관람객 전원



- ▶ 전통 혼례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9일(일) 11:00~12:00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관람객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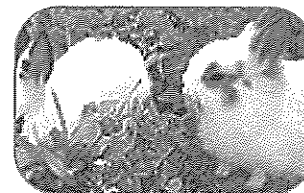
- ▶ 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내(몽골텐트 5m x 5m x 1동)
●대상 : 관람객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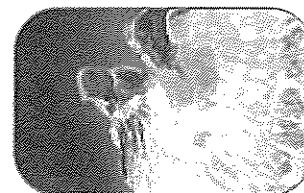
- ▶ 전통떡매치기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관람객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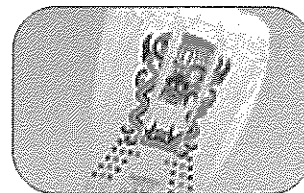
- ▶ 소달구지 타기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일원
●대상 : 관람객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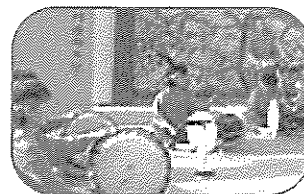
- ▶ 토끼몰이 / 닭잡기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10세이하 어린이



- ▶ 아이스카빙(얼음조각) 전시 및 경연대회
●기간 : 2006년 11월 19일(일) 11:00 ~ 12:30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관람객 전원



- ▶ 꽃감 연날리기
●기간 : 2006년 11월 19일
●장소 : 인천내 주차장
●대상 : 관람객 전원



- ▶ 전통사물놀이 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행사장내 부스
●대상 : 관람객 전원



- ▶ 농촌 생활체험
●기간 : 2006년 11월 18일 ~ 19일
●장소 : 체육공원 행사장
●대상 : 관람객 전원



❖ 축제의 목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충남 당진군에서 쌀수입개방에 대응 우리쌀소비촉진을 위한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쌀사랑음식축제는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요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고 있는 축제로 “쌀 사랑은 농촌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9. 28 ~ 10.1(4일간) 충남 당진군 석문방조제 공원에서 개최 되었다.



❖ 축제의 주요내용

- 공식행사로 개·폐막식, 추수감사제, 당진군민의 날 행사
- 경연행사로는 전국 쌀응용요리 명인을 찾는 요리경연대회, 제10회 전국주부풍물대회, Youth Festival, 어린이사생대회
- 공연행사로는 공개방송, 한국 줄타기 공연, 가학리 뱃가릿대 거북놀이, 박침지 마당극, 중요무형문화제 78호인 기지시줄다리기는 매일 15:00부터 관광객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
- 체험행사로는 쌀 이용 요리를 직접 체험하고 먹어 볼 수 있는 맛있는 쌀요리 세상, 쌀 가공 제품으로 쌀 아이스크림, 쌀빵, 쌀국수, 쌀전빵, 쌀 케익, 냉동밥 등 쌀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 시식 및 전시판매, 농경문화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해나루 놀이동산
- 기타 부대행사로는 당진군 품목별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우수 농산물직거래장터, 해나루 먹거리장터, 축산물전시 및 동물농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축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대형가마솥에 전국쌀 모으는 합미식 쌀퍼포먼스를 비롯한 2006인분 비빔밥 만들기, 초대형 김밥만들기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 주제전시관은 쌀문화음식전시관, 전통농경문화 체험관, 쌀응용요리 및 가공식품 전시 한국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전국브랜드쌀 전시, 농촌진흥청 주관 쌀 이용 가공식품 전시와 쌀요리 강습회도 매일 1시간 단위로 진행되었다.

▶ 관광객 20만여명을 동원하며 지난 10월 1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올해의 축제는 관광객과 당진군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당진군 대표행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광객들은 인근 성구미 포구에서 뱃고동소리를 들으며 왜목마을의 일출과 일몰, 그리고 대호방조제의 도비도에서 일몰을 보며 가을 바다의 정취를 한껏 느끼기도 했다.

한편, 행사기간 4일 동안 일반 관광객들이 구입해 합미한 쌀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되고 있다.





제17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호대회 및 제10회 추사문화제행사

예산군의 가장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

❖ 목적 및 취지

추사김정희선생은 1786년(조선 정조 10년)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현 추사고택에서 탄생하여 역대의 명필들을 연구하고 그중에서 장점을 모아 독특한 추사체를 창안한 대서예가이며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寫實)보다 품격(品格)을 위주한 죽난(竹蘭)과 산수화에 뛰어났고 금석학(金石學)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 종래에 중 무학(無學)의 비석이라고 전해지고 있던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라는 것을 고증하기도 했으며, 중인층의 인재들을 지도해서 사상적 영향을 줌으로써 양반층의 실학사상을 중인층으로 전환시켜 다음날 그들이 개화운동에 활동함으로써 실학사상을 연결 짓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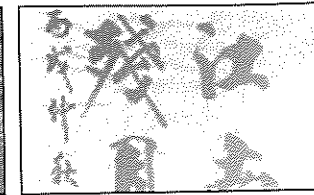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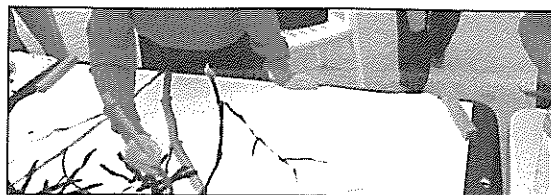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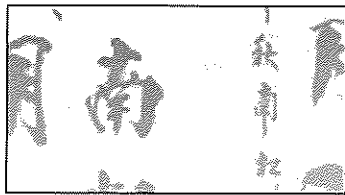
이러한 추사김정희선생의 학문과 예술을 후학인 우리가 계승발전 시키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사선생이 태어나시고 서예에 진했던 고장 예산에서 전국의 서예인들이 함께하는 추사문화제와 전국회호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켜 특색있는 향토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함한다

❖ 행사 개요

- 기 간 : 2006. 10. 14(토) ~ 10. 15(일)
- 장 소 : 추사김정희선생사적지, 예산문화원, 예산군공설운동장
예산중앙초등학교 꿈등지관, 예산문예회관
- 주 최 : 예산문화원, 추사기념사업회
- 주 관 : 예산문화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산경찰서,
충청남도예산교육청, 무한정보신문, 대전MBC

●주요내용

- 공식행사 : 1) 제10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2)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제(전일제)
3) 제17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호대회
- 학생대회 : 1) 제11회 학생풍물겨루기대회(초·중·고)
2) 제12회 사생실기대회(초·중·고)
3) 제8회 청소년전국회호대회(초·중·고 공모전)
4) 제8회 학생글짓기대회(초·중·고)
- 부대행사 : 1) 추사회호초대작가교류회
2) 추사서화 가족 탁본체험
3) 한지공예품만들기
4) 추사서각찍기체험(흙)
5) 추사회호대회 초대작가 회호축제
6) 벼루 깎아보기 체험
7) 눈 가리고 서예 써보기
8) 추사캐릭터와 사진찍기
9) 추사회호대회 역대 수상작 전시회
10) 추사김정희 유적지 순례
11) 낙관새겨보기체험



❖ 일정별 행사 계획

■ 첫째날 : 10월 14일(토)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0:00 ~ 10:30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제	추사선생묘소	대의원회
11:00 ~ 16:00	전국청소년회화대전	추사고택 특설과장	문화학교
10:00 ~ 15:00	학생미술실기대회	추사고택	예산미술협회
10:00 ~ 15:00	청소년풍물겨루기대회	에당호반무대	아사달
10:00 ~ 14:00	학생글짓기대회	화순홍주홍문	예산문인협회
16:00 ~ 17:30	추사회화 초대작가 교류회	공연장	추사회화 대회초대 작가회
19:00 ~ 23:00	전야제	문화원광장	사무국

■ 둘째날 : 10월 15일(일)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0:00 ~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화대회 개회식 회화 시상식	공설운동장	사무국, 풍물패 아사달
10:00 ~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회화축제	"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회
10:00 ~	수석전시회	"	예산수석회
13:00 ~	한지공예품만들기	"	푸른섬 화실
13:00 ~	추사서각찍기체험	"	예산전통옹기
14:00 ~	추사서화 가족탄본체험	"	동아리 발자국
13:00 ~	문방사우제작체험	"	남포벼루
13:00 ~	다도체험	"	사무국
14:00 ~	눈가리고서쓰기경연	"	사무국
10:00 ~	추사캐릭터와 사진찍기	"	버드발자국
10:00 ~	역대수상작전시	"	사무국
15:00 ~	열린무대공연	"	이벤트오브코리아

❖ 세부 추진 계획

1. 제17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화대회

- 일 시 : 2006. 10. 15(일) 10:00 ~ 18:00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여인원 : 1,000여명
- 주 관 : 사무국, 풍물패 아사달

2. 제10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 일 시 : 2006. 10. 14(토) 19:00 ~ 21:30
- 장 소 : 예산문화원 특설무대
- 참여인원 : 1,000여명
- 주 관 : 사무국
- 프로그램

「1부 : 테마가 있는 음악회」추사의 일생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

① 풍물팀 및 퓨전팀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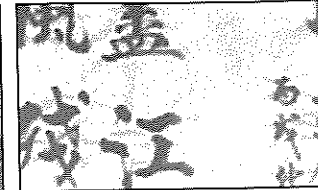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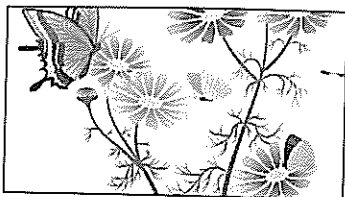
② 초청팀 공연

「2부 : 초청가수공연」

3.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제

- 일 시 : 2006. 10. 14(토) 10:00
- 장 소 : 추사고택 추사묘 앞
- 참여인원 : 500여명
- 진행순서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시작	마침	소요		
계		41분		
10:00	10:05	1	▷ 개 회	사회 : 사무국장
10:05	10:15	10	▷ 산 신 제	전용국 부원장
10:15	10:45	30	▷ 묘 제 - 제 배 - 초 헌 - 아 헌 - 종 헌 - 독 축 - 제 배	일 등 군 수 경주김씨종친회장 문화원장 부 원 장 일 등



■ 추사선생모제 진설도

匙櫟箸	麵	麵	麵	餅
	肉湯	蔬湯	魚湯	密漬
華陽炙	肉煎	水肉	炙	蔬煎
脯	熟菜	生菜	漁箭	豆腐
棗	栗	柿	梨	檨
	退酒器	香爐	香盒	藥果
	祝版		酒瓶	茶食
				散子

■ 산신제 진설도

櫟箸	麵	蔬
	炙	
脯		
棗	栗	柿

4. 전국청소년회화대전

- 일 시 : 2006. 10. 14(토) 11:00 ~ 16:00
- 장 소 : 추사고택 특설과장
- 주 관 : 문화학교
- 응모방법
- 대회요강 참조

5. 제11회 학생풍물겨루기 대회

- 일 시 : 2006. 10. 14(토) 13:30 ~ 18:00
- 장 소 : 예당호반무대
- 주 관 : 풍물패 아사달(대표 우제풍)
- 응모방법
- 참가 범위 : 군내 초·중·고 풍물반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풍물반
- 경 연 : 선반, 앉은반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당일 대회장에서 심사발표 시상

6. 제12회 사생실기대회

- 일 시 : 2006. 10. 14(토) 10:00 ~ 15:00
- 장 소 : 추사고택 안(우천시-다음 일요일로 순연)
- 주 관 : 미술협회 예산지부
- 응모방법
- 참가 범위 : 군내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작품 부문 : 상상화/수채화(풍경, 한국화)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추후 발표 시상

7. 제8회 학생글짓기 대회

- 일 시 : 2006. 10. 14(토) 10:00 ~ 14:00
- 장 소 : 추사고택 화순옹주 홍문 앞(우천시-다음 일요일로 순연)
- 주 관 : 문인협회 예산지부
- 응모방법
- 참가 범위 : 군내 초·중·고 학생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부 문 : 3개 부문(산문, 수필, 시) ※주제 - 당일 발표
-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 추후 발표 시상

8. 부대 행사

1) 추사취호 초대작가 교류회

- 일 시 : 2006. 10. 14(토) 16:00 ~ 17:30
- 장 소 : 예산문화원 공연장
- 주 관 : 사무국
- 내 용 : 추사김정희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

2) 먹거리장터

- 일 시 : 2006. 10. 15(일) 10: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 주 관 : 사무국
- 내 용 : 다양한 먹거리 체험.

3) 수석전시회

- 일 시 : 2006. 10. 15(일) 10: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 주 관 : 예산수석회
- 내 용 : 예산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수석 애호가들의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다.

4) 추사서각찍기체험

- 일 시 : 2005. 10. 9(일) 13: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 주 관 : 예산학원연합회
- 내 용 : 추사선생의 작품을 흙을 이용하여 찍어 보는 체험행사

5) 추사서화 가족탁본체험

- 일 시 : 2006. 10. 15(일) 13: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 주 관 : 동아리 버드발자국
- 내 용 : 목판에 새겨진 추사의 작품을 탁본해보는 체험행사

6) 열린무대공연

- 일 시 : 2006. 10. 15(일) 14: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무대
- 주 관 : 이사회
- 내 용 : 댄스, 퓨전, 전통,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임

7) 추사캐릭터와 사진찍기

- 일 시 : 2006. 10. 15(일) 13: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일원
- 주 관 : 이사회
- 내 용 : 추사김정희선생을 캐릭터화 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함을 주고 추사문화제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8) 눈 가리고 붓글씨 써보기 경연

- 일 시 : 2006. 10. 15(일) 16:00 ~
- 장 소 : 예산공설운동장 일원
- 주 관 : 이사회
- 내 용 : 눈을 가린 채로 주어진 문구를 한지에 써보는 시간을 마련

충남의 향토축제
조치원문화원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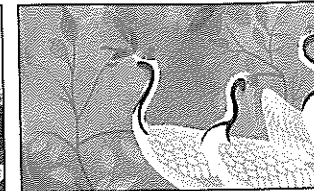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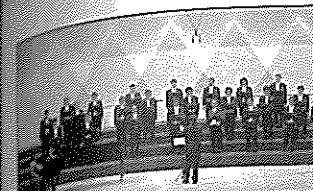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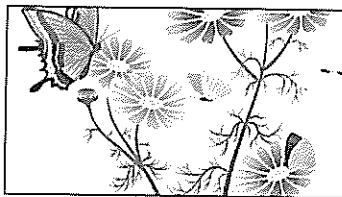


❖ 도원문화제의 목적(Dowon Cultural Festival)

도원문화제는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향토축제입니다.

❖ 도원문화제의 유래

문헌상 신라시대부터 복숭아 재배가 전래된 이후 우리 군은 1908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토질이 황토질로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은 우수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도원문화제는 관내 문인들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홉거리에서 시와 소설을 주제로 한 야유회 형식의 모임을 계기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의 꽃을 테마로 한 도원문화제가 탄생하여 매년 복사꽃이 만개한 4월에 향토축제로 자리하게 됐다.



❖ 연도별 추진사항

- 1985년 4월 : 제1회 도화문화제 개최(21년의 전통)
- 1986년 10월 : 도원문화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1993년 4월 : 도원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2004년도 도원문화제 (4. 17 ~ 4. 21 5일간)
- 2005년도 도원문화제 (4. 15 ~ 4. 17 3일간)
- 2006년도 도원문화제 (10.13 ~ 10.14 2일간)
- 경축 및 문화·예술행사로 가을예술제와 병행 실시

❖ 행사내용

문화제 태동에서 비암사의 백제대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에 백제를 시작으로 개막전날 전야제를 개최한다. 다음날 행사로는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군내에서 거주하는 여성들로 18세 이상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진, 선, 미, 정, 숙, 현, 인기, 포토제닉을 뽑는다. 이들은 일년 동안 연기군 미의 사절단으로 연기복숭아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다음날에는 백수문학 주관 사생, 글짓기 대회가 아홉거리를 중심으로 복숭아밭에서 개최되고 각종 전시회가 군민회관과 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초청공연이나 국악공연이 개최되고 원조회 주관으로 걷기대회도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일요일을 선택하여 아침 9시에 조치원역 광장에 각 읍면 상징조형물과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한다. 또한 10시에 운동장에 도착하면 개회사에 이어 체육대회, 민속경기, 농악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하루 종일 축제를 연다.

- 1) 일 시: 복사꽃이 만개한 4월 중순
- 2) 장 소: 연기군 일원

행사내용	종 목	주 관	비 고
경 축 행 사	○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 ○ “복사골” 한마음 축제 - 길놀이 - 빼에르 마임쇼 - 공동산 페스티벌 - 전통민속놀이 - 먹거리 장터 - 족석 스티커 만들기 - 복사골 그림이어 그리기 - 문화벼룩시장 운영 - 도전 골든벨	조치원문화원, 여성단체협의회 JCI KOREA-연기	
	○ 불꽃놀이	조치원문화원	

행사내용	종 목	주 관	비 고
문 에 행 사	○ 복사골가요제 - 유명가수 초청 - 읍·면별 2명씩 출전	뉴-조치원라이온스클럽	
	○ 으뜸춤씨장기경연대회 - 관내 거주 어르신 취미 동아리 장기경연대회	조치원문화원	
	○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초·중·고등학생 참여	문인협회, 연기사랑스케치회	
	○ 도원배 바둑대회 - 아마바둑의 정상급 대회 - 다수의 외지 참가자 출전	조치원바둑교실	
	○ 민속국악초청공연 - 민속음악, 무용, 사물놀이 등 - 민속국악단원 초청	조치원문화원	
	○ 중국기예단 초청공연 - 12~15명의 기예단 공연	연기로타리클럽	
	○ 퓨전국악그룹초청공연 - 퓨전국악그룹 “동화” 초청 공연	JCI KOREA - 연기	
	○ 열린문화체험한마당 -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체험 - 재활용 공예, 리본공예 -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사)한국청소년마을연기군지회	
	○ 전통 한마당 -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시연	연기사랑청년회	
	○ 민속농악공연 - 덕진풍물단 공연	한국국악협회연기군지부	
	○ 동요합창경연대회 - 어린이 동요 합창경연	연기교육청	

제12회 만해제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 ▶ 일 시 : 2006년 9월 30일(토) - 10월 1일(일)
- ▶ 장 소 : 만해생가지, 홍성군 일원
- ▶ 주 관 : 홍성문화원

❖ 만해제의 목적

만해제를 통하여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 축제의 주요내용

홍성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사상을 추모하고자 열린 만해제는 9월 30일 오전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 생가지에서 홍성군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하고 수덕사의 후원으로 기념식 및 추모다례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한편 생가지 광장에서는 만해 선사를 기리는 음악회, 최윤희의 승무, 만해 이야기가 있는 공양, 만해 유품 및 사진전시회 등이 열렸다. 오후에는 홍주의사총에서 만해 백일장·사생·휘호대회 시상식에 이어 홍주종합경기장까지 4 구간에서 만해 추모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부대행사로는 만해추모 내포제시조경창대회는 지난달 28일 막을 내렸고, 10월 14~15일에는 생가지 및 홍성문화원에서 만해 청소년시인학교가 열렸다.

둘째 날인 1일에는 홍성문화원에서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지부장 구재기) 주관으로 만해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국선도 시범과 만해 일대기 상영으로 시작된 문학의 밤은 노래마을의 세레모니 축하연주, 최충식 시인의 만해 현시 낭송, 이종건 홍성군수의 만해 시 낭송, 김정현 동화작가의 만해와 홍성의 정신 강연, 승우 스님의 바라춤, 오미숙 씨의 시조창, 청운대 학생들의 선복공연, 시인들의 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김정현 작가는 홍성의 정신 강연에서 "홍성지역에 면면히 내려 오는 홍성만의 확고한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뿌리의 한 부분이 만해 선사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홍성 정신이란 바로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조를 지켜 정의의 편에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로서 일생을 살다가 조국의 독립을 1년 앞둔 1944년 6월 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옳지 못한 일이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반드시 쫓고 넘어가야만 직성이 풀린 그의 강직한 성품이 우리나라의 강한 자주독립의지를 세계에 전한 인물이 만해 선사이다.

만해 선사가 세상을 떠난 뒤 송만공 선사는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귀한데 꼭 하나와 반이 있다"고 했다. 그 하나가 한용운을 일컫는 것이었다. 임궽정을 쓴 작가 홍명희도 "7000 승려를 합해도 한용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한용운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 만 명을 아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을 정도의 인물이 홍성출신 만해 한용운이다.

이런 문화 행사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용운 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후손인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원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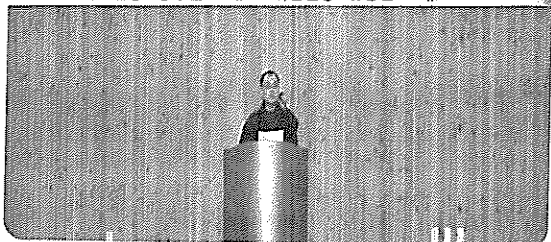


❖ 서천문화원장 이·취임

2006. 2. 15(11시)

서천 문화원장 이·취임식

이임원장: 양수철(12대) 취임원장: 유성열(13대)



지난 2월 15일 서천문화원 원장 이·취임식이 이권희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 및 문화원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제13대 문화원장에 취임한 유성열(57)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 등을 꾸며왔던 전임 원장 및 임원들의 뒤를 이어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열린 문화원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일상에서 개개인이 즐기는 여가 생활까지 포용하는 것이 문화의 역할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224개 문화원 중 서천문화원 만큼 문화적 요소와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은 흔치 않으며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주민과 지자체 등 사이에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짐하였다. 유성열 신임 원장은 지난 달 24일 선거인수 202명에 129명 투표, 73명 기권으로 찬성 120표, 반대 9표로 당선되었다.

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 등을 꾸며왔던 전임 원장 및 임원들의 뒤를 이어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열린 문화원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일상에서 개개인이 즐기는 여가 생활까지 포용하는 것이 문화의 역할성이라고 강조하였다.

❖ 조치원문화원장 이·취임



제43회 문화원 정기총회를 통해 대의원 이사 및 감사 총84명 중 77명이 참석, 7명이 불참한 가운데 41표를 받아 임영이씨가 문화원장으로 선출되므로써 지난 3월 10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 연기군수(이기봉)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 및 대의원 이사, 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7대 임영이(59세, 침산리)취임 원장은 활발한 자원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판소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전통국악대학을 졸업한 후 조상현 선생님께 심청가, 춘향가를 사사받고 무형 문화재 5호 이수자로 2001년 전국 판소리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 판소리 보존회 이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임영이 신임 원장은 "문화원의 주인이 연기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원을 투명하게 이끌것이다"라고 하며 "재미있는 문화원, 들르고 싶은 문화원이 되길 노력하고, 찬성해주는 소리보다 비판하는 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어 배워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이 신임 문화원장은 연기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기군 소비자정책심의회 의원, 연기군 여성발전협의회 위원, 연기군 지역혁신협의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예산문화원장 취임



예산문화원은 지난 6월 27일 2006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이진자 문화원장의 후임으로 후보자 4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총선거자 42명중 41명이 투표하여 21표를 득표한 이용면씨(57세)가 당선 오는 2008년 11월

11일까지 예산문화원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이 원장은 제7대 충남도의회의원, 예산농전 총동창회장, 홍성교도소 교화위원, 예산문화원 감사, 예산군효행장학회 감사 등을 역임하여 예산문화 발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원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은 예산문화원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진자 원장이 지난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예산군의원에 당선, 4년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7월 7일 취임식에서 이용면 신임 문화원장은 "이진자 전 문화원장이 예산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문화원이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 온양문화원장 이·취임



지난 7월 26일 회원들의 직선투표로 당선된 김시겸 취임 문화원장(62세)은 취임사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해 학생들에게 역사 사료관을 개방하는 등 문화원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에서 태어난 김시겸 원장은 온양고를 졸업한 후 아산군

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아산시 시민과장과 회계과장, 총무과장, 사회산업국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정년 퇴임한 김시겸 신임원장은 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355D지구 12지역 부총재도 지냈다. 부인 유남열씨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취미는 독서다.

박노을 이임원장은 1960년 24살의 나이로 문화원장에 취임한 이후 50년이 지나 이제는 향토사 연구로 제2의 문화 인생 포부를 밝혔다. 박노을 이임원장은 활발한 문화운동을 펼치던 중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온양문화원을 설립했다. 아산군지와 온양시지를 발간 한 경험을 살려 아산시지 발간 사업을 준비중인 박노을 이임원장은 "남의 나라를 따라가는 모방문화와 땀집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 문화 발굴 보존과 선양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원단신



❖ 태안문화원장 이·취임



태안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9월 14일 태안문화원에서 진태구 군수, 이용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문화원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우영 이임 원장은 문화가족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정원장에게는 이완구 도지사, 이용희 군의장, 권

웅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박응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공로패가 각각 전달 되었다. 이날 이임한 정우영 원장은 황도봉기풍어제, 설위설경 등을 영상화하여 대중화하는데 기인하였으며 전통 자연생산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발굴·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제4대 태안문화원장에 취임한 명수남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민의 기대와 신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무엇보다 태안향토문화연구소를 활성화시켜 태안의 우수한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태안문화원 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된 명수남 원장은 태안에서 명가축 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 청양문화원 향토사료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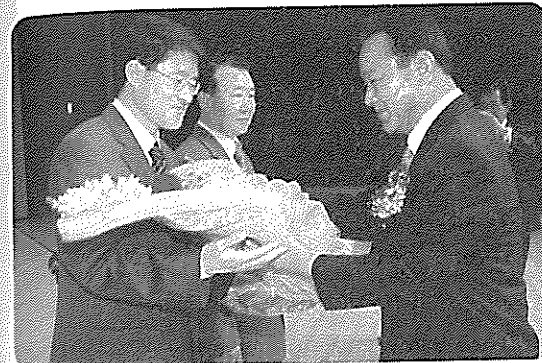


청양문화원(원장 정재권)은 지난 10월 25일 청양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청양 지역의 향토사적자료와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사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향토사료관 헌관식을 거행하고 그동안 문화원이 수집해온 역사적 사료들을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향토사료관에는 청양군의 역사·인물·유물·문화

등 군내 각종 민속자료 260여 품목 520여점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이같은 향토사료관이 자리함으로써 청양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역사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세우고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재권 문화원장을 비롯해 김시환 군수, 강석호 군의장, 김학원 최고의원, 임은숙 교육장, 김성동 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관람객들이 참석해 사료관 개관을 축하했다.

한편 청양문화예술회관은 총공사비 196억 2,300만원이 투입되어 2004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간지 2년 1개월 만에 역사적인 준공으로 향토사료관 개관식과 더불어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지상2층, 지하1층, 총건평 1618평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은 가변식 포함 805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13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한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연은 물론 도단위 행사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6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지난 11월 11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2006년도 충남문화예술인대회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김시환 청양군수, 박응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김영천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문화 예술인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충남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초청, 한마음 다짐대회로써 25명의 유공 문화 예술인에 대한 표창과 충남을 널리 알린 다산 김선원씨와 가수 주병선씨에게 도지사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축하공연으로 전통 예술단 '마당굿'의 대북공연, 충남교향악단과 소프라노 협연, 청양초 무용부 공연, 초청가수 주병선의 무대가 펼쳐지는 등 충남예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청양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는 제2회 충남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 전시회 개막식에 이어 5일간 전시되어 많은 관람이 이어졌다.

✧ 충청남도지사 표창

- 육상희(금산문화원)
- 김준환(서산문화원)
- 김인규(서천문화원)
- 임효식(청양문화원)
- 황종선(아우내문화원)
- 강주형(한국예총 부여지부)
- 박완용(한국예총 논산지부)
- 박기술(한국예총 당진지부)
- 김종찬(국악협회 충남지회)
- 한창표(사진작가협회 충남도협의회)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 류재열(공주문화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문연식(미술협회 충남지회)
- 이성훈(음악협회 충남지회)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표창

- 이숙실(논산문화원)
- 김용원(당진문화원)
- 안순금(부여문화원)
- 강형철(성환문화원)
- 장윤정(예산문화원)
- 윤완섭(조치원문화원)



2006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1. 충남문화 제10호

- 기간 : 2006년 1월 ~ 12월
- 대상 : 도내 문화원
- 활동상황 :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제10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7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해외문화 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 사업

- 기간 : 7월 4일 ~ 7월 12일
- 대상국가 : 이탈리아/스페인
- 대상 : 도내문화원장, 담당공무원, 축제전문가
- 활동상황 : 해외 우수 축제를 직접다녀와 도내 지역 축제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고 이탈리아 피렌체 시청을 방문하여 문화재 관리 및 보호실태 등에 대한 회의 등을 통해 문화원 종사자 및 공무원의 새로운 의식개발과 문화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연수 가짐.

3.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연찬

- 일시 : 8월 31일 ~ 9월 1일
- 장소 : 대천 한화콘도
-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원 사무국장간의 정보교류 및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연찬 활동을 통해 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 함. 정경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와 이춘아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짐.

4.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충남 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 기간 : 2006년 09월~12월(논문 접수 및 심사, 발표회)
- 대상 : 문화원 및 향토 연구회 회원 등
- 활동상황 :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 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 정립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 총 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7일 서산문화원 회의실에서 심사(심사위원 : 서산 신상찬 원장, 정우영 전 태안원장, 박노을 전 온양원장)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입선한 논문 작품은 12월 월례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5. 2006년도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 일시 : 2006년 9월 26일 11:00
- 장소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2006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정경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의 발표와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음. 주제 발표에 이어 정재욱 공주문화원장과 정제상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고 임선빈 도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 부장의 특강에 이어 종합토론 함.

6. 2006 충남문화예술인대회

- 일시 : 2006년 11월 11일
- 장소 : 청양문화예술회관
- 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 활동상황 :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한 행사로 지방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지대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초대가수 주병선이 출연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 함. 제2회 충남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 전시회도 개최 됨.

7. 2006년도 지역축제 개선·발전 워크숍

- 일시 : 2006년 12월 05일 10:30~17:00
- 장소 :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 대상 : 문화원, 축제주관단체, 시·군 공무원 등
- 활동상황 : 지역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 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 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이 자체 평가한 자료를 전문평가자에게 의뢰하여 워크숍 행사 시 공론하고 초청특강을 마련 우리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함.

8.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

- 일시 : 수시
- 대상 : 도내 문화원장
- 활동상황 : 도내 17개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 모임. 8월 월례회 시 이완구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회의를 가짐.



8월 월례회 및 이완구 도지사 초청간담회

2006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1. 충남문화 제10호

- 기간 : 2006년 1월 ~ 12월

- 대상 : 도내 문화원

- 활동상황 :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제10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7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해외문화 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 사업

- 기간 : 7월 4일 ~ 7월 12일

- 대상국가 : 이탈리아/스페인

- 대상 : 도내문화원장, 담당공무원, 축제전문가

- 활동상황 : 해외 우수 축제를 직접다녀와 도내 지역 축제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고 이탈리아 피렌체 시청을 방문하여 문화재 관리 및 보호실태 등에 대한 회의 등을 통해 문화원 종사자 및 공무원의 새로운 의식개발과 문화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연수 가짐.

3.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연찬

- 일시 : 8월 31일 ~ 9월 1일

- 장소 : 대천 한화콘도

-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원 사무국장간의 정보교류 및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연찬 활동을 통해 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 함. 정경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와 이춘아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짐.

4.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충남 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 기간 : 2006년 09월~12월(논문 접수 및 심사, 발표회)

- 대상 : 문화원 및 향토 연구회 회원 등

- 활동상황 :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 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 정립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 총 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7일 서산문화원 회의실에서 심사(심사위원 : 서산 신상찬 원장, 정우영 전 태안원장, 박노을 전 온양원장)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입선한 논문 작품은 12월 월례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5. 2006년도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 일시 : 2006년 9월 26일 11:00

- 장소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2006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정경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의 발표와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음. 주제 발표에 이어 정재욱 공주문화원장과 정제상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고 임선빈 도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 부장의 특강에 이어 종합토론 함.

6. 2006 충남문화예술인대회

- 일시 : 2006년 11월 11일

- 장소 : 청양문화예술회관

- 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 활동상황 :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한 행사로 지방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지대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초대가수 주병선이 출연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 함. 제2회 충남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 전시회도 개최 됨.

7. 2006년도 지역축제 개선·발전 워크숍

- 일시 : 2006년 12월 05일 10:30~17:00

- 장소 :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 대상 : 문화원, 축제주관단체, 시·군 공무원 등

- 활동상황 : 지역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 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 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이 자체 평가한 자료를 전문평가자에게 의뢰하여 워크숍 행사 시 공론하고 초청특강을 마련 우리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함.

8.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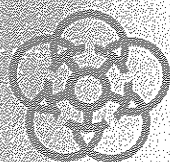
- 일시 : 수시

- 대상 : 도내 문화원장

- 활동상황 : 도내 17개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 모임. 8월 월례회 시 이원구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회의를 가짐.



8월 월례회 및 이원구 도지사 초청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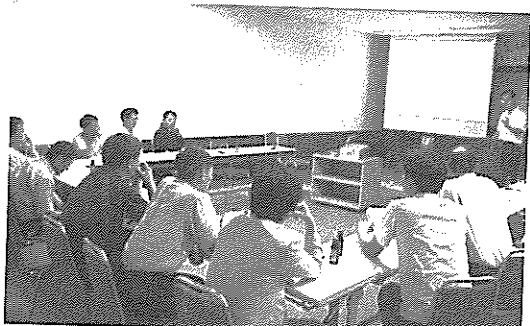
2006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2006충남문화예술인대회



2006지역축제개선평전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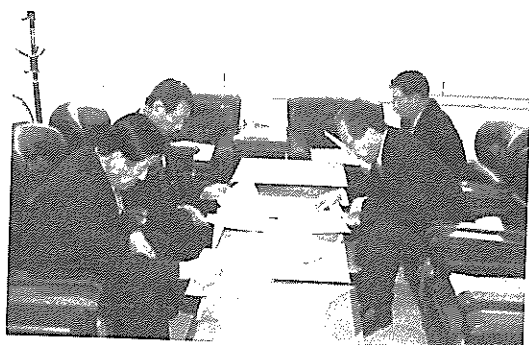
도내문화원 사무국장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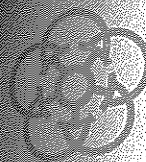
운영위원회의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연구



향토사연구논문 심사



2006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6 병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5년 1월 3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웅진춘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바로이분, 고사와격언, 향토사료, 이달의 문화인물, 내고장 소식, 문화원소식, 문화가 산책 등	
3	예인촌 정기공연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처음 만나는 자유"	· 일시 : 2/17 19:00 2/18-2/19 15:00, 18: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작품명 : 처음 만나는 자유	
4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6 - 7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가곡반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초급 ⑤댄스스포츠반-중급 ⑥국선도반 ⑦서예반 ⑧요가반 ⑨이혈 ⑩탁종이, 한지공예 강좌	
5	예인촌 정기공연 박성환선생 판소리 "대고구려"	· 일시 : 3/17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우리 조상 대고구려, 고구려 주변 정세, 당나라의 침략, 고구려의 방책 등	
6	공주재팬워크	· 일시 : 3/22 - 3/31 · 장소 : 공주문화원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강연회 -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관 특명전권공사 강연회	
7	예인촌 정기공연 "극단 波高의 허탕"	· 일시 : 4/14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극단 <파고> 작품명 : 허탕	

2006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8	예인촌 정기공연 "권재덕의 옛소리"	· 일시 : 5/3 10:30 · 장소 : 사곡면 호계리 사곡농협광장 ·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우리의 옛 소리를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줌	
9	제1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 일시 : 6/9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 광장 · 참석인원 : 5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0	예인촌 정기공연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 일시 : 6/19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11	제1회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1 16: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 백일장 시상식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2	2006 지방문화원 중심 노인참여 프로젝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일시 : 6월 ~ 10월	- 예능을 지닌 노인들을 모집하여 기능을 숙련 하고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초·중·고 등학교를 방문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고 지역 축제장에서 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공연을 통하 여 지역민들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움	
13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일시 : 7/5 18: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수료식 및 발표회 - 옷다리품물, 서예전시, 가곡발표, 댄스스포츠 등	
14	2006 통합복권 기금지원사업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에서 판소리 체험	· 일시 : 7/11 - 7/12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 문화소외계층인 공주관내 어린이 및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15	청소년문화유적 순례답사	· 일시 : 9/5 - 9/15 · 장소 : 백제권 부여군 일원 · 참석인원 : 200명	답사코스 : 백제역사문화관 - 정림사지 - 국립 부여박물관 - 능산리고분군 - 서동요 세트장사업	
16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다종이 인형전시회	· 일시 : 9/11 - 9/15 · 장소 : 제2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다종이 인형 만들기 회원들의 같고 님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마련	

2006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7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 일시 : 9/11 - 9/20 · 장소 : 공주시 관내학교 및 복지시설 · 참석인원 : 200명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복지시설의 환우들 에게 우리 문화 가치를 이해시키고 뿌리 깊은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전승 보급에 목적들 둌	
18	예인촌 정기공연 "이길재와 함께 여는 농민위안의 밤"	· 일시 : 9/15 19:00 · 장소 : 의당초등학교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 거리를 제공 - 권재덕의 옛소리, 이길재의 공주소리, 최선무 용단의 한국무용(부채산조), 안영단의 가야금 연주, 생활무용단의 댄스스포츠	
19	2006 통합복권 기금지원사업 지역문화원중심 지역문화체험 "서당체험"	· 일시 : 9/20 - 9/22 · 장소 : 의당면 도령서당 · 참석인원 : 40명	- 벽지청소년 대상 2박 3일 서당체험 - 현장체험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마련 -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통생활 문화체험	
20	일반인대상 안동유적 순례답사	· 일시 : 10/14 07:00 · 장소 : 경북안동시 일원 · 참석인원 : 40명	- 답사코스: 도산서원-봉정사-하회마을-탈박물관	
21	예인촌 정기공연 "최선 무용단의 이 가을에 가슴을 열고"	· 일시 : 10/20 14:00 · 장소 : 국립공주병원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 거리를 제공 - 프로그램 : 화관무, 부채산조, 소고춤, 진도 북춤, 달맞이 놀이, 부채춤	
22	공주문화원 초대 "북한 인민예술가 김장한 추모 작품전"	· 일시 : 10/24 - 10/27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북한 인민예술가 김장한 추모 작품전"	
23	공주문화원 초대 "오해균명장"	· 일시 : 10/21 - 10/27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오해균명장"	
24	공주문화원 초대 "박덕인개인전"	· 일시 : 11/2 - 11/6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박덕인개인전"	
25	공주문화원 초대 "서연 이화영 선생 서전"	· 일시 : 11/17 - 11/21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이화영 선생 초대전"	

2006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농민을 위한 밤



다종이 전시회



만회복지사업



우리문화 순회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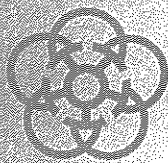
안동문화답사



에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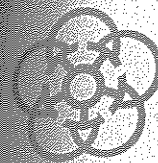
2006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금산의 민속발굴	· 금산의 전설 보고서 발간 ·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 금산의 전설	
2	금산의 마을지	· 보곡산골 마을지, 가마실 마을지 · 보고서 발행	- 각 마을의 역사, 관광 조사연구	
3	이야기가 있는 지명찾기	·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의 · 지명 발굴	- 각 마을의 지명, 특산물, 전통 · 문화 발굴	
4	문화학교운영	· 일시 : 3월 ~ 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4개강좌	-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5	금곡서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 금곡서회 회원 · 참여인원 : 45명	-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 · 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 · 전시회 개최	
6	창현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 창현회원 · 참여인원 : 20명	-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 · 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 미술전시회 개최	
7	풍각쟁이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 참여인원 : 30명	-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 · 이의 국악공연	
8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월 29일 ~ 30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 (금강놀이마당) · 참여인원 : 15,000명	-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 · 고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 · 기 마당	
9	비단골산꽃축제	· 일시 : 4월 15일 ~ 23일 · 장소 : 군북면 산안리 · 참여인원 : 12,000명	-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 · 적인축제 구성	
10	금산농악축제	· 일시 : 12월 31일 ·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 참여인원 : 12,000명	- 금산농악 메굿과 큰기울리기,제야 · 의 북소리, 쫓불꺼기, 불꽃놀이, · 초청공연 등	
11	금산민속연보존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 · 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 · 하는 장소 · 참여인원 : 40명	-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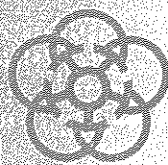
2006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장동달맞이축제	· 일시: 2월 11일 ~ 12일 · 장소: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 참여인원: 20,000명	-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13	금산역사문화연구소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역사, 민속, 생태자료 조사	- 금산역사문화연구 보고서 발행	
14	나아내풍물단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대상: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 참여인원: 45명	-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15	금산문화예술축제	· 일시: 11월 8일 ~ 14일 · 장소: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 참여인원: 800명	-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 술택으로 미술, 서예전시회 개최	
16	살꽃문화사랑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군 일원 · 참여인원: 100명	-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사랑	
17	좌도시동인회	· 좌도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 수록	-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18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경연대회	· 일시: 9월 30일 · 장소: 충남당진군석문면 · 참여인원: 45명	-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나아내풍물단 참가 장려상 수상	
19	산꽃시동인회	· 산꽃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수록	- 산꽃시동인지 발간	
20	금산주부풍물보급사업	· 주부들의 여가문화 창출	- 나아내주부풍물단 공연	
21	실용음악보급사업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 그룹사운드 「파랑새」	
22	금산소년소녀합창단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45명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 합창단	
23	사물놀이	· 사물놀이 가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 사물놀이 토리페	



2006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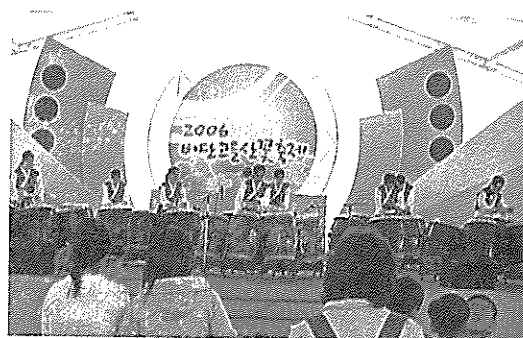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청소년토리풍물단	· 일시: 1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 50명	-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페 풍물단 운영 및 지도	
25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 일시: 3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150명	-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26	외국인주부 우리문화배우기	· 일시: 3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50명	- 금산군내 거주 외국인주부(가정) 의 효과적인 한국정착, 한국일상 생활의 이해와 접근	
27	농바우꼬시기보존	· 일시: 1월 ~ 12월 · 대상: 농바우꼬시기보존회	- 농바우꼬시기 보존회	
28	국제결혼가정 행복기르기 사업	· 일시: 8월 ~ 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50명	- 금산군내 거주 외국인주부 (가정) 의 효과적인 한국정착, 한국일상 생활의 이해와 접근	
29	전국평생학습축제	· 일시: 9월 30일 ~ 10월 2일 ·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 참여인원: 50명	-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 실현 도모	
30	해외문화교류사업	· 일시: 7월중 · 장소: 금산문화원	-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 사업	
3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별이벤트	· 일시: 9월 ~ 10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10,000명	- 군민의화합한마당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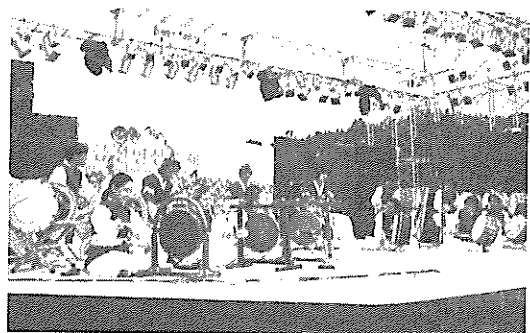
2006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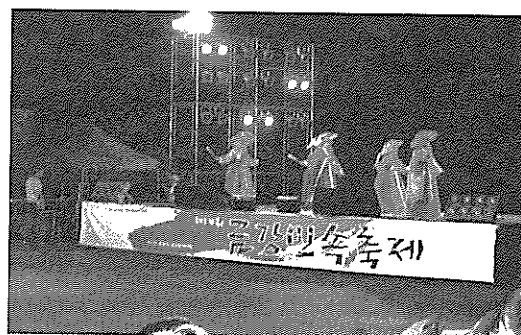
장동 달맞이축제



비단고을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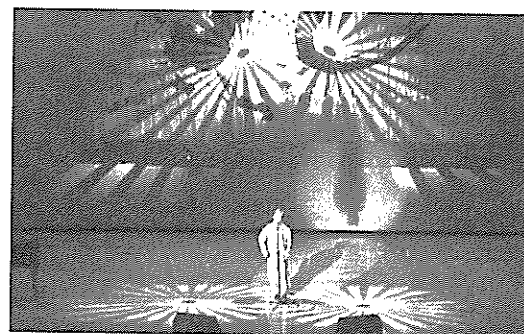
금산인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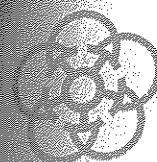
금강민속축제



삼꽃마을풍류전



금산문화예술축제



2006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병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6. 1. 2. 14: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150여명	각급 기관 및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계인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제4회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 일시 : 2006. 2. 12. 14:00 · 장소 : 논산천 둔치 · 참가인원 : 800여명	읍·면·동 줄다리기 및 제기차기 대회, 연날리기대회, 각종 민속놀이 체험, 가훈씨주기, 소원빌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됨	
3	내고장문화유적답사	· 기간 : 2월 ~ 12월 · 대상 : 논산시민 · 참가인원 : 800여명	논산의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예약과 총점의 고장 논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문화유적답사를 실시 함	
4	논산시민을 위한 봄의축제	· 일시 : 2006. 3. 31. 19:30 · 장소 : 건양대학교콘서트홀 · 참석인원 : 1,300여명	충남교향악단 및 가수 장사익씨를 초청하여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속에 개최 됨	
5	계백장군 제향	· 일시 : 2006. 4. 15. 10:00 · 장소 : 계백장군 사당 · 참석인원 : 300여명	논산시유림협의회가 주관하여 시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계백장군의 충절 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거행 됨	
6	논산시 문화제 백일장&그림 공모전	논산시 각 초·중·고에 6월중문화제와 관련된 작품을 공모, 심사하여 수상 해당 학교로 발송	논산시 각 초·중·고에 논산의 문화제와 관련된 주제로 그림과 원고 공모를 통하여 논산의 문화제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보호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7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 일시 : 2006. 6. 1. 18: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400여명	많은 학생과 시민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홍성청소년수련관 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함	
8	논산시 읍·면·동 노인 장기 대회	· 일시 : 2006. 6. 20. 08:00 · 장소 : 놀이새마을금고 · 참석인원 : 150명	논산시노인회가 주관하여 관내 읍·면·동 별로 각 노인정에서 추천한 선수 총 64명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창동 유복술 씨가 1등을 차지함	

2006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향토문화 체험프로그램 '예학의고장, 그 뿌리를 찾아서' & '선비의 열과 숨결을 느끼는 고택에서의 하룻밤'	· 기간 : 2006. 6 ~ 10 · 장소 : 논산관내 · 참석인원 : 600여명	복권기금지원사업 향토문화체험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소위 문화 소외계 층과 함께 "예학의 고장, 그 뿌리를 찾아서"와 "선비의 열과 숨결을 느 끼는 고택에서의 하룻밤"을 진행하 였음. 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예학 의 고장과 충절의 고장임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 유적지를 답 사하였고, 후자는 다섯차례에 걸쳐 명재 윤증 고택에서 하룻밤을 지내 며 예절교육과 다도체험, 국악감상, 시낭송배우기, 향토사들기 등을 실 시 함	
10	제1회 청소년 문화제	· 기간 : 2006. 7. 10 ~ 7. 15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1,000명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 그림공모전 시화, 시화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 연, 끼를 발산하는 무대인 '내마음의 푸른꿈, 건강대 공연의상학과 전시 회 등이 펼쳐 짐	
11	제17회 논산시 서예대회 대회	· 일시 : 2006. 9. 30. 10: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참석인원 : 100명	논산 서예발전과 서예인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대회를 개최,대상 일 반부는 전경자씨가 학생부는 뽕뽕여 중 이보람 학생이 차지 함. 11월4일 전시회와 함께 시상식 이 개최 됨	
12	독서의 달 행사	· 일시 : 2006. 9. 01 ~ 9. 30 · 참여인원 : 100명	독서의달을 맞이하여 논산시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하여 독후감 을 공모한 후 시상함	
13	2006 경절갈축제 "죽제연계관광"	· 기간 : 2006. 10. 19 ~ 23 · 장소 : 논산관내 · 참가인원 : 200여명	참가인원 : 200여명축제를 대상 으로 고장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축 제도 즐기는 동시에 예학 과 충절의 고장 논산을 널리 알리는 등 참가자 들의 호평을 얻음. 오전에는 관측사, 미내다리, 오후에는 윤증고택, 종학 원을 답사하였음	
14	계간지'논산문화'발간	2003년 봄호부터 매회 8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2,000부씩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 성하여 알찬 내용으로 연4회 계간지 로 발간. 문화원회원, 전국문화원, 관내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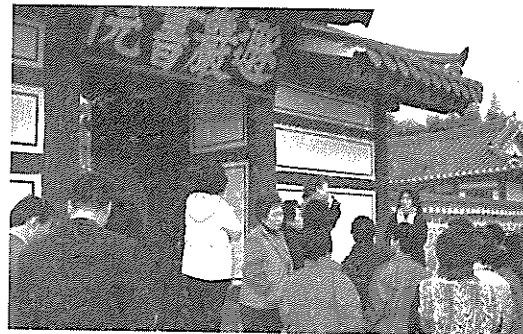
2006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공연	· 일시 : 2006. 11. 22. 13:00 · 장소 : 논산시 종합 사회복지관 3층강당 · 참석인원 : 200여명	황해도 평산지방의 경사굿 중 철성 제석거리에서 농사의 풍년 장사의 번창, 자손의 번영 등 풍요와 풍농, 다산을 기원하며 소 모양을 꾸미고 노는 놀이 공연이 펼쳐짐	
16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자리	· 일시 : 2006. 12. 26. 18:3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200여명	한해를 보내며 가족, 친지들이 한자 리에 모여 시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시를 낭송하는 가족은 물론 시와 음 악을 감상하는 시민들은 잊지못할 송년의 밤을 만듦	
17	'논산문예'제14집 '작은산그림' 발간	6월에 실시했던 논산시 문화제와 관련 된 원고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 작을 모아 문예작품집으로 발간	본 원 주최로 시행된 논산시 문화제 백일장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을 모아 문예지 발간	
18	논산의 음.면.동지 자료조사 및 수집	·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논산시의 각 읍.면.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속, 풍습, 전설등의 자료 수 집 정리(광석, 성동, 양촌, 연산, 은 진 부적)	
19	'논산의제례의식'발간	·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논산지역 대표적인 유명종가의 제사 참여도와 제사횟수,제사방법, 제사시 간,제수준비 등을 조사하여 발간	
20	'논산의 향토사'발간	·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근세부터 현재까지 논산의 발전과정 에서 발생한 다방면의 사실들을 발 굴 하고 원로들의 증언을 통하여 논 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 료를 수집,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남 겨 줄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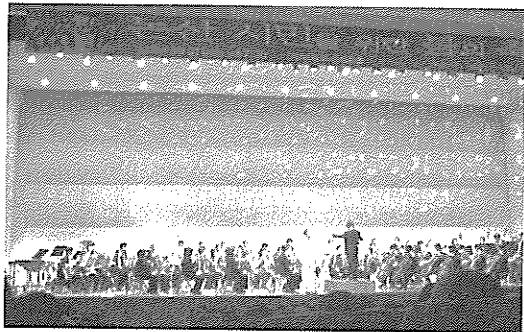
2006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2006 신년교례회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논산시민을 위한 봄의축제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2006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 일시 : 2006. 2. 17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300명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지역민이 화합 할 수 있는 행사	
2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심포지엄	· 일시 : 2006. 4. 8 · 장소 : 문예의 전당 · 참여인원 : 400명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의 민속학자를 초청하여 각국 민속 줄다리기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 · 토론	
3	제1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6. 5. 19 · 장소 : 창덕궁, 청와대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발전방안을 위한 관내 · 외 유적탐방	
4	제2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6. 6. 1 · 장소 : 창덕궁, 청와대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발전방안을 위한 관내 · 외 유적탐방	
5	제3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6. 6. 8 · 장소 : 대전 뿌리공원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발전방안을 위한 관내 · 외 유적탐방	
6	제4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6. 10. 11 · 장소 : 강화도 일원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발전방안을 위한 관내 · 외 유적탐방	
7	제5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6. 11. 8 · 장소 : 강화도 일원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 발전방안을 위한 관내 · 외 유적탐방	
8	플레이백 씨어터 공연	· 일시 : 2006. 7. 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00명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 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연극으로 재연되는 즉흥연극 플레이백 시어터 공연	
9	남이홍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 일시 : 2006. 9. 10 · 장소 : 충장사 · 참여인원 : 2,000명	남이홍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 국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매년 백일장 개최	
10	당진문화원의 노래비 제막	· 일시 : 2006. 9. 27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당진문화원 40주년 기념으로 작사, 작곡된 문화원의 노래를 비석으로 제작하여 보존함	
11	당진문화 25/26호 발간	· 일시 : 2006. 10. 30 · 발행부수 : 2,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 보를 수록하여 2회 발행	
12	향토유물 수집	· 일시 : 2006. 6. 30 · 유물 : 백자, 청자 · 수량 : 10점	향토사료관 조성을 위해 지역의 향 토유물 백자, 청자	

2006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3	문화예술의 향연	· 일시 : 2006. 12월 8일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30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와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14	기독교가 당진 지역에 미친 영향	· 일시 : 2006. 12. 30 · 저자 : 이한웅 · 발행부수 : 2,000부	당진지역의 기독교 전래 100년을 기념하여 기독교가 당진지역에 미친 영향 발간	
15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연중 · 강좌수 : 19개 운영 · 참여인원 : 연 25,000명	가요교실 · 댄스스포츠 · 대금 · 단전 호흡 · 백견 · 민요장구 · 노인건강 · 고전무용 · 미술 · 수채화 · 문인화 · 오카리나 · 종이접기 · 펠트 · 생활영어 · 일본어 · 미술심리 · 시낭송 · 민속놀이보존	
16	호원노인대학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80여명	당진지역 60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강연, 체험 등을 주회 실시	
17	생태체험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목장체험"	· 일시 : 2006. 6. 11 · 대상 : 문화소의 가족 · 참여인원 : 80명	지역 목장은 찾아 젓짜기, 우유먹이기, 건초주기, 트랙터타기, 송아지로 데오, 초지트레킹 등 체험	
18	생태체험 "살아있는 갯벌을 찾아서"	· 일시 : 2006. 8. 9 · 대상 : 문화소의 가족 · 참여인원 : 80명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갯벌을 찾아 생태교육, 갯벌썰매타기, 조개 잡기, 해안선 탐험 등 체험	
19	생태체험 "제 1차 숲속의 작은 가족들"	· 일시 : 2006. 8. 23 · 대상 : 문화소의 가족 · 참여인원 : 80명	생태탐험, 생태동요배우기,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나만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하늘정원 걷기 등 체험	
20	생태체험 "제 2차 숲속의 작은 가족들"	· 일시 : 2006. 9 · 대상 : 문화소의 가족 및 결혼이민 가족 · 참여인원 : 80명	생태탐험, 생태동요배우기,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나만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하늘정원 걷기, 능안탐험 등 체험	
21	예술체험 "동작예술치료"	· 기간 : 6. 12 ~ 8. 21(10회) · 대상 : 장애인 가족 · 참여인원 : 연 300명	장애아동들의 자아인식을 키우기 위해 감각활동을 중심으로 예술이 갖는 표현의 장점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	
22	예술체험 "호흡 · 운동 심신 치료"	· 기간 : 9. 6 ~ 11. 1(8회) · 대상 : 장애인 가족 · 참여인원 : 연 240명	운동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신체 장애아동들에게 호흡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정서안정을 도모	
23	예술체험 "기쁨과 슬픔을 찾아 떠나는 연극여행"	· 기간 : 9. 25 ~ 10. 30(6회) · 대상 : 장애인 부모 · 참여인원 : 연 180명	연극 활동을 통해 어머니 스스로 '나'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활동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	

2006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한글교육	· 기간 : 2006. 5. 30 ~ 연중 매주 화 · 금요일 · 참여인원 : 연 3,300명	한글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가정 및 사회적인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4개반으로 나누어 주2회 교육 실시	
25	문화체험	· 기간 : 연중 · 참여인원 : 연 200명	"함께해요 아시아" "축제참여" "문화 탐방" 등 한국문화체험 지원	
26	의 · 식 · 주 체험	· 기간 : 연중 · 참여인원 : 평균 60명	한국의 의 · 식 · 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27	예절교육	· 기간 : 2006. 11. 3 ~ · 참여인원 : 연 240명	한국의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 교육	
28	예술체험	· 기간 : 8. 22 ~ 29 · 참여인원 : 연 240명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 지원하기 위해 예술동작치료 실시	
29	집단상담	· 기간 : 10. 9 ~ 11. 30 · 참여인원 : 연 240명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년 이상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해결방안 모색	
30	문화강연	· 기간 : 2006. 9. 17 · 참여인원 : 100명	청운대 베트남어과 박연관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비교 이해하는 강연 실시	
31	건강검진 · 암검진	· 기간 : 2006. 9. 6 ~ 12. 16 · 참여인원 : 100명	결혼이민자들의 기초검진 및 구강, 임신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생활 건강 지도	
32	전통혼례	· 기간 : 2006. 10. 21 · 참여인원 : 200명	결혼식을 못 올린 결혼이민자 가정을 선발하여 전통혼례 실시	
33	한글로 편지쓰기	· 기간 : 2006. 11월 중 · 참여인원 : 60명	한글교실에서 배운 한글 실력으로 친정부모, 시부모, 가족 등에게 편지 써보기 행사	
34	멘토결성	· 기간 : 2006. 11월 중 · 참여인원 : 40여명	한국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의 멘토 결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 지원	
35	작품발표회	· 기간 : 2006. 8월 8일 · 참여인원 : 200명	결혼이민자들의 작품과 국가별 공연으로 문화원 회원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36	동아리 지원	· 기간 : 연중 · 출신국 : 각국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각국의 국가별 동아리를 지원	
37	다문화예술단 창단	· 기간 : 2006. 12월 중 · 출신국 : 각국	결혼이민자 교육생 중에서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예술단 창단	

2006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결혼이민자 전통혼례



목장체험



아시아 전통줄다리기 심포지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숲체험

2006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한내돌다리 밟기 민속축제	· 일시 : 2006. 9. 29 · 장소 : 대천천 한내 돌다리 현장 · 참석 : 기관단체 및 문화 회원 시민 1,000명	사라져가는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 제 재현으로 시민들의 한내돌다리밟 기 민속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	
2	시민국악 교실운영	· 일시 : 2006년 연중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여인원 : 300명	시민국악교실을 통한 국악 애호가들 의 여가활용 기회부여 및 우리 전통 민속 맥을 이어가는 국악 보급에 효 과 기대	
3	문화회원 문화가족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2006. 9. 14 · 장소 : 강화도 문화유적답사 · 참석 : 문화원회원 110명	문화원 회원간의 화합을 통한 문화 원 회원 · 가족으로써의 자긍심 고취 기회 부여와 우리 고장 문화와 역사 성을 바로 알려 향토문화 기구기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4	고유우리 명절전통 민속체험행사	· 일시 : 2006. 10. 5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석 : 소외계층불우청소년 · 참여인원 : 100명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갖는 계기마련과 추석명절 우리민속 체험 기회제공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 로운 사회 적응 능력제고	
5	문화학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 2006. 12. 15 ~ 16 · 장소 : 장소문화원2층전시실 · 참석 : 유관기관단체 및 문화회원150명 · 전시내용 : 한국화, 서예, 서각	평소 문화학교에서 배운 기량 발표 기회부여를 통한 우리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및 건전한 여가문 화 생활 풍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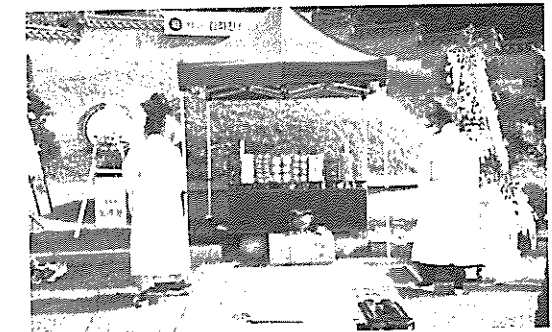
2006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2006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6	청소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	· 일시 : 2006. 12. 22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 참석 : 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문화원회원 200명 · 내용 : 제4회 청소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 고 있는 국악, 농악 사물놀이 경연대 회 개최로 자기기량 발표기회를 제 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민속 계승·발전 계기 구축	
7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6. 12. 20 ~ 12. 24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석 : 작가 및 문화회원 15명	보령출신작가들의 초대전을 통해 지 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 해서 미술에 대한 관심제고와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8	가야금 병창 교실운영	· 일시 : 2006년 연중 · 장소 : 대천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우리 전통악기의 맥을 이어가며 국 악애호가들에게 보급 확대	
9	서각교실운영	· 일시 : 2006년 연중 · 장소 : 성주산서각교실 · 내용 : 서각교실운영	시민여가활용기회 및 취미, 재능 발 굴기회 부여	
10	소외지역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6. 5. 10 · 장소 : 보령관내 문화유적 · 참석 : 소외지역 청소년 · 내용 : 120명	우리고장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릴 기회 제공으로 고향사 랑과 애향심 고취	
11	마을단위 전통민속 행사지원	· 일시 : 2006. 12. · 장소 : 마을단위 전통민속 행사장(서낭당, 다리, 고목) · 참석 : 마을단위 주민 · 참석인원 : 250명	우리고장 전통고사 서낭제, 다리제, 고목제 등의 전통민속 행사 지원으 로 계승 발전	
12	해맞이행사	· 일시 : 매년 1. 1 ·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 참석 : 보령시민 및 관광객 · 참석인원 : 300명	새해 첫날 시민안녕과 새해소망을 기원하며 새해 아침을 맞으며 시민 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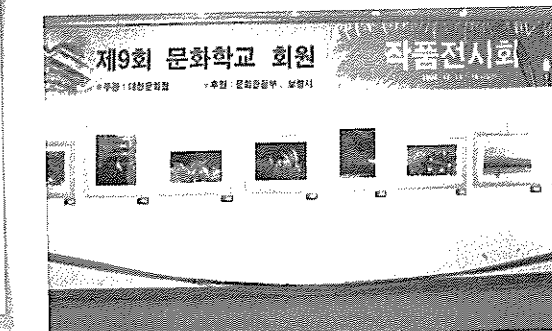
문화유적답사



신년교례



해맞이행사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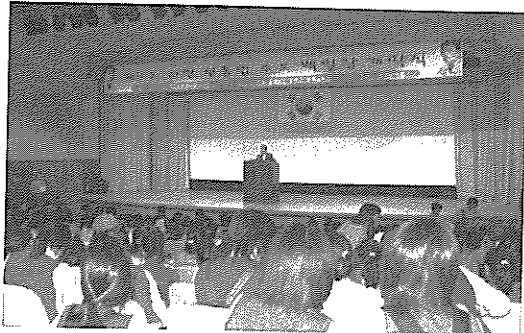
2006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전국 백제 토기 물레 경연대회	· 기간 : 2006. 9. 30~10. 1 · 장소 : 구드래광장 · 참여인원 : 100여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 기간 : 2006. 4. 16~11. 11 ·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 참여인원 : 120여명	군내 초등학교 5~6 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3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 기간 : 2006. 12월 중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8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4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미당	· 기간 : 2006. 12. 22 · 장소 : 부여군민회관 · 참여인원 : 200명	동지 팔죽썰먹기, 떡만들기 등 각종 세시 민속 재현	
5	문화현장탐방교육	· 기간 : 2006. 5. 6~11. 30 · 장소 : 전국문화현장 · 참여인원 : 30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2006 한국농업 박람회, 추사고택, 한국고건축 박물관 등 답사	
6	제4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 일시 : 2006. 7. 20~7. 24 ·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 · 참여인원 : 5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 연 꽃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증진 하고 연꽃 부채만들기 등 14개의 체험장과 축하공연, 사생대회 등 다채롭게 운영함	
7	제4회 홍산대첩 문화제	· 기간 : 2006. 10. 26~27 · 장소 : 홍산면 동헌 · 참여인원 : 2만 여명	고려시대 왜구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 관련행사, 최영장군 관련 행사, 전통문화행사, 보부상관련행 사 등	
8	제52회 백제문화제	· 기간 : 2006. 9. 28~10. 2 · 장소 : 부여군일원 · 참여인원 : 50만 여명	제52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을 시작 으로 사비정도고유제 등 각종 제전 행사와 각종 체험행사 및 각종 공 연행사 등 다채롭게 실시	
9	우리는 문화가족 운영	· 기간 : 2006. 6. 10~12. 30 ·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 참여인원 : 48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 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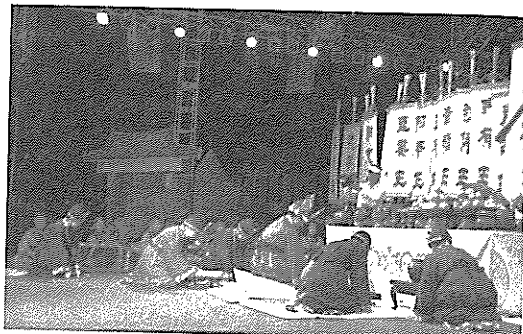
2006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제4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 기간 : 2006. 5. 25 ·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 참여인원 : 500 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 적 업적을 기리는 도단위 청소년 대 상 백일장	
11	2006 문화학교	· 일시 : 2006. 6. 1~12. 28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화, 일본어, 목공예강좌 개설 운영	
12	제8회 성홍산 해맞이축제	· 기간 : 2006. 1. 1 · 장소 : 임천면 성홍산성 · 참여인원 : 5,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 합을 도모하는 쫓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 수보기 등 실시	
13	신년교례회	· 기간 : 2006. 1. 2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참여인원 : 1,0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 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14	지역생활문화 자료수집	· 기간 : 2006. 3. 2~12. 20 · 장소 : 부여문화원 · 수량 : 50여점	지역 생활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남 녀 교복사진 등 추억의 옛 자료 전 시	
15	저석리산제 발굴조사	· 기간 : 2006. 3. 2~12.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부수 : 500부	부여읍 저석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산신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 간	
16	송국리 선사놀이 축제	· 기간 : 2006. 10. 28~29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만여명	송국리 선사취락지 발굴 30주년 행 사로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체험 등 전시관 관람	
17	관광정보센터운영	· 기간 : 2006. 1. 1~12. 31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18	복권기금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 기간 : 2006. 7. 21~12. 2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200여명	군내 문화 소외계층에 '살아있는 부 여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 문화체험' 등 테마별 문화체험의 기 회를 제공	
19	영화감상교실	· 기간 : 2006. 1. 10~12.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300여명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해설 및 감상회	

2006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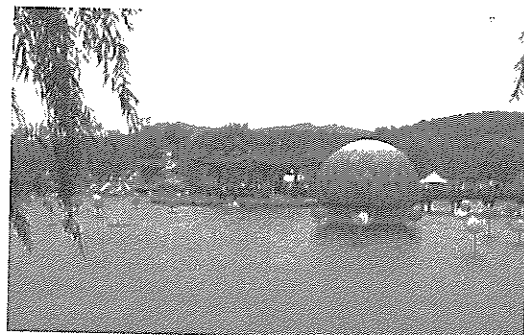
제4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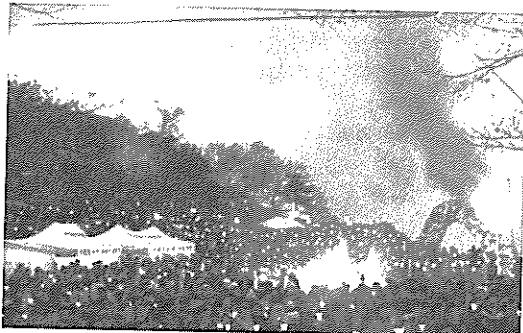
제52회 백제문화제(사비정도고유제)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제4회 공남지 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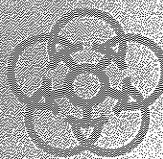
2006 성홍산 헤맷이축제



어린이 역사교실

2006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 일시 : 3월~7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인원 : 75명	서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천연비누, 우리춤제조, 생태교실을 운영	
2	성년례	· 일시 : 5월 15일 · 장소 : 한서대학교 · 대상 : 한서대 해양스포츠학과 학생	성년의 날 즈음하여 한서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개최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서산의 민속신앙과 마을제 영상자료 제작	· 일시 : 5월~12월 · 수량 : 6종	서산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22종의 민속신앙과 마을제가 보존 계승 될 수 있도록 그 중 6종을 영상자료화 함	
4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시 : 6월 2일 · 장소 : 정순왕후 생가, 창덕궁 · 대상 : 문화가족	서산을 연고로 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답사하고 그 분의 업적을 기림	
5	해외문화교류사업	· 일시 : 6월~7월 · 장소 : 이탈리아, 스페인 · 대상 : 지방문화원장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서 해외문화를 탐방	
6	문화의식 강좌	· 일시 : 7월 20, 2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15개 분원 · 참석인원 : 200여명	각 분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의식 강의를 개최하고 분원 간 교류와 활성화를 도모	
7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일시 : 7월~8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등학교 · 인원 : 25명	생활문화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 계승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문화학당을 운영함. 전통음식체험, 장구, 서예, 한문 교육	
8	향학관 운영	· 일시 : 9월 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인원 : 100여명	서산출신 및 서산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함	
9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 일시 : 9월 22일 · 장소 : 계룡시	충남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민속경기를 치루고 시민간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높임	
10	청소년 문학제	· 일시 : 9월 17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 중, 고 학생 · 인원 : 400여명	서산시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고 격려함	



2006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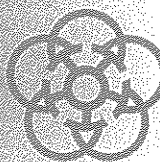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 9월 29일 · 장소 : 금산 · 대상 : 서산문화원 이사	서산문화원 이사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문화현장을 답사, 체험하여 문화의식과 주체성을 높임	
12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9월 23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참석인원 : 500여명	서산지역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한 무대에 올라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펼치고 학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짐	
13	찾아가는 다도 문화교육	· 일시 : 9월~10월 · 장소 : 해당학교 · 대상 : 꿈이있는 교실, 은포공부방, 고성초등학교 등 60여명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다동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차 보급 및 우리 차문화를 널리 알림	
14	명사초청강연회	· 일시 : 10월 18일 · 장소 : 서산문화회관 · 강사 : 전원주 · 대상 : 지역주민 · 참석인원 : 600여명	외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 특강을 개최	
15	새터민 희망이야기	· 일시 : 10월 29일 · 장소 : 서산관광농원 · 대상 : 새터민 및 지역주민 · 참석인원 : 400여명	새터민들의 결혼식을 통해 그들을 축하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문화 한마당을 펼침	
16	찾아가는 국악공연	· 일시 : 11월 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인원 : 150여명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악공연을 펼치며 전통문화의 가치와 신구 세대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	
17	서산문화대상 시상	· 일시 : 1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18	청소년 문화상 시상	· 일시 : 1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중,고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행, 예행, 선행 3개 부문의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	



2006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제 4회 내포바람전	· 일시 : 1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	서산지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	
20	정보자료실 운영	· 일시 : 연중	각종 신간, 영상물, CD, 각종 자료를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21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연중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역 정보 홍보와 각종 향토자료 관리	
22	지역문화학교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서산문화원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도교실외 6개 강의를 운영	
23	스산의 숨결 발간	· 일시 : 연중 · 매월 발간	서산문화원의 소식과 각종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문화원 회원 및 출향인사 등에게 보급	
24	향토자료관 운영	· 일시 : 연중	서산지역 출토 유물뿐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전시 및 보존하여 지역 향토사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	
25	지역문화학교 운영2	· 일시 : 연중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한국화교실외 5개 강의 운영	
26	정인경 선생기념 학술회의	· 일시 : 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인원 : 100여명	양열공 정인경 선생의 업적을 기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27	서산시민 평생학습 한마당	· 일시 : 11월 10, 11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문화원 일대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한마당 참가, 서산시 평생학습 발전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인 학습동아리 발표, 지역문화학교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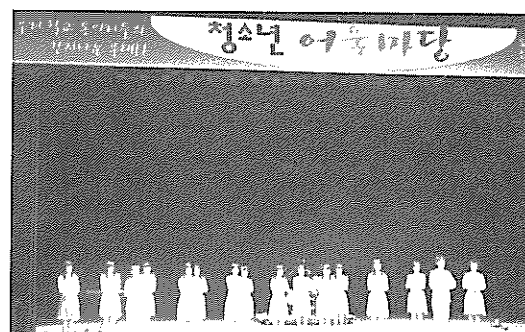
2006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명사초청 강연회



지역문화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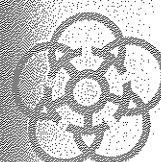
청소년어울마당



새터민 희망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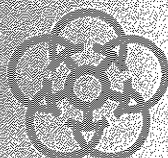


청소년문학제



2006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2006.1월~ 2월 · 장소 :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 매회20여명	겨울방학을 통하여 가족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기초한문, 다례교실, 모시공예, 태극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음	
2	제8회 기벌포 대보름제	· 일시 : 2006. 2. 12 · 장소 : 신성리갈대밭 · 참석인원 : 3,000여명	갈놀이, 장승제, 창작연 날리기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대보름전통 체험 프로그램(부럼, 액마기체현, 연만들기)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등이 있었음	
3	전통 가양주 실태조사	· 일시 : 2005. 11월 - 2006. 3월 · 조사 : 한산조곡주 · 보고서발간 : 문화관광부	'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술의 다양성과 우리 술 문화의 깊이를 가늠해 보고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통가양주의 실태를 조사한 작업이었음	
4	제17회 모시문화제 부스	· 운영일시 : 2006. 5. 4 - 9 · 장소 : 한산모시관 · 참석인원 : 2,000여명	모시문화제시 체험부스를 맡아 기획, 설치, 진행을 직접 운영함으로 지역민과 전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체험프로그램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5	문화예술교육 별축제	· 일시 : 2006. 5. 8 · 장소 : 한산성실중학교 · 참석인원 : 1,000여명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체(별)을 관측하며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과학프로그램으로 20여개의 부스로 나눠 모듈별 체험으로 서천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함	
6	제6회 학생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2006. 6. 6 · 장소 : 부여 일원 · 참석인원 : 80여명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부여 일대 능사리고분, 정림사지, 무량사등을 답사함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 유적을 근거로 옛 선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봄	
7	백제문화자원 컨설팅 워크숍	· 일시 : 2006. 6. 14 · 장소 : 서천문화원강당 · 참석인원 : 100여명	백제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예비적 고찰(정재운-공주대 사학과), 백제시대의 서천, 서천문화(서정석-공주대), 백제향양의 교차로 서천기벌포(양종국-공주대), 서천 문화자원의 특징과 활성화를 위한 제고(이경진-서천문화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함	



2006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8	복권기금사업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6. 6. 21 - 22 · 장소 : 서천일대 · 참석인원 : 80여명	21일 : 소곡주체험, 서면일대 22일 : 모시체험, 신성리갈대밭 용산문화원과 공동기획 교류체험프 로그램으로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함	
9	석전제(釋奠祭) 재현사업	· 일시 : 2006. 8월 22일 · 장소 : 한산향교 · 참석인원 : 200여명	선전제란 유교제례문화로 의례적 행 사로 축소되었지만 의례행사 필요 한 의상 및 제기 등의 구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함	
10	서천 전통 콘텐츠 발굴사업	· 일시 : 2006. 8. 30 · 사업제안서 : 2개 · 용역 : 이경진	서천문화원과 서천군에서 서천 전통 콘텐츠 발굴사업 제안을 용역사업으 로 전 사무국장인 이경진에게 서천 을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적 효과를 목표로 진행함	
11	공연사업 "잔칫날"	· 일시 : 2006. 08. 30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200 여명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용극 "잔칫날" 을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공연하고 옛날 결혼풍습을 재현하여 추억의 잔칫날을 회상하도록 함	
12	제33회 신석초 청소년 문예백일장	· 일시 : 2006. 09. 08 · 장소 : 한산모시관일대 · 참석인원 : 100여명	서천군내 초,중,고 학생들의 글짓기 종목을 신석초를 기념하여 자기소질 개발과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열어 등급별로 심사하여 상 장과 상품을 수여함	
13	문화가족유적답사	· 일시 : 2006. 10. 14 · 장소 : 경기도 안성일대 · 참여인원 : 80여명	문화소의 계층인 전형적인 농어촌지 역의 여건으로 문화가족들의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옛 선인들의 정신과 삶 그리고 꿈이 어려있는 안성의 민 중문화의 숨결을 느꼈음 (바우덕이사당, 청룡사, 칠장사, 죽주 산성 등을 답사함)	



2006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4	석북 신광수선생 학술대회	· 일시 : 2006. 10. 26. · 장소 : 서천문화원강당 · 참석 : 200여명	대산 이동환선생의 기초연설을 비롯 하여, '석북'의 학문적 업적을 총체 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새롭게 조명 하고자 한문학계에서는 학문적 가치 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표작인 '관산 옹마(關山戎馬)'는 '시조창'의 최초 문헌으로서 국문학계 또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 인정하여 이 로 중국자수대 윤경수교수, 이기현 문학박사, 충남대 박우훈교수,이항배 교수, 중부대 신웅순교수, 동국대 강 경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 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15	제6회 기벌포예술제	· 일시 : 2006. 10. 25 - 11. 8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0여명	서천문화예술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서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전 시행사,공연행사,문화회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진행함	
16	전시사업 "윤원진 개인전"	· 일시 : 2006. 11. 3 - 7.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500여명	타자의 시선을 응시하는 어느 상황 주의자의 그리움의 화폭을 담은 윤 원진 제2회 개인전-수류화개(水流花 開)를 전시함	
17	서천 문화예술 학생연합축제	· 일시 : 2006. 11. 09 - 11.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0여명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의 사업별 성과물 전시(학교별, 과목별) 및 공연축제,영극영상제등을 발표함	
18	향토민속발굴사업 "서천의 음성과 생활문화"	· 일시 : 2006. 1월 - 12월 · 용역 : 유승광 · 부수 : 500부	음성은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방호하고자 축성한 것이 목적이지만 양반문화와 서민생활이 공존하고 있 고 서천음성에 관한 조각난 편린들 을 여기모아 조선시대 생활문화를 조사 탐구하여 지역사 조명을 위하 여 비인음성, 서천음성, 한산음성을 중심으로 (서천의 음성과 생활문화) 를 발간하였음	

2006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문화지 발간사업	· 일시 : 2006년 1월 - 12월 · 발간명 : 문화서천 · 부수 : 1,000부	서천문화원의 기관지 역할과 더불어 종합문화지를 지향하여 서천군민의 문화적 독해력을 높이고자 함	
20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 일시 : 2006년 1월 - 12월 · 장소 : 서천군일대 · 참석 : 2,000여명	○ 학교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 ○ 교사직무연수프로그램 ○ 워크숍 진행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현실과 문화·자연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여 자료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목적을 두고 청 소년 자신이 찾아낸 지역사회에 의 미들을 문화예술적 행위로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해 석·재구성하여 창조하는 판단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문화교육적 가치를 부여함	
21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 일시 : 2006년 1월 - 12월 · 장소 : 한산동자북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산면 동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산 소곡 주'를 주민들에 의해 학습/계승되어 현재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약자인 소곡주를 빚고 있으며 내림기법에 의해 소주인 불소곡주를 만들어 즐 기고 있는 한산면 일대의 문화전통 을 살려 동산리 동자북 마을을 거점 으로 하는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산 소곡주'의 고유 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유· 무형의 현대적 가치 생산을 통해 문 화역사 자원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 역거점마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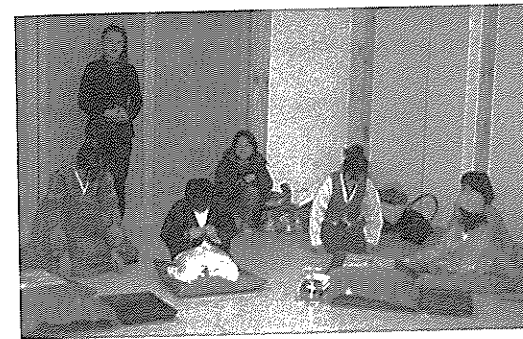
2006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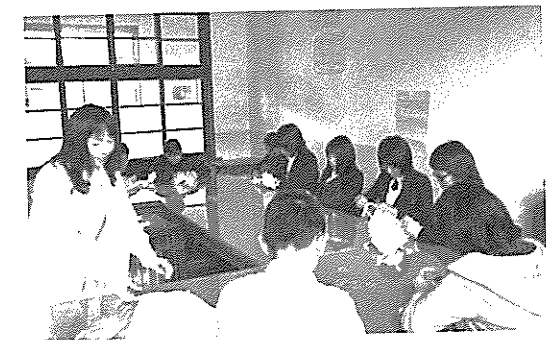
석북 신광수의 삶과 문학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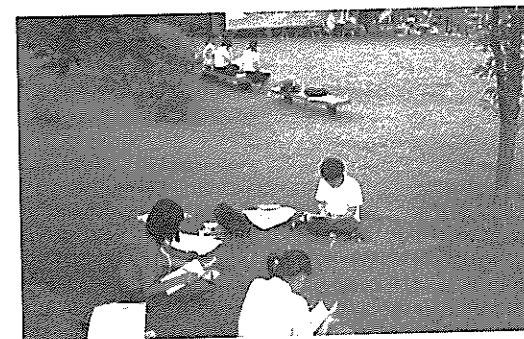
2006년 제8회 기벌포 대보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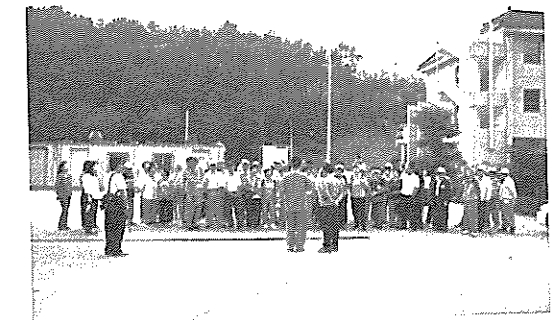
다례교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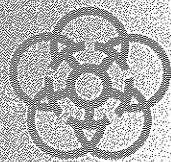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토요일프로그램 모시공예



제33회 신석초 문예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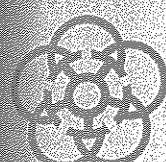


향토문화교류체험프로그램 용산-서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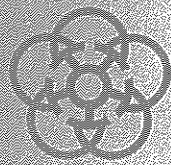
2006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컴퓨터교실(Ⅰ)	· 일시 : 2006. 5. 25 ~ 6. 16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15회 문화학교
2	컴퓨터교실(Ⅱ)	· 일시 : 2006. 6. 26 ~ 7. 14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윈도우 운영 및정보활용 방법교육 인터넷 중급	년15회 문화학교
3	컴퓨터교실(Ⅲ)	· 일시 : 2006. 7. 18 ~ 8. 7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중급(한글2004)교육	년15회 문화학교
4	서예교실(Ⅰ)	· 일시 : 2006. 7. 18 ~ 8. 7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공체지도	년15회 문화학교
5	서예교실(Ⅱ)	· 일시 : 2006. 8. 8 ~ 8. 29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중급 한글 공체지도	년15회 문화학교
6	컴퓨터교실(Ⅳ)	· 일시 : 2006. 8. 21 ~ 9. 8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중급(한글2004,포토샵)교육	년15회 문화학교
7	컴퓨터교실(Ⅴ)	· 일시 : 2006. 11. 13 ~ 12. 1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15회 문화학교
8	컴퓨터교실(Ⅵ)	· 일시 : 2006. 12. 11 ~ 12. 30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2명	컴퓨터 중급(한글2004,포토샵)교육	년15회 문화학교
9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교실)	· 일시 : 2006. 11. 14 ~ 12. 26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6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7회



2006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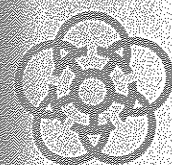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청소년문화 강연회	· 일시 : 2006. 12. 18 ~ 27 · 장소 : 관내 중·고교 · 참석인원 : 1,000명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강의	년4회
11	청소년 위한 음악회	· 일시 : 2006. 12. 19 ~ 29 · 장소 : 관내 중·고교 · 참석인원 : 800명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3회
12	제24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6. 10. 28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30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 24
13	제17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6. 10. 28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32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 24
14	제9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 일시 : 2006. 10. 28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5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은 11. 24
15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6. 11. 30 · 발행부수 : 500부 · 240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회화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16	제16회 내고장문화유적 답사	· 일시 : 2006. 11. 21 ~ 12. 22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24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郷심을 함양시킴	년6회
17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 연중 · http://sunghwan.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 및 지역문화활동 홍보	매일
18	노인교양강좌	· 일시 : 2006. 9. 27 ~ 12. 13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12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20회
19	세시풍속놀이	· 일시 : 2006. 2. 15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 놀이계승	년1회
20	제7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6. 12. 22 ~ 12. 28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관람인원 : 600명	내고장 출신작가의 작품을 전시 (4인초대전)	년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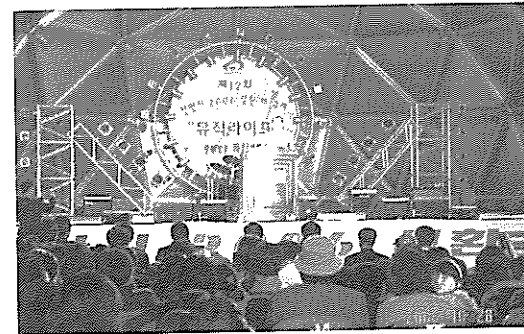
2006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역주 대동지지 (천안군편)	· 발행 : 2006. 12. 28 · 발행부수 : 1,000부 · 국판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천안편)를 한문풀이, 해석, 역주책자 발간	1,000부
22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2006. 12. 28 · 장소 : 충남권 · 참석인원 : 40명	지정문화재와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 장을 답사하면서 향토의식 고취를 위한 설명을 병행하고 향토문화 안 내책자 및 문화원소개전단 배포	년1회
23	제12회 천안 성환 배축제	· 일시 : 2006. 10. 28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10,000명	천안시 성환배의 우수성과 대내외로 홍보하여 소비촉진과 지역경제의 활 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의 단결과 화 합을 유도	년1회
24	2006 복권기금 지원사업 [향토문화체합]	· 일시 : 2006. 6/9 6/23 7/7 · 장소 : 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탑 입장기미독립만세 운동기념탑 천안읍내장터 독립만세운동기념탑 아우만세운동발상지 유관순열사생가 유관순열사추모각 유관순열사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 대상 : 관내 초, 중학생	"유관순열사와 천안지방 독립만세운 동 그 함성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 지고 국무총리복권위원회/문화관광 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국문화원 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	년3회



2006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제12회 천안시 성환배축제



서예교실(I)



여성취미교실(꽃꽂이교실)



제24회 내고장지랑글짓기



제17회 애향의식고취그림그리기



제9회 경로호친취호대회



2006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단오절 민속 놀이경연대회	· 일시 : 6. 4~5 · 장소 : 아우내장터 · 참석인원 : 약 2,000여명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우리 고유 의 전통을 되살려 건전한 정신문화 를 함양케 함	
2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 9. 28 · 장소 : 유관순열사사우 · 참석인원 : 4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 리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3	향토민속발굴	· 일시 : 11월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 : 500부	'아! 위례성이여' 백제초도 위례성에 관한 연구	
4	허수아비축제	· 일시 : 9월~11월 · 장소 : 천안시 북면 남안리 · 참석인원 : 2,000명	남안리 들녘과 옛 폐교 부지(위례초 등학교)에 테마별로 허수아비를 제 작·설치, 볼거리를 제공하여 각 학 교 및 단체들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함	
5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 일시 : 2. 16 · 장소 : 본원앞광장 · 참석인원 : 100명	문화가족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물놀 이 공연 및 전통민속 윷놀이 대회 개최	
6	민화전가 장승축제	· 일시 : 2. 15 · 장소 : 천안 풍세면 보성리 · 참석인원 : 300명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 한 축제(장승 100여점의 민속공예품 전시)	
7	전입주민을 위한 문화유적체험	· 일시 : 6월~12월 · 장소 : 천안시 · 초청인원 : 80명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려 주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여줌	



2006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10. 25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참석인원 : 40명	천안에서 비교적 오지인 광덕면 보 산원초등학교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체취를 느끼며 민족의식 고양	
9	작은도서관 운영	· 일시 : 상시 · 장소 :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 무제한	양질의 향토자료 및 도서를 비치하 고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 열 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 를 함	
10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 상 식	· 일시 : 10월 28일 · 장소 :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 200명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11	요가 교실	· 일시 : 3월~11월 · 장소 : 본원 2층강당 · 참석인원 : 40명	농사 및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주부 들을 대상으로 요가강좌를 개최함으 로 심신수양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12	풍물놀이 교실	· 일시 : 9월~12월 · 장소 : 본원 2층강당 · 참석인원 : 40명	우리 고유의 악기를 연주함으로 정 서함양 및 각종 행사에 참여 봉사할 수 있는 문화가족으로 함께함	
13	꽃꽂이 교실	· 일시 : 9월~12월 · 장소 : 본원 1층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강사와 함께 매주 하나의 작품을 완 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15주 동안 기초에서 숙련되기까지 진행	
14	문화교실 종강식 & 송년회	· 일시 : 12월 8일 · 장소 : 본원 2층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지난 일 년 동안 문화교실 수강생들 과 문화가족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갖음	



2006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허수아비축제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요가교실



유관순열사 추모제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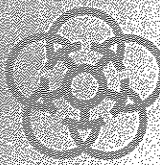


풍물놀이 교실



2006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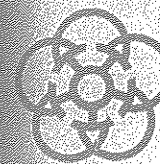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2006년 신년교례회	· 일 시 : 1월 4일 11시 · 장 소 : 한일프라자 · 참석인원 : 200명	- 예산군내 각 기관 단체 임직원 참석 - 신년인사로 거행	
2	2006-1 이사회	· 일 시 : 2월 10일 · 장 소 :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 2005결산서 작성 - 2006예산서(안)편성	
3	2006정기총회	· 일 시 : 2월 28일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대의원 45명	- 2005세입세출결산승인 - 2006세입세출예산서승인	
4	임원선출임시총회	· 일 시 : 6월 30일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대의원 45명	- 원장보선 (이용면 신임원장선출)	
5	갈신리장승제	· 일 시 : 음력 정월 5일 · 장 소 : 대흥면 갈신리 · 참석인원 : 10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6	조곡리산신제	· 일 시 : 음력 정월 보름 · 장 소 : 신암면 조곡리 · 참석인원 : 8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7	교촌리행장제	· 일 시 : 음력 정월 7일 · 장 소 : 대흥면 교촌리 · 참석인원 : 20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8	문화가족 유적지순례	· 일 시 : 6월 30일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 참석인원 : 8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가족친목 및 문화유적 탐방행사	



2006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예산의풍속 발굴간행	· 일 시 : 하반기 · 장 소 : 예산군지역 · 참석인원 : 50명	-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시행	
10	예산문화 제39집 간행	· 일 시 : 하반기 · 장 소 : 예산군일원 · 참석인원 : 50명	- 예산문화원 향토문화보존사업으로 시행	
11	추사선생추모제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추사묘일원 · 참석인원 : 200명	- 예산군 신암면 용공리 소재 추사김정희선생묘소에 추사문화제고제로써 시행	
12	추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 일 시 : 10월 15일 · 장 소 : 예산군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800명	- 전국서예인 500명 참가 국무총리상 이하 시상	
13	추사체취호 전국대회	· 일 시 : 10월 15일 · 장 소 : 예산군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300명	- 추사체의선양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전국대회신설	
14	전국청소년 회화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150명	- 전국청소년응모작품중특선 이상확보작확인시설 및 문화관광부장관상 이하시상	
15	예산군학생 미술실기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추사고택일원 · 참석인원 : 180명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 참가경시	
16	예산군학생 글짓기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화순옹주묘 · 참석인원 : 120명	- 예산군내초·중·고등학생 참가 심사후 시상	



2006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예산군학생 풍물겨루기대회	· 일 시 : 10월 14일 · 장 소 : 예당호조각공원 · 참석인원 : 180명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 참가 경연후 당일시상	
18	수석전시회	· 일 시 : 10월 15일 · 장 소 :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120명	- 예산수석회 회원전으로 시행	
19	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순회전	· 일 시 : 11월 25일 각1회 · 장 소 : 천안, 예산 · 참석인원 : 500명	-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	
20	월요서예강좌	· 일 시 : 매주 월요일 · 장 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0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21	한국화 강좌	· 일 시 : 매주 화요일 · 장 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8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22	수요서예 강좌	· 일 시 : 매주 수요일 · 장 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15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23	규방공예강좌	· 일 시 : 매주 월요일 · 장 소 :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0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24	EXLT청소년 회원공연	· 일 시 : 12월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150명	- 청소년회원단체정기공연	
25	의좋은 형제 학생연극공연	· 일 시 : 12월 · 장 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150명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 참가 경연후 당일시상	
26	어린이발레강좌	· 일 시 : 매주 화. 목 · 장 소 :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5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서 시행	



2006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갈신리 장승제 지원



교촌리 행당제 지원



추사 문화제



예산저수지 호반문화 영화상영



청소년 하계 수련활동



국립중앙박물관 탐방



2006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병술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06. 1. 3 (11:00)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200명	관내 기관 및 사회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가족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2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6. 3. 6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32명	2005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6 세입·세출 예산 승인	
3	향토자료관 운영	· 기간 : 년 중	각종 향토 민속자료 전시로 전통의식 함양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4	문화탐방	· 일시 : 년 중 · 장소 : 서울청계천 국립박물관의 11개소 · 참석인원 : 문화가족 540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문화원장 선출	· 일시 : 2006. 6. 13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임원 86명	이사회 의결로 투표 실시 김시경 신임원장 선출	
6	문화원장 이·취임식	· 일시 : 2006. 7. 26 (15:00)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500명	신임원장 선출	
7	여름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2006. 8. 1 ~ 8. 4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76명	청소년 여름문화 학교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양강좌 및 취미 생활과 문화탐방으로 문화 참여 기회 제공	
8	문화학교 강좌	· 일시 : 년 중 · 장소 : 온양문화원 (도서실 2층) · 참석인원 : 150명	초, 중, 고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매주 월, 목요일 19:00 ~ 21:00 서예 강좌 실시	



2006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문화학교 강좌	· 일 시 : 년 중 · 장 소 : 온양문화원 (사랑방-3층) · 참석인원 : 70명	일반시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14:00 ~ 16:00 국악(시조, 판소리) 강좌 실시	
10	문화학교 강좌	· 일 시 : 년 중 · 장 소 : 온양문화원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45명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 금요일 10:00 ~ 12:00 논술강좌 실시	
11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일 시 : 년 중 · 장 소 : 온양문화원 공부방 · 참석인원 : 6,300명	공부방을 년 중 개방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의 공부방으로 활용	
12	문화원 이사 문화탐방	· 일 시 : 2006. 9. 8 · 장 소 : 진주 (촉석루, 진주박물관) · 참석인원 : 문화원 이사 22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3	맹정승축제	· 일 시 : 2006. 9. 30 (10:00 ~ 21:00) · 장 소 : 아산시 신정호 관광단지 · 참석인원 : 12,000명	청백리상 시상 · 선비상 · 스승상 · 지킴이상 상장 및 행운의 열쇠 수여 - 어린이 맹사성 선발 충, 호, 예, 의 문 상 부분별 장학금 전달 - 각종 공연 (국악, 마당극, 난타, 무용 등) - 체험 및 참여 행사 실시	



2006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온양문화원장 이·취임식



신년하례회



문화원이사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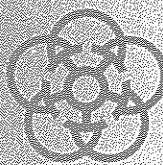
맹정승축제



문화학교 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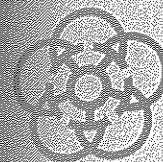
여름 문화학교



2006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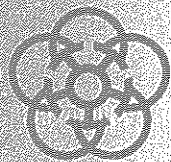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16회 민속한마당 및 노인학교	· 일시 : 5.19, 11. 22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600명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자랑 및 민속공연 한마당 개최	
2	새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 1월 3일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500명	2006년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단결	
3	농악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80명	매주 월~금 까지 웃다리 풍물 및 사물놀이 교육	
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35명	매주 토요일 경기민요 및 판소리 교육	
5	향토사 연구활동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 및 군외 · 참석인원 : 200명	향토사료조사연구 활동 및 내 고장 문화교육	
6	문화유적답사	· 일시 : 5월 ~ 10월 · 장소 : 연기군내, 도내 · 참석인원 : 2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리기 및 유적답사	
7	경로호친의 달 행사	· 일시 : 4월 27일 · 장소 : 수덕사, 덕산온천 · 참석인원 : 3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사	
8	주부교양강좌	· 일시 : 년중 · 장소 : 5월 ~ 12월 · 참석인원 : 80명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위한 건전가요반 운영 (다도교실, 건전가요)	
9	제7회 성삼문문화제	· 일시 : 10. 28 · 장소 : 금남면 문절사 · 대상 : 학생, 유림, 일반인 · 참여인원 : 300명	충신 성삼문을 기리는 추모행사 및 백일장대회 개최	
10	청소년 백일장 개최	· 일시 : 10. 28 · 장소 : 금남면 문절사 ·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 참여인원 : 100명	군내 초, 중, 고 대상으로 충효에 대한 백일장 대회 개최	
11	전통소리 봉사단 운영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 · 대상 : 150명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남도 민요 풍물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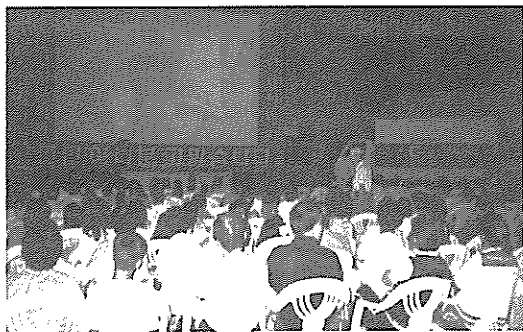
2006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전 시 회	· 일 시 : 12월 예정 · 장 소 : 전시실 · 대 상 : 연기군민 · 참석인원 : 100명	서화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 및 도자기 전시회	
13	군민친선바둑대회	· 일 시 : 12월 예정 · 장 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0명	바둑기능인 양식 및 군민들의 상호친목도모	
14	효자효부표창	· 일 시 : 11. 22 예정 · 장 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 상 : 8개읍면효자효부 · 참석인원 : 500명	8개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표창	
15	독서실운영	· 일 시 : 년중 · 장 소 : 연기향토사무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도서(고서)를 구입하여 독서실 운영	
16	충남문화 예술인대회	· 일 시 : 11월 11일 · 장 소 : 청양문화예회관 · 참석인원 : 연기군민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발전방안을 모 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 문화창달의 계기를 마련	
17	제6회 연기대첩제	· 일 시 : 10월 12일 · 장 소 : 서면연기대첩공원 · 참석인원 : 연기군민	고려 때 몽고 합단적을 물리친 전투지에서 대제를 올림	
18	찾아가는 무료영화상영	· 일 시 : 6. 13 8. 15 8. 28 ~ 29 · 장 소 : 6개면에서 · 참석인원 : 연기군민	6개 면을 돌며 문화에 소외되어 살 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영화상영 을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일깨워 줌	
19	이주여성교육	· 일 시 : 9월 1일 ~ 12월 · 장 소 : 문화원 강의실 · 참석인원 : 이주여성	연기군내에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 을 대상으로 교육 (한글, 댄스, 예절, 음식, 전통놀이, 노래 등)	
20	실버 땡땡땡 구전동요	· 일 시 : 9월 1일 ~ 12월 · 장 소 : 문화원 강의실 · 참석인원 : 실버세대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동요를 할머니 들이 교육하여 배워 유치원 아이들 에게 가르침	
21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하는 방과후교실	· 일 시 : 12월 예정 · 장 소 : 문화원 강의실 · 참석인원 : 혼혈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하는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한국문 화 적응기를 만들고자 함.	



2006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무료영화상영



전통소리봉사단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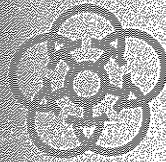
효콘서트 민속한마당



문화유적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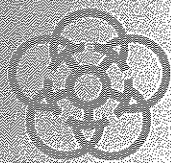


해맞이우리소리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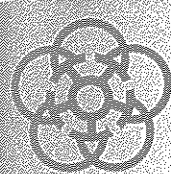
2006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 3 · 장소 : 천안웨딩코리아 · 인원 : 300여명	- 공공기관,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기업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신년인사회 개최	
2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 2. 11 ~ 12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인원 : 3,200여명	- 묘기연 및 대형 연날리기 시연회,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던지기 등 읍·면·동 대항 민속놀이 경연대회 및 연만들기, 제기 만들기 교실 등 실시, 시민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협의 장	
3	2006 문화학교	· 기간 : 3월 ~ 12월 · 과목 : 11개 과목 · 인원 : 400여명	- 요일별 개별강좌 수채화, 꽃꽂이 등 11개 과목	
4	수채화 교실	· 기간 : 3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 인원 : 50명	-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 과정, 아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 년1회 작품전 실시	12.18~21 작품전
5	시창작 교실	· 기간 : 3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인원 : 20명	-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 년1회 시집 발간	
6	개원 52주년 기념 문화예술제	· 일시 : 7. 13 (11:00)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전시실 등 · 인원 : 200여명	- 연혁 및 사업보고, 표창패 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축하연주, 전시회("화미회"수채화전)개막, 리셉션 등	
7	"화미회"수채화전 (수채화 12인전)	· 기간 : 7. 13 ~ 17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회원 15명	- 수채화교실 수강생 등 중급과정을 이수한 12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일곱 번째 작품전	
8	"다미회"수채화전	· 기간 : 12. 18 ~ 21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회원 50명	- 수채화교실 수강생들의 수료 작품전	
9	"포토클럽"사진전	· 기간 : 12. 22 ~ 26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회원 40명	- 사진교실 수강생들의 수료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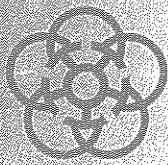
2006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청유회"유화전	· 기간 : 12. 27 ~ 30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회원 20명	- 유화교실 수강생들의 수로 작품전	
11	글짓기 교실	· 일시 : 7. 24 ~ 29 · 대상 : 초등학교 3 ~ 6년생 · 인원 : 30여명 수강	-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30여명 수강 - 글짓기, 독서지도, 독후감 지도, 문장의 이해 등 강의	
12	"천안문화" 제42호 발간	· 발 행 일 : 5. 20 · 발행부수 : 2,000부	-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개원52주년 기념식 및 예술제) 등 수록	
13	레이디스싱어즈 제13회 정기연주회	· 일시 : 5. 25 · 장소 : 천안시민문화회관 · 인원 : 회원 50여명	- 가곡, 외국민요, 건전가요 등 합창을 통해 시민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회	
14	"향토문화자료" 25집 "천안을 노래한 漢詩" 발간	· 발 행 일 : 9. 4 · 발행부수 : 1,000부	- 역사적으로 천안의 선비, 학자들이 읊은 시들을 현대적 어법에 맞게 번역하여 수록	
15	"예술강연회-국악인 황병기 선생" 초청 강연회	· 일시 : 6. 30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인원 : 200여명	- 가야금계의 최고봉인 황병기선생 을 초청 「한국음악의 멋」이라는 주제로 강연회 실시	
16	한·일 작가 초대전	· 일시 : 9. 29 ~ 10. 4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20여명	- 한국,일본 양국의 정상급 작가 초대전	
17	천안홍타령축제 2006	· 일시 : 10. 1 ~ 3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등 · 인원 : 100,000여명	- 천안지역의 고유 정서가 녹아진 「홍타령춤·노래·의상」을 주테마 로 신명, 감동, 열정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참여형 열린 축제 - 춤경연,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자유공연, 부대행사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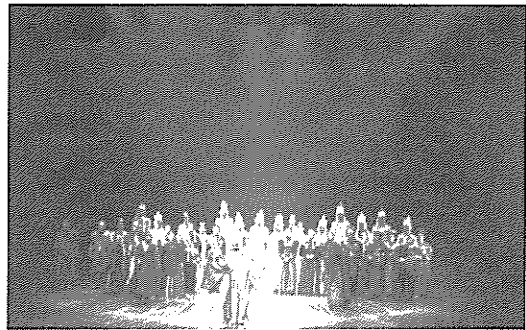


2006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8	제36회 학생 글짓기·사생대회	· 일시 : 10. 1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인원 : 600여명	- 초·중·고교생 대상 실기대회 개최(학교별·부문별 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 시상식 : 10.14 (14:00)	
19	한마음 실내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 일시 : 11. 9 · 장소 : 천안시민문화회관 · 인원 : 회원 30여명	-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13회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출연 등 90 분간 실시 -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전 연습	
20	2006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12. 30 · 장소 : 문화사랑방 · 인원 : 200여명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천안문 화원 실내악단, 합창단 공연, 독서 토론, 영상음악회, 문학 초청강연 등 실시	
21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제17집 발간	· 발 행 일 : 12. 24 · 발행부수 : 1,000부	-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2	"천안문화" 제43호 발간	· 발 행 일 : 12월말 · 발행부수 : 2,000부	-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 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3	향토사조사 연구사업	· 기간 : 년중	- 향토사 관련 자료 수집(문헌 및 향토사 관련 원고 등) 등	
24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 년중	- 각종 자료 및 정리, 보완 등 각종 학교의 단체관련, 일반시민 등 연중관람	



2006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뮤지컬 명성황후 초청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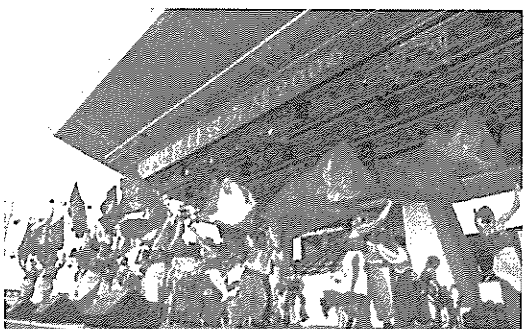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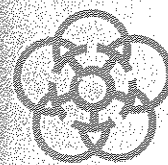
항병기선생 초청강연회



개원52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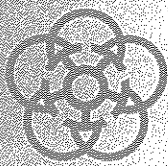


천안홍타령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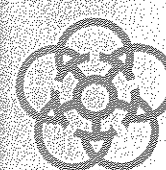
2006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6 신 년 교례회	· 일시 : 1. 3 오전11시 · 장소 : 아리랑뷔페 · 참석인원 :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떡 절단식 · 다과 및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 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 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 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 기간 : 1.4~2.2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79명	· 동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 -댄스스포츠교실 -고무찰흙교실 -종이접기교실(계4강좌)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 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방학기간중 다양한 문 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 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 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마련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 업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 기간 : 7. 24~8. 18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123명	· 하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 -댄스스포츠교실 -고무찰흙교실 -종이접기교실 -핸드페인팅교실 -논술교실 (계6강좌) -영화상영(무료)	
		· 기간 : 11. 3~11. 30 · 장소 : 각급학교 (순화교육)	· 백제의 놀이문화교실 -쌍육놀이교실 -승경도놀이교실 -저포교실 -행다법교실(다도)	
		· 기간 : 년중 · 장소 : 문화원 · 수료인원 : 30명	· 일반인 문화학교 -국악교실(가야금,장구,민요) -풍물교실	
3	전시회	· 기간 : 3. 4~3. 5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참여인원 : 400여명	· 제3회 청양군 한국춘란전시회	지역문화예술의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 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 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지역출신예술인의 애향심 및 창작의식 고취 시키고자함
		· 기간 : 10. 19~10. 21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참여인원 : 500여명	· 제12회 칠갑사진동우회 회원전	
		· 기간 : 11. 17~11. 18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제4회 청양군서우회 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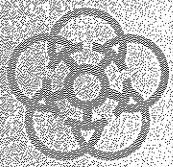
2006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4	칠갑산 장승문화 축 제	· 일시 : 4. 22 10:00~17:00 · 장소 :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 참석인원 : 15,000여명	· 행사안내 및 사물놀이시연 (식전행사) · 개막식-개식선언(본행사) · 칠갑산장승대제 · 평화통일여장군제막식 · 장승제시연 및 가족장승짜기체험 · 소원성취기원문달기 · 학생그리기대회 및 가족허수아비 창작공모전 · 충청우표전시회 및 나만의 우표만들기 ·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 충남국악단 초청공연 · 국악공연 및 춤사랑 초청공연 · 김대균 줄타기공연(무형문화재) · 청양대학교동아리 합합댄스 · 구기자주 제조체험 및 춘포짜기체험 · 잠공예체험 · 나무곤충만들기 체험 · 가훈씨주기 · 전통민속놀이체험 · 공예품전시 및 판매 · 우리농산물 판매장 운영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 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 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 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5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 일시 : 5. 9 · 참여인원 : 35명 제2차 · 일시 : 11. 14	· 순례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선암사, 낙안읍성등 · 순례장소 경기도 파주시 일원 -화석정, 자운서원, 윤관장군묘소등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 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 접체험하며 회원간의 친 목을 도모
6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 1차 : 5. 23 (120명) · 2차 : 5. 24 (50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 사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 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순례장소 백제역사문화관, 백제군사박물관 계백장군묘소, 논산관측사	· 1차 : 남양초등학교 · 2차 : 동영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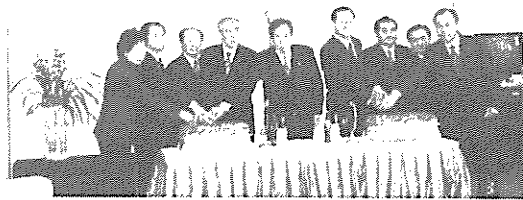
2006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 영	· 기간 : 7. 28~7. 29 · 장소 :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 · 참여인원 : 55명	· 전통생활문화체험 손수건쪽죽 천연염색, 승경도놀이 체험, 다도체험, 떡메치기체험, 잠공예체험 솟대만들기체험, 쌍육놀이체험	
8	청소년 음악회	· 일시 : 7. 29 · 장소 :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 참석인원 : 200여명	· 한사랑 가족음악회 프로그램 철망앞에서, 그녀석들과의 여성, 민들레향장, 웬지 느낌이 좋아, 축복합니다.(총23곡)	노래와 음악을 통해 바른 심성을 배양하고 정서를 함양시키고저 함
9	문화가족 씨름운영	· 일시 : 11. 8 · 참여인원 : 19명	·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우리고장의 문화재,지명,전 설등 현지 자료조사를 통 하여 향토사 편찬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함
10	문화가족 품 발 표 회	· 일시 : 11월중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수강생 발표(민요부, 풍물부) · 수강생 작품전시 종이접기(20작품) 미술교실(20작품) 핸드페인팅교실(20작품)	문화학교수강생(민요,풍물, 종이접기, 핸드페인팅교실, 미술교실등)작품전시 및 발표회
11	문화의밤	· 일시 : 11월중	· 문화의 밤을 맞이해 영화상영	
12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 승	· 일시 : 11. 25	· 제4회 청양군 바둑대회	우리고유의 민속놀이를 재 현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마련
13	내 고 장 문화역사 인물발굴 홍보사업	· 일시 : 12월중	· 우리고장의 문화역사인물을 발굴, 홍보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14	발간사업	· 발행부수 : 각1,000부 · 발행일 : 11, 12월	· 향토민속발굴 ·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 청양의 시장민속 · 청양의 물질문화 · 칠갑문화
15	문화코너 운 영	· 기간 : 년중	· 자료열람실(전국향토자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 서교육에 기여
16	향토자료관 운 영	· 개관 : 10. 25 · 기간 : 년중	· 향토자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향토민속자료 전시로 전통 의식 함양과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17	사이버 문화원 운 영	· 일시 : 년중 · 홈페이지 주소 : cheongyang.cult21. or.kr	· 문화소식 · 청양의 역사소개 · 축제/행사 ·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 함



2006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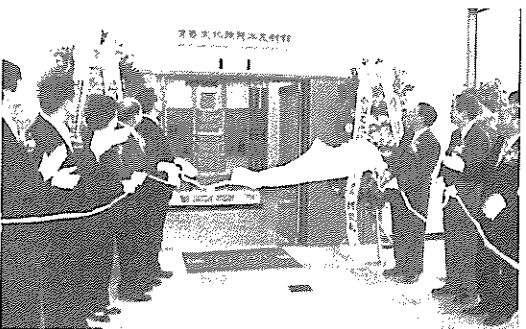
2006년 新年交禮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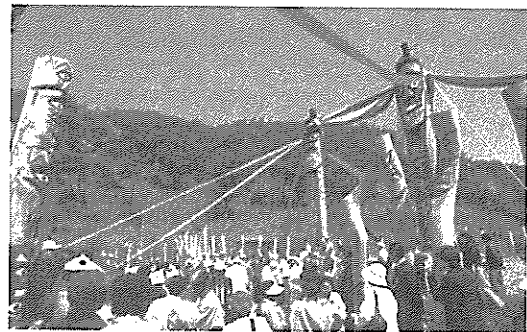
2006 신년교례회



숫대만들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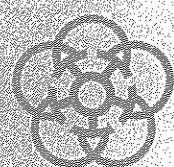
향토사료관 개관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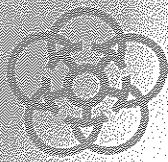


사진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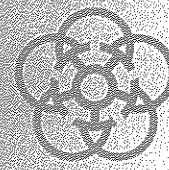
2006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중앙대제	· 일시 : 2. 22(음1. 14) 19:00 · 장소 : 경아정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 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 안 시화연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아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3. 10(음 2. 1) · 장소 : 아원면 관리마을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 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 의날인 음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누 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 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 하는 민속행사	
3	해외문화담사	· 1차 / 2차 · 일시 : 6. 8 ~ 11 (4일간)~39명 · 일시 : 7. 25 ~ 28 (4일간)~38명 · 장소 : 큐슈, 벳부, 아소산등 · 참여대상 : 임원,문화가족,대외원 자 · 고문위원	한국의 역사문화가 베어있는 이웃나 라 일본을 탐방하고 문화적 공통점 과 차이점을 연구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향토사의 연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4	가족문화체험단	· 일시/장소/참여인원 · 1차 : 10. 28 (공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40명) · 2차 : 11. 11 (남면, 고남농촌체험마을- 30명)	가족과 자연,문화라는 테마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5	향토민속 도서관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 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 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 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관 한다	
6	당제및민속행사지원	· 일시 : 11월 ~ 12월 · 대상 : 남면 당암리, 원청리,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 승할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 역의 당제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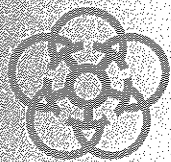
2006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 7. 28 ~ 30 · 장소 : 남면초등학교, 테마학습장 · 대상 : 태안지역청소년 80명	연극반, 문예창작, 논술 프로그램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체험활 동을 실시한다	
8	주말영화교실	· 일시 : 4. 1 ~ 10. 21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 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 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 하여 매주 자료지를 발행하고 영화 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9	제15회 소성백일장	· 대상 :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 248명중 150명 입상 19개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 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 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 로 접수하여 심사함	
10	초·중 미술실기대회	· 일시 : 6. 17(토) 10:00 · 장소 : 군청광장 · 참석인원 : 406명중 235명 입상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등 사상 대회를실시함	
11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 일시 : 11월 3일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석인원 : 마을주민 100명	누동리1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올리기 축문읽기, 조개부르기 한 마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12	태안문화원 초대전	· 일시 : 7. 7 ~ 13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 전시작품수 : 50점	샘골스케치회, 예술태안회, 서예협회 태안군지회, 태안사진동우회, 태안중 등미술교육연구회, 태안초등미술교 과교육연구회, 연목회, 안면도현대미 술교류회, 백화사진동우회, 한우리회 등 태안내 예술단체참여,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교류 및 유대강화	
13	움직이는 문화공연	· 일시 : 미정 · 장소 : 태안문화원	장병들을 위해 위문공연(사물놀이, 민요, 가야금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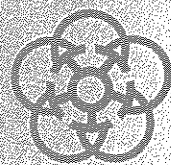
2006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4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샵	· 일시 : 11월 중순 · 장소 : 미정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 표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 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 교의 시간등을 실시	
15	사이버문화원	· 일시 : 1월~12월 ·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 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 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16	자염축제	· 일시 : 10월 3일 · 장소 : 근흥면(남금마을) · 참석인원 : 1,000명	소금과 관련된 전시장, 생태체험학 습장, 소금축제, 종합갯벌 체험마을 을 조성함	
17	소성의향기112집	· 일시 : 12월 31일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전국문화원, 군내 각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18	지역문화학교	· 일시 : 4월 ~ 11월 · 장소 : 문화원 · 참가인원 : 180명	프로그램 · 사물놀이 : 8월 ~ 10월 · 풍선아트 : 8월 ~ 10월 · 리본아트 : 4월 ~ 10월 · 사 진 : 4월 ~ 6월 · 오 카리나 : 4월 ~ 6월	
19	교육 유공자에 관한 기초연구사업	· 일시 : 5월 ~ 12월 · 참여인원 : 50여명	태안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선양해야 할 명사를 찾아 그에 대한 자료를 연구 정리하며 선양사업을 통해 지 역의 역사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지 역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2006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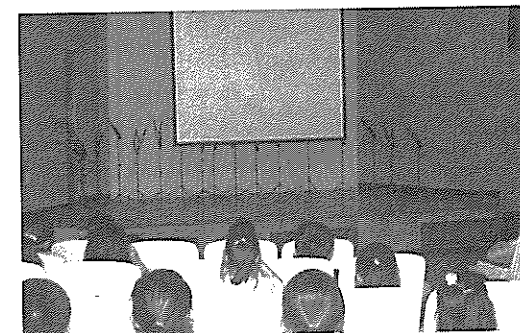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20	남문리지 발간	· 일시 : 년중 · 참여대상 : 남문리지 발간 편찬위원회 (30명)	태안읍 남문리 지역의 각종 문헌자료 및 구술자료를 체계화하여 정리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1	복권기금 향토체험프로그램 "자연과 예술 우리 온몸으로 느껴요"	· 1차 / 2차 · 일시 : 9. 18 ~ 19/9. 20 ~ 21 · 장소 : 안면자연휴양림, 삼봉사구, 학교 · 체험내용 : 벽화그리기, 생태체험 · 참여인원 : 50명 / 50명	벽지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감과 통합되는 학교에서의 소외감, 또한 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등의 극복을 위해 '벽화그리기'라는 공동작업을 하면서 내가 사는 교장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또한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서로 다가가도록 자연을 소개하고 생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22	복권기금 실버문화학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생활문화이야기"	· 일시 : 6월 ~ 11월 · 장소 : 남면 별주부마을 (30명) 고남 조개부리마을 (30명) 이원 벚가리마을 (30명)	태안의 농촌체험 마을의 노인들이 생활문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설사 양성교육	
23	태안6쪽 마늘요리축제	· 일시 : 6. 17 ~ 18 · 장소 : 군청앞 동남지구	태안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 품질 우수성 대내·외적 홍보 소비자들에게 태안6쪽마늘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경영안정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24	자료관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태안문화원	문화원에서 보유중인 지역의 향토자료, 유물, 서적 등을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5	글씨그림사진전	· 일시 : 11. 17 ~ 21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여단체 : 백화사진동우회 서예협회태안군지회 샘글스케치회 연목회 예술태안회 태안사진동우회 태안중등미술교육연구회 태안초등미술교과 교육연구회	태안지역에서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서예, 사진 등을 예술단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연합 전시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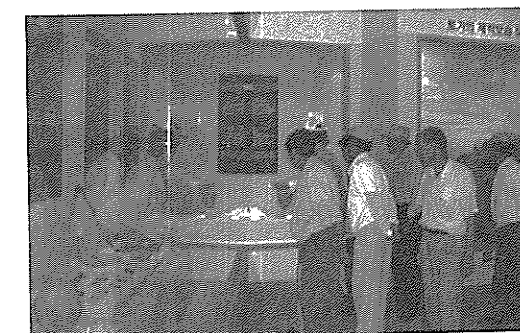
2006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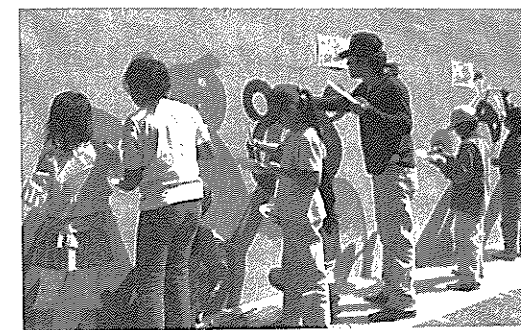
가족문화체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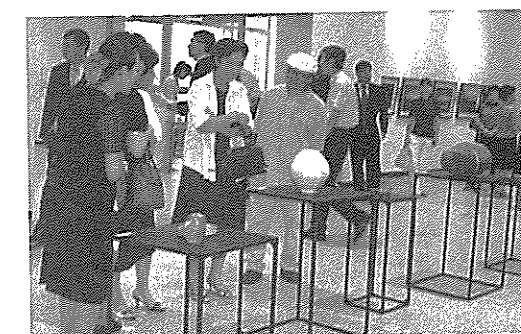
주말영화교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생활문화이야기



자연생태 우리 온몸으로 느껴요



태안문화원 초대전



2006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 3(화) ·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 참석인원 : 250여명	신년을 맞아 관내 각급기관 사회,문화 단체장들간의 친목 도모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함	
2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일시 : 2. 11(토) · 장소 : 홍성군청 홍주의사충 옆 논 · 참석인원 : 600여명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 세에 전하고자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행사를 마을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함	
3	찾아가는 문화원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홍성군일원 · 참석인원 : 320여명	각 마을이나 학교 기관 단체를 찾아 다니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에 체험 위주로 시행하며 보다 실감있게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줌	
4	전통 관례 및 계례 재현	· 일시 : 5. 15(월) · 장소 : 해전대학 노천극장 · 참석인원 : 800여명	전통 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을 지역대학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성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	
5	제12회 만해제	· 일시 : 9. 30(토) - 10. 1(일) · 장소 : 홍성군일원 · 인원 : 2,500여명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 및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잔치	
6	홍성문화 발간	· 일 시 : 년 중	홍성의 문화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해 주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줌	
7	거리영화제 (좋은 영화 감상하기)	· 일 시 : 8월 - 12월	문화소외계층의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영화 감상의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기쁨 및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문화적 정서를 높이고자 함	



2006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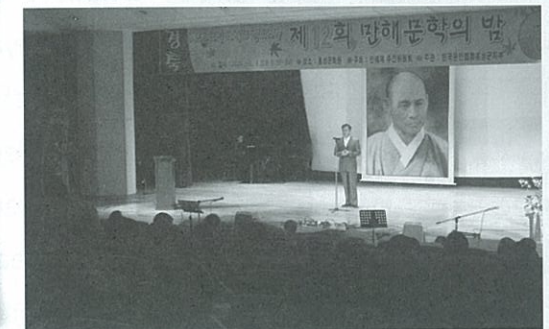
거리영화제 (좋은영화감상하기)



신년교례회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제12회 만해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찾아가는 문화원

|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가나다순 |

- 공 주 문 화 원 <http://gongju.cult21.or.kr>
- 금 산 문 화 원 <http://geumsan.cult21.or.kr>
- 논 산 문 화 원 <http://nonsan.cult21.or.kr>
- 당 진 문 화 원 <http://dangjin.cult21.or.kr>
- 대 천 문 화 원 <http://daecheon.cult21.or.kr>
- 부 여 문 화 원 <http://buyeo.cult21.or.kr>
- 서 산 문 화 원 <http://seosan.cult21.or.kr>
- 서 천 문 화 원 <http://seocheon.cult21.or.kr>
- 성 환 문 화 원 <http://sunghwan.cult21.or.kr>
- 아우내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 예 산 문 화 원 <http://yesan.cult21.or.kr>
- 온 양 문 화 원 <http://onyang.cult21.or.kr>
- 조치원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 천 안 문 화 원 <http://cheonan.cult21.or.kr>
- 청 양 문 화 원 <http://cheongyang.cult21.or.kr>
- 태 안 문 화 원 <http://taean.cult21.or.kr>
- 홍 성 문 화 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가나다순

(2006.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창립일	원사총면적 (평)	문화가족			연락처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문연 충남도지회	논산시 내동 279-4 (논산문화원)	67. 2. 20		지회장 박응진	사무처장 이준창	전현희 윤정란	732-2395 730-4632	732-2394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4	650	정재욱	현대수	이성철 오수진	852-9005 852-7600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김현봉 석현숙	754-2724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박응진	이준창	전현희 윤정란	732-2395 730-4632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김현숙 백숙현 서재석 최만들레	354-2367 357-2367	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윤병배	오종화	윤현정	934-3061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2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도동구	835-3318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신상찬	한기홍	김영철 안지현 최윤경	669-5050 669-3306 669-3307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유성열	조동준	최신희 정찬영 김성호	953-0123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581-2101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최영환	김성준	윤명자	564-1022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4	이용면	김찬민	이향옥	333-2441 335-2441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2동 206-24	57. 3. 20	298	김시겸	이강근	권희경 곽도현	545-2222	542-4444
조치원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603	임영이	이원재	길미숙 김혜자 이진세	865-2411 865-2412	864-0870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626	권연옥	이정우	김장환 이두현 박용세 김동신 전진아 (문화의집) 남승우	575-3004 576-3004	577-3004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944-4774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90. 5. 5	241	명수남	정지수	김유미 이연숙	674-2192 674-1192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54. 3. 31	605	전용택	김경식	강창식 임현경 신정아	632-3613 634-9659 631-3475	633-1199